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6월 1일)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6월 19일 세계 비구니계 지도자 및 석학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불교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내렸다.

성파 종정예하 "마음으로 세상보라"

세계 비구니 지도자 · 불교석학, 성파 종정예하 친견

19일 통도사 종정예경실서 친견
쏘모 스님 "불심 보여달라" 요청
성파 종정예하 "자기가 봐야지"

통도사 · 불국사 · 석굴암 등 참배
한마음선원 부산 울산 진주 순례
"한국불교 전통 느끼는 계기" 소감

양산 통도사=노덕현 기자

조계종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께서 세계 비구니계 지도자들과 석학들의 만남에서 불교 수행에는 다름이 없다는 가르침을 내렸다.

세계 비구니계 지도자들과 석학들은 6월 19일 양산 통도사 종정예경실에서 성파 종정 예하를 친견했다.

이날 친견 자리에는 前 샤카디카인터내셔널 회장 렉쉐 쏘모 스님(미국 샌디에고대 종교학과 교수)을 비롯해 툽텐 죄된 스님(미국 쉬라바스티 애비 주지), 하주 스님(미국 앤아버 선련사 주지), 대만 법고산 대학 창쉔 스님, 베트남 불교대학 불교영어학과장 류팝 스님, 모니카 베테 교토 중세일본학연구소장, 카와나미 히로코 영국 랭커스터대 교수, 모니카 슈림프 독일 튀빙겐 대학 교수 등 세계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교학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등이 이들을 안내했다.

세계 비구니 지도자들과 석학들은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이 6월 17~18일 '세계의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방한했다.

이날 성파 종정 예하는 세계 불교학자들에게 "교와 선은 같다. 다르다고 하면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라고 가르침을 내렸다.

종정 예하께서는 주먹과 손바닥, 손가락을 차례로 들어 보이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름은 다르지만, 손이라는 본질은 매한가지"라고 설하며 '선교일치'의 가르침을 전했다.

이어 성파 종정 예하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육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心)으로 한눈에 바라보아야 한다. 육안으로 보는 것에 시비할 게 없다"라고 했다.

이날 친견 자리에서는 선문답도 오갔다. 렉쉐 쏘모 스님은 종정예경실에 걸린 대만 성운대사의 '불심(佛心)' 휘호 족자를 보고 성파 종정예하께 "스님, 불심을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여쭙자 종정예하께서는 "불심은 얼마든지 볼 수 있지. 보는 건 자기가 봐야지"라고 화두를 건네자 좌중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성파 종정 예하는 화두에 대해 다시 "내가 물을 한잔을 마시는데, 누가 '물 온도가 어떻습니까' 물으면 이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네가 직접 마셔봐라' 라고 해야지"라고 친절하게 풀어 설명했다. 친견 자리에서는 일과 예술 속에 수행과 실천을 담은 종정 예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에 대한 학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선수행과 예술이 어떤 접점이 있는가'는 좌중의 질문에 대해 종정 예하께서는 '화의간산무악석(畵意看山無惡石) 선심도수진생어(禪心渡水盡生魚)'라는 일구(一句)를 인용하며 설명했다. 종정 예하는 "화가의 눈으로 산을 보면 나쁜 돌은 없다. 그리하듯 선심(禪心)이 있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 살생하지 않는 사람이 물을 건너면 전부 고기가 다 살았다"고 가르침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종정 예하는 참가자들에게 이들에게 직접 천연염색한 머플러를 선물했다. 성파 종정예하 친견을 마친 세계 비구니 지도자와 석학들은 종정예하께서 주석하며 제작한 16만 도자대장경이 보관된 장경각을 참배하고, 반구대 암각화를 자개옻칠로 새긴 수중작품, 생활 수행 정신이 담긴 된장 장독대 등을 참배했다.

베트남 류팝 스님은 "삶과 수행이 다름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성파 종정예하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불교의 선수행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성파 종정예하 친견 후 통도사 및 불국사 석굴암 참배와 함께 조계종립 동국대 WISE캠퍼스 견학 등을 진행했다. 또한, 대행 선사의 원력이 서려있는 한마음선원 부산 · 울산 · 진주 지원 등을 순례하며 비구니 승가의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창립
불교 여성포교 새 장 열었다

6월 23일 조계사서 창립 법회
초대회장에 김의정 前신도회장
총재 범해·지도법사 초격 스님

조계종 여성불자들의 전국구 결집체인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첫발을 내딛었다. 전국여성불자회는 전국 25개 교구본 · 말사에서 활동해 온 여성 불자들의 저력을 결집하고 활동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범한 만큼, 침체된 한국불교를 견인할 대표적인 포교단체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과 전국여성불자회 설립추진위원회는 6월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전국여성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창립법회는 그동안 각 지역에서 활동해 온 전국 여성불자들을 결집하고 의지를 모으는 법석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주요내외빈들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또 전국여성불자회 지도법사 소임을 담당할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대표해 초격(봉선사), 덕조(은해사), 허운(관음사) 스님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솔 스님 등 스님들, 전국여성불자회 발기인으로 참여한 여성불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여성도 출가해 아라한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며 여성 출가를 여셨고 이후 부처님 교단과 한국불교에서 재가 여성의 역할 역시 참으로 경이적이었다"며 "오늘날 한국불교 역시 법회, 보시, 봉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임자들이 여성이기에, 우리 종단은 이러한 여성 활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 창립하는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온 생명을 자애롭게 감싸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한국불교의 대사회 활동에 앞장서 주기를, 또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는 일에 서로를 조직해 앞으로 나아가고,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든든한 도반이 되어 주길 바란다"며 "전국여성불자회가 명실상부한 종단 대표 여성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여성불자회 당연직 총재에는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위촉됐다. 범해 스님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가정과 사찰, 일터에서 간절한 기도로 얻은 법음을 전하고, 치열한 정진의 향기로 청정 세상을 일구어 온 전국의 여성 불자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다"며 "김의정 초대회장을 중심으로 불교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세워, 백련 한 송이가 108연꽃을 피워 내는 조계종단의 대표 포교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종회의장 정문 스님도 축사에서 "전국여성불자회는 소중한 여성불자들을 보듬고 인재불사에 매진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여성 조직으로 우뚝 서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활동으로 종단의 위상을 높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에 남다른 격려를 보냈다. 스님은 "오늘 창립하는 전국여성불자회는 한국 여성불교에 한 획을 긋는 대작불사로, 정통성을 계승한 명실상부한 단체를 갈망하던 우리 여성 불자들에게는 감로수 같은 존재"라며 "앞으로 우리 전국여성불자회 회원분들이 각 분야에서 마치 호법신장처럼 종단을 외호해나가실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본각 스님은 모든 여성불자들의 화합을 재차 강조했다. 스님은 "전국여성불자회에 많은 여성 불자들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서로 나누어질 것도, 서로 대립할 것도 없다. 함께 손잡으려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전병국 제1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불교계 역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성들의 역할과 활동을 조직화하고 보다 확대하는 전국여성불자회가 창립해 의미가 크다"고 축하를 전했다.

전국여성불자회는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당연직 총재로, 전국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지도법사로 운영된다. 초대회장에는 前중앙신도회장인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이, 수석부회장에는 이연화 천마관광 대표(前은해사 신도회장)가 임명됐다. 〈관련기사 3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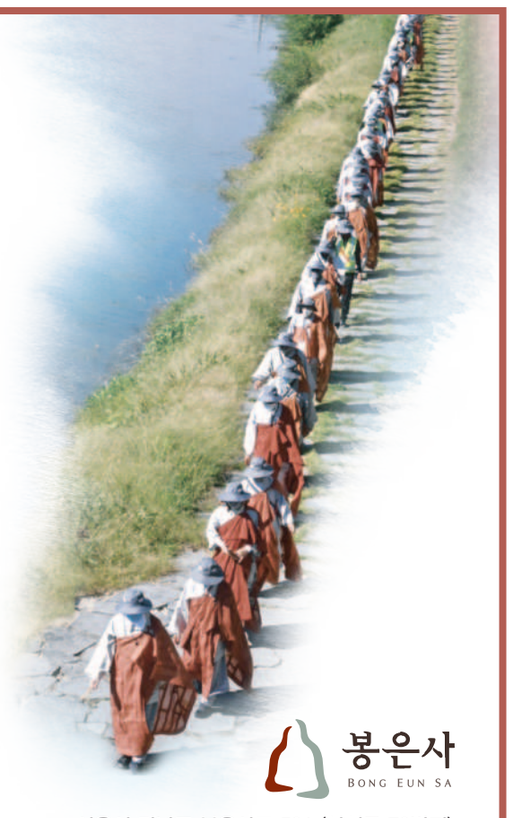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

출가자원 발굴에 군승 수급도 달렸다

[기획] 군승 파송 절벽 다가온다

③ 군승 수급 출가자 감소 파고 넘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출가자 급감과 고령화에
적합대상 찾기 어려워져

가톨릭 방식 의무복무도
교육통한 역량배양 필요

진급 · 나이 복무개편 협의
연계출가 장기수급 모색



최근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을 통한 군승 수급이 없어지며 군승 파송은 사실상 군승요원 파송과 다름이 없게 됐다.

군승으로 단일화된 불교군종장교 수급에 있어 군승요원 선발의 중요성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조계종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종단 주도의 군포교 정책을 수립했고 2003년 군불교위원회를 거쳐 2005년 군종특별교구를 출범시켰다. 각급 군법당에는 종정 예하 교시가 걸렸고, 2009년에는 종헌 내 독신 예외 조항 삭제를 통해 조계종 소속 승려로서 군승법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최근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을 통한 군승 수급이 없어지며 군승 파송은 사실상 군승요원 파송과 별반 다름이 없게 됐다.

군승요원은 조계종 사미 · 사미니계 이상 스님으로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 이상 학력을 지니고 만 35세를 넘지 않는 스님을 대상으로 한다. 단 병역을 필한 스님의 경우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 38세까지 응시연령을 보장한다.

사미 · 사미니 급감 추세

군승요원 수급은 사미 · 사미니계 수계자 현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진우)이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한 제62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에서는 남행자 10명, 여행자 16명 등 총 26명이 이수했다. 1990년대에는 4~500명 가량이 수계를 받은 것에 비해 현격이 감소했다.

조계종이 통합 행자교육원을 운영한 1991년부터 집계된 사미 · 사미니 수계자 현황에 따르면 1999년 532명을 정점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해마다 줄고 있다. 사미 · 사미니계 수계자는 2002년 406명, 2006년 334명, 2008년 286명, 2010년 287명, 2013년 236명, 2015년 204명을 기록한 뒤 2016년부터 100명대로 떨어졌다. 2016년 157명, 2017년 151명, 2020년 131명 등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법에 나서고 싶은 비구니 스님들의 원력이 있지만, 절대적인 감소 속에 비구니 군승 파송 또한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출가자는 1993년 228명, 2002년 169명, 2008년 118명, 2017년 57명 등으로 더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가자 고령화 문제 또한 군승 파송에 영향을 미친다. 조계종 교육원이 집계한 연도별 사미 · 사미니 수계자 출가 연령대 현황을 보면 2000년대 이전에는 20대, 2000년대에는 30대, 2010년 이후에는 40대가 주를 이룬다.

세납 29세인 선오 유주영 군승법사는 "9년 전 출가 때만해도 어린 스님들이 많았는데 점점 젊은 스님들이 줄어드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며 "요즘 세대들은 밖에서 할 것이 많다고 한다. 급격한 사회 변화가 출가자 감소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가톨릭 방식 의무할당 현실적 어려움

불교와 마찬가지로 최근 수년간 신규 사제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톨릭은 각 교구의 신부 10%를 의무적으로 군종요원으로 선발해 군신부로 임관시킨다. 하지만 가톨릭계 또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 가톨릭 신규사제 수도 2017년 185명에서 2021년 33년 만의 최저치인 111명을 기록했다. 군승요원 수급을 위한 의무할당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미 사중에서 필요한 젊은 스님들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 여기에 군포교 현장에서의 역량 저하도 주요 문제 중 하나다.

정행 이익수 군승법사는 "목사들은 군목사로 가기 전 3년간 교육을 거친다. 신부들은 군대를 갔다 온 이들로 구성된다"며 "현장에서 군승 개개인의 역량이 불교를 대변한다. 출가와 함께 곧바로 군종장교로 복무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장기복무 확대, 전력 유지 대안될까?

신규 군종장교 정원은 군 종교인구에 비례하며, 여기에 전역자들을 기반으로 매년 파송인원이 결정된다. 전역자들이 다수 발생하면 파송 요구인원도 늘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장기복무 비중을 늘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이미 불교계는 1993년 국방부와 종교별 신자수 배정원칙 하에 불교군종장교 정원을 늘렸으며 1994년 종단 개혁 후에는 동국대 불교대학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스님들이 군종장교로 임관할 수 있게 했다.

종단이 출가자 감소 속에서 군종장교 장기복무, 즉 진급 정원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 등도 기대해볼만 하다. 많은 군승법사들이 현재도 단기복무 후 재입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H군승법사는 "장기복무자가 늘면 순환구조가 연장될 뿐이고, 결국 수급난은 그대로다. 군종장교는 35세까지 입영연령 예외를 적용받지만, 군인사법에 따라 계급별 나이나 근속 정년이 정해져 있어 본인이 장기복무를 하고 싶어도 전역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서도 "젊은 세대 유입 감소라는 공통화두를 지닌 종교계가 정부와 군종장교 장기복무를 원하는 이들이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전개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예비출가 등 종단 장기플랜 마련

'찾아오는 불교' 에서 '찾아가는 불교' 로 시대적 요구가 변모하듯 출가 또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발심의 기회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힘써야 그에 수반하는 군승 수급난도 해결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3월 조계종 중앙종회서 출가특위(위원장 정범)가 발의한 종립학교 예비출가 신설안을 보면 만30세 이하 일반인이 종립대학에 예비출가자 전형으로 입학해 졸업한 뒤 출가하도록 한다. 수계 후에는 종단서 지정하는 군승 · 종무기관 등에서 3년 이상 복무토록 한다.

발심자에게 장학 및 해외연수 혜택 등을 부여해 학업 이수 후 출가, 스님들이 필요로 하는 각급 기관에서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다. 당시 종회에서는 파격적 출가제도 개편에 대한 거부감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 끝에 철회됐다.

종회의원 정범 스님은 "일종의 혜택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출가자를 키워내자는 의미였다"며 "이들이 활약하기까지 4~5년 가량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단기적인 수급방안과 장기적인 육성책 병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중앙승가대 학업연계 출가인 '유니출가' 의 경우 졸업 이후의 문제로 매년 2~3명의 스님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젊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승 수급 뿐만 아니라 출가자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파격적인 시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계사 · 봉은사 광제사 건립 위해 각각 1억원 쾌척

6월 23일, 아름다운동행에
"건립불사 원만회향 기대"





조계사(사진 왼쪽)와 봉은사(사진 오른쪽)가 잇달아 세종시 광제사 불사에 기금을 전달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주지 지현)와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가 세종 광제사 건립 불사에 각각 1억 원을 쾌척하고 원만한 불사 회향을 발원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신도들은 6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에 세종 광제사 건립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세종시에 곧 국회의사당이 들어서는 등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광제사가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조계사가 광제사 불사에 큰 역할을 해 줘 고맙다"고 주지 스님과 신도들을 격려했다.

주지 지현 스님은 "세종 광제사 건립 불사는 신도시를 무대로 포교에 나설 포교전진기지 건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계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서도 기금 3000만 원을 쾌척했다.

같은 날 봉은사도 광제사 불사를 위해 1억 원을 쾌척했다.

원행 스님은 "봉은사 사부대중의 관심과 동참으로 불사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이제 내부만 정돈하면 되는 상태"라면서 "어려운 시기에도 종단의 역점불사에 동참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권영세 장관 "남북관계 회복에 종교계 지원 절실"

6월 23일, 원행 스님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위해 협력" 약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종교계 차원에서 남북 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세 장관은 6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새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원행 스님은 먼저 코로나19 사태 전 남북 종교인들이 금강산 신계사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약속한 것들을 떠올렸다.

스님은 "당시 가톨릭은 평양 장충성당을, 유교는 개성 성균관을 복원하고 불교는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건립하기로 했다"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진척되지 않아 아쉽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권 장관은 "종교계가 추진하려던 사업이 진전되지 않아 정부로서도 아쉽다"면서 "새 정부는 기존 대북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발전시켜나가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강산은 불교계에서 의미 있는 지역이고 신계사도 복원한지 15주년을 맞았기에 이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교계가 힘써준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기대하며 조계종도 정부의 대북 사업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예방 자리에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월우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삼혜 스님, 사회부장 원경 스님, 사업부장 삼혜 스님, 민추본 사무총장 범종 스님 등이 배석했다.

임은호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NAVER daum

www.buddhism.or.kr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문의전화 02)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으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

지역 · 분야별 조직화로 활동 저변 넓힌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창립 의미와 향후 과제

종단 포교단체 중 처음으로
교구별 포교조직 구성 눈길
10~20명 단위 세부팀 확대
종단 · 교구본사 유기적 관계
여성권익 · 사회 기여 체계화



조계종은 6월 23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전국여성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새롭게 창립하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궈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종단과 전국 교구본사 전폭적인 지원을 토대로, 교구별 · 지역별 세분화된 신도조직을 구성해 나가는 등 여성불자 네트워크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종단을 대표하는 포교단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6월 23일 창립한 전국여성불자회는 조계종 여성신도 조직으로, 각 지역과 직능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회원으로 한다. 특히 종단 포교단체 중에서도 처음으로 전국 교구별 포교조직을 구성,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지도법사단으로 흡수하는 등 지역조직 활성화를 위한 확고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교구본사주지협의회를 대표해 위촉장을 수여받은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을 비롯한 모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조직의 창립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포교를 위해서는 교구와 지역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고 종단 포교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교구별 포교조직을 구성키로 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스님은 특히 "그동안 여성불자들은 한국불교 포교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지원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전한 데 이어,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미 전국여성불자회는 설립추진위원회 단계부터 교구본사별 각 2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 교구별 · 분야별 30여명의 추진위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교구별 위원회는 10~20명을 기본단위로 팀을 구성해 점차 세부적인 지역조직 형태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교구별 대표 2인이 전국여성불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속적이고 평등한 소통구조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창립에 앞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조직구성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여성불자들의 역할에 관한 여러 제언들이 이어진 만큼, 포교원과 전국여성불자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반영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 나갈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단체인 만큼 종단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종단 외호기구로서의 활동도 예상된다. 백만원력결집불사를 비롯한 종단 목적불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불교왜곡 · 편향 등에 대해서는 대정부 · 대사회적 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 외호에 나선다.

여성불자들의 권익 향상과 여성불자 인재 양성도 중요한 과제다. 전국여성불자회는 1180명의 발기인을 시작으로 전국 여성불자들을 발굴하며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별 여성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대사회활동 및 교육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불교여성아카데미 등 상설교육기관의 설립도 점진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불자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활동역량 및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런 가운데 현재 활동 중인 불교여성단체들과의 관계정립 및 연대활동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불교여성개발원의 경우, 조계종 포교단체로 출범해 운영되다가 올해 포교단체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 불교여성개발원은 "앞으로 조계종 뿐 아니라 다른 종단을 아우르는 범불교단체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공표했지만, 상당수의 회원들이 조계종 신도라는 점에서 향후 화합과 연대를 위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이 구체화된 것은 지난 2월 23일 경, 조계종이 설립취지문을 발표하고 1080발기인 모집을 시작하면서다. 이어 4월 12일 범해 스님을 위원장, 포교부장 선업 스님과 김의정 · 이연화 · 김혜성 여성불자를 부위원장으로 한 설립추진위원회가 창립됐고 수차례 회의와 설립 방향성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거쳐 이날 공식 창립했다. 창립 발기인은 1180명이다.

"여성불자 역량 응집, 이제 시작"



김의정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초대회장

김의정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초대회장〈사진〉은 "오늘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은 한국불교 1700년사에서 새로운 불교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각자 처한 자리에서 묵묵히 정진해 온 여성불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소임을 맡게 돼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의정 초대회장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2005년부터 7년간 제23대 · 24대 중앙신도회장으로서 전법회관 건립 등 신도역량 결집에 큰 역할을 했다.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차문화 창달에 나서는 한편 조계사 신도회장으로 신도들의 활동을 묵묵히 지원해왔다.

김 회장은 이어 "전국 사찰과 지역에 여성불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기와도, 연등도, 좌복도, 공양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불교에서 여성불자들이 해온 이러한 역할에서 이제 마음을 모아 세상을 품고, 다양한 방면의 사회적 활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에는 1180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오늘 회원들의 참여가 씨앗이 되고 들불처럼 번져나가 세상의 화합과 상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됐으면 한다"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기대하며 모든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세계 비구니, 소통 · 연대로 발전과제 공유

전국비구니회, 6월 22일 좌담회

전국비구니회가 베트남, 티베트 등 세계 비구니 승가를 이끄는 비구니 스님들과 만나 세계 비구니승단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긴밀한 소통과 연대를 약속했다. 특히 출가자 감소 문제는 물론, 성평등 문제와 승단의 계승, 승단 내 세대간 격차 등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비구니승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돼 주목된다.

전국비구니회는 6월 22일 전국비구니회관 2층 회의실에서 '국제화시대 비구니 승가를 위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는 지난 6월 17~18일 한마음선원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세계 비구니승가, 현재와 미래' 세계 비구니 승가의 지도자들이 참석차 방한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좌담회는 조은수 조은수 샤카디타 코리아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샤카디카 코리아 공동대표)과 미국 샌디에고대 종교학교 교수(前 샤카디다 인터내셔널 회장), 호치민시 베트남불교대학 불교영어학과장 류팝 스님(순나타 비구니사원 주지)가 참석했다. 또 운영위원장 상덕, 수석부회장 현정, 동국대 정각원장 진명, 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선재,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과 비구니회 소임자 스님들, 독일 튀빙겐대학의 모니카 슈림프 교수도 함께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좌담회 시작에 앞서 "한국비구니승단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고민은 출가자 감소 문제"라며 "오늘 좌담회에서 이 문제를 공유하고 각국 비구니 승단과 연대하는 가운데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쏘모 스님은 세계 비구니승단의 해결과제로 비구니 구족계를 비롯한 남녀 불평등 문제와 승단 내 세대간 격차 문제를 꼽았다. 쏘모 스님은 "최근 열린 한마음선원 학술대회에서 각국 비구니승단의 가장 업데이트된 현황을 토대로 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샤카디타와 함께 일해 온 지난 35년 동안, 모든 나라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상황이 모든 분야에서 발전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아직 갈길이 멀다. 여전히 어떤 국가에서는 비구니스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며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남녀 불평등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팝 스님은 베트남 비구니계 수계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스님에 따르면 베트남 내에서 구족계 수계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며, 때문에 팔계를 받은 사미니스님들은 대부분 비구스님들의 사찰에 머물며 비구스님의 생활을 돕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이 스님들은 비구스님들이 남긴 음식물을 먹는데, 재가자들이 바치는 공양물은 승가를 위한 것이지만 구족계를 수계하지 않은 비구니 스님들은 승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스님들은 전세계 사미니 스님들이 각 비구니승단의 연대를 토대로, 국가의 한계를 넘어 세계 비구니승단에서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국제화시대 비구니 승가' 주제
본각 · 쏘모 · 류팝 스님 등 참석
비구니승단 해결과제 중심 논의
2023년 샤카디타대회 기대감도

본각 스님은 "출가자 감소 문제를 고민하다보니 다른 국가의 비구니승단과 연대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국과 베트남, 티베트 등에서 공부하는 사미니 스님들이 다른 나라의 비구니승단에서 그 나라의 불교를 배우는 계기를 만든다면, 세계 비구니스가 발전을 위한 큰 흐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2023년 전국비구니회와 샤카디타 한국지부가 주관하는 샤카디타 한국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다. 본각 스님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세계불교와 한국불교가 교류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전국비구니회는 6월 22일 전국비구니회관 2층 회의실에서 '국제화시대 비구니 승가를 위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부처님 제자입니다”

개화산 약사사, 6월 19일 어린이 · 청소년 수계법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다섯 가지 계를 우리 약사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계를 맞이해 스스로 마음속에 작동해야 합니다.”

서울 개화산 약사사(주지 범해 · 조계종 포교원장)의 어린이 · 청소년 법회 학생들이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났다.

약사사는 6월 19일 경내 대웅전에서 어린이 · 청소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약사사 주지 범해 스님이 계사로, 어린이청소년법회 지도법사 윤성 스님이 인례를 맡아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40여 명의 어린이 · 청소년들은 부처님이 설하신 오계를 지키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불제자가 됐다.

장궤합장을 하고 스스로 참회한 40여 명의 어린이 · 청소년들은 계사 범해 스님에게 연비를 받았다. 연비의식은 향불로 시작했으나 아이들이 뜨거운 것에 놀라 당황해하자 삼보륜 도장으로 대체했다. 범해 스님은 일일이 도장을 찍으며 연비 의식을 진행했고, 윤성 스님은 수계자들에게 꽃잎을 뿌려주며 불제자로 거듭남을 축하했다.

범해 스님 계사로 40명 수계
“불제자로 거듭 나겠다” 다짐
매주 일요일마다 법회 봉행해
계층포교 원력이 이뤄낸 성과

범해 스님은 수계법문을 통해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해야 할 일들”이라며 “이제 우리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은 수계증을 아침저녁마다 들여다보며 ‘내가 오늘 할 일을 잘했는가, 부처님 제자로 잘 살았는가’ 하고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계를 받았기에 여러분들은 불제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불제자가 된 여러분들을 정말 축하한다”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 개화산 약사사는 6월 19일 대웅전에서 어린이 청소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수계법회 직후 기념촬영 모습.


개화산 약사사 주지 범해 스님이 6월 19일 열린 어린이청소년 수계법회에서 연비 직후 울고 있는 김도진 군을 달래고 있다. 이날 법회를 통해 40여 명의 어린이 청소년 불자가 탄생했다.

개화산 약사사의 어린이 · 청소년 수계법회는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약사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경내 삼성각 어린이 법당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또한 과학 · 영어 · 야외법회 등 각 주마다 새로운 테마를 정해서 법회를 운영하는 것도 강점이다.

수계를 받고 불제자가 된 어린이, 청소년들도 감회가 남달랐다. 향으로 연비를 받고 닭똥같은 눈물을 흘린 막내 김도진(7) 군은 “연비를 받을 때 어땠냐”는 질문에 “아팠어요”라고 짧게 답했지만 이내 “수계증을 받아 기분이 좋아요”라고 의젓함을 보였다.

송다정(화곡초 2학년) 양은 “오늘 ‘송하’ 라는 법명을 받았는데 주지 스님께서 수계증을 주시면서 설명해줘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다”며 “소나무처럼 여여하게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법명의 의미처럼 오계를 실천하며 불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중단’ 이젠 노인복지관서도 등록

임종과정 환자가 의료 중단 결정
전국 568곳 전문상담 · 등록 가능

보건복지부가 6월 15일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국 30개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받지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를 의미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향후 자신이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 미리 의사를 밝혀놓는 것으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 가능하다. 내용은 언제든 변경 및 철회 가능하다.

의향서 등록 기관은 기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 민간단체, 공공기관을 비롯해 이번에 노인복지관까지 확대돼 전국에 모두 568곳으로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향서 등록 건수가 전체 작성자의 77.9%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등록기관 확대는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향서를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지관들은 상담사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를 상담사로 두고 상담과 함께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도 기관에 직접 방문, 교육을 받고 업무 게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복지관 상근 직원 2명을 상담사로 등록하고 7월부터 상담 및 접수에 나선다.

정관 스님은 “우리 복지관은 2007년부터 삶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남은 생을 알차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죽음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면서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존엄한 죽음, 맞이하는 죽음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임은호 기자





지난4월 입적한 지정 스님의 유지에 따라 동국대에 장학기금이 전달됐다. 사진 왼쪽부터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이대원성 부산 연꽃모임 회장, 지정 스님 증손상좌 진석 스님.

어느 노비구니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

4월 입적한 지정 스님, 동국대에 장학기금 전달

이대원성 회장 전달해

평생을 수행정진하며 모은 보시금 중 일부를 “동국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회향하고 입적한 비구니 스님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故 지정 스님. 스님은 덕숭총림 수덕사 견성암을 중창하고 김해 토굴에서 수행정진하다가 지난 4월 입적했다.

지정 스님의 증손상좌 진석 스님과 이대원성 부산 연꽃모임 회장은 6월 21일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을 만나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국대에 전달된 장학기금은 지정 스님이 생전 조카로부터 받은 용채들을 모은 것이다. 지정 스님과 40년 동안 인연을 맺어온 이대원성 회장은 “입적 2개월 전 제게 연락해 주변을 정리할 뜻을 보이셨고, 동국대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셨다”며 “불교 공부를 많이 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스님이 되고 싶다면서 내생에 동국대에서 공부하겠다고 서원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지정 스님의 유지와 서원을 따르기 위해 장학기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평생 수행정진하신 지정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불교 인재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지하철 포교 게시판, ‘리뉴얼’ 합니다

지하철 풍경소리, 게시판 교체 불사 시작

지하철 역사 내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던 지하철 풍경소리가 포교게시판 교체 불사에 나선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 목종, 이하 지하철 풍경소리)는 6월 20일 불교환경연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하철 포교게시판 교체 불사 계획을 발표했다.

지하철 풍경소리는 향후 2년 동안 전국 지하철과 철도 승강장에 설치한 포교게시판을 전면 교체하는 불사를 진행한다. 새로운 게시판은 기존보다 확대된 450cm×760cm 크기로, 디자인은 기존 짧은 경구와 그림의 형태를 유지키로 했다. 그림은 정병례 새김아티스트와 박준수 동양화가가 후원했다.

게시판 교체는 부산 등 노후가 심각한 지하철 역사를 우선으로 이뤄지며, 서울 · 인천 · 광주 등 전국 780개 역 2547개 게시판이 대상이다. 교체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풍경소리 대표 목종 스님은 “지난 20년간 운영된 포교게시판은 포교위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내용물을 교체하며 직접 관리해 운영돼 왔다”면서 “하지만 게시판이 너무 노후되고 오염돼 전부 교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목종 스님은 게시판 교체 불사에 대중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스님은 “포교게시판 1구좌 후원금을 5만 원으로 정했다. 게시판 안에 후원자 명의를 부착해 그 공덕을 기릴 것”이라며 “후원자가 원하는 지하철 역사에 게시판을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은석초 전교생, 우크라이나 난민에 고사리손 나눔

6월 22일, 아름다운동행에
십시일반 모연금 160만 원

“전쟁으로 인해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웃나라로 피난을 다니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계종립 은석초등학교(교장 양형진) 학생들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고사리손으로 모은 모연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한다.



은석초 학생들은 6월 22일 교내에서 전달식을 갖고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에 16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모연금은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4월 초부터 일주일간 전교생 673명이 마음을 모아 십시일반한 것 중 일부다.

학생들을 대표해 모연금을 전달한 최아인 전교어린이회장은 “뉴스에서 난민들 사이에 우리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전쟁을 피해 다른 나라로 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면서 “하루빨리 평화가 도래해 세계 모든 곳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세계 명상 석학 한자리 韓명상 세계화 '초석'

동국대, 6월 17~19일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개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인 참선을 기반한 명상에 대한 연구와 각종 응용 프로그램, 산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박람회가 열렸다. 한국불교 명상의 세계화에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6월 17~19일 동국대 일원에서 '2022 명상, 새로운 세계'를 주제로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명상엑스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대중을 찾았다.

6월 17일 교내 중강당에서 열린 개막식은 명상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세계가 명상을 주목하고 있다"며 "불교의 수행적 관점으로 엑스포가 치유의 시간을 선사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국대의 명상엑스포가 명상의 위대성을 세계에 알리고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엑스포를 후원한 박보균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엑스포가 명상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선두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명상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명상 가치 재조명한 컨퍼런스

명상엑스포의 백미는 명상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던 컨퍼런스였다. 3일 동안 열린 컨퍼런스는 동국대와 하버드 의대 IMP(Institute for Meditation and Psychotherapy)의 공동주최로 진행돼 어느 때보다 수준 높은 강연이 이뤄졌다. 예년과 달리 참가자들이 외국 석학과 온라인으로 쌍방향 실습과 체험을 함으로써 현대 명상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현장에서 바로 습득할 수 있었던 것도 특별했다.



VR명상기기가 소개된 명상산업관 전경.

'명상과 치유' 주제로 열린 첫날 콘퍼런스에는 하버드 의과대학 마음챙김 및 연민센터 소장인 제브 슈만 올리비에 교수가 '웰빙을 위한 마음챙김 훈련'을, 내면가족체계(IFS) 프로그램을 개발한 리처드 슈워츠 교수가 '트라우마 치료'를 주제로 강연과 실습을 진행했다.

티모시 해리슨 에모리대학 CBCT 부국장은 '인지에 기반한 연민 훈련' 주제 강연에서 주의력 안정 및 정서적 인식 향상에 대한 훈련과 타인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성찰이 포함된 CBCT 명상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사회 신경과학자이며 세계적인 뇌과학자인 막스플랑크 사회신경과학 연구책임자 타니아 싱어는 '사회적 인지와 정서 기저의 신경체계에 미치는 명상효과'라는 주제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싱어 연구책임자는 마음과 공감, 자비를 시작으로 리소스 프로젝트, 코비소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명상과 과학' 주제로 열린 이틀째 컨퍼런스에는 이나 카잔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가 '심박변이도와 마음챙김'을, 사라 W. 라자르 교수가 '명상과 신경과학', 독일 DBT 전문가 크리스티안 스티글마이어가 '자해와 자살위기'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카잔 교수는 "호흡 등 비자발적 행동을 제어하도록 신체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바이오피드백과 마음챙김을 결합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종우 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박문호 뇌과학전문가, 이강욱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는 명상을 신경과학과 한의학, 물리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명상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명상과 미래사회' 주제로 열린 마지막 날 콘퍼런스에는 중독 관련 마음챙김 훈련의 국제적 전문가인 저드슨 브루어 브라운 의과대학 교수의 '명상과 심리치료' 강연을 비롯해 은산 스님과 이유섭 동국대 영상대학원 외래교수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명상교육 및 체험학습' 강연이 진행됐다. 체험학습에서는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서광 스님의 육도윤회를 현대적으로 명상화한 'RHS명상 프로그램'과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해 명상의 새로운 트렌드 구축 가능성과 온라인 플랫폼 모델을 선보였다.

영상콘텐츠와 명상 프로그램 만남

이번 엑스포에서는 다양한 명상 체험들이 영상콘텐츠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영상 체험 프로그램은 간화선, 위빠사나 등 전통명상과 긍정적인 삶을 위한 응용명상, 명상이 필요한 특정 대상군을 직접 찾아가 지도해주는 행복배달명상 등으로 구성됐다.

전통명상은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 영상으로 제작됐으며, 유튜브나 메타버스 전시관 등에 업로드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간화선과 행복', 불교학술원 역경원장 혜거 스님이 '간화선을 통한 마음치유', 보리수선원 붓다락키타 스님이 '위사빠나의 지혜증진', 광보사 자황 스님이 '염불선과 행복'이란 주제의 영상으로 명상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명상의 대중화를 유도하기 위한 응용명상은 총 14편이 제작됐으며, 대학생·중년남성·감정노동자·헬스케어 노동자·임산부 등 세대·직업별 맞춤 명상 솔루션을 제공해 주목을 받았다.

하버드 의대와 공동 컨퍼런스 열어
치유·과학 주제 연구 결과 소개해
다양한 응용명상 프로그램들 '눈길'
급부상한 명상산업 현황도 '한눈에'

'평안한 마음이 건네는 소리를 들어봐요, 진정성 음악과 명상'이란 주제로 이뤄진 응용명상 프로그램에는 배우 배종옥 씨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몸이 긴장했을 때와 이완했을 때 우리 몸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 체험했다. 배 씨는 "명상과 음악이 결합했을 때 몸이 이완된다는 자료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체험해보니 훨씬 효과적이었다"며 "눈을 뜨고 나니 숙면한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정서적 불안을 명상으로 해소하고 명상 소외인들에게 영상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행복배달명상은 세대별 명상 4편, 직업별 명상 5편 등 총 9편이 제작·공개됐다.

명상산업 미래 비전 제시

급부상하고 있는 명상산업의 가치를 확인한 점도 이번 명상엑스포의 성과다. 명상기기를 활용한 오프라인 체험장에는 오큘러스 명상 애플리케이션 및 명상기기 뮤즈(Muse) 등을 통해 참자들이 다양한 명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동국대가 최초로 명상 전문 온라인 아카이빙 도서관을 구축해 명상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한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명상 도서관은 키워드 입력 및 추천 키워드 선택을 통해 편리한 자료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문화 행사로 치러진 국제명상음악공모전 국내 부문 대상작은 심성용 음악치료사의 'Insight'가 선정됐다. 해외 부문 대상은 후이 완 휴고 왕의 'keep mindful in the city life'가 차지했다. 108초 명상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서는 최병민 씨의 '누구나 오늘부터 명상' 이 대상작으로 뽑혔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이번 서울국제명상엑스포를 기반으로 명상의 일상화와 대중화를 확산시키겠다. 또한 명상을 산업과 접목할 수 있도록 보다 알차고 다양한 콘텐츠로 명상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는 6월 17~19일 동국대 일원에서 '2022 명상, 새로운 세계'를 주제로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를 개최했다. 사진은 명상 컨퍼런스에서 강연자로 참여한 이강욱 강원대 의대교수가 명상관련 연구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서울국제명상엑스포에서 진행된 명상과 산업 대담 '깨어있는 사람들의 토크'의 진행 모습.


엑스포 참가자들이 교내 법학관 좌선실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현충시설 통도사, 제1회 호국영령위령재 성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시설지정 후 첫 호국영령위령대재
용화전 봉안한 미륵불 점안식도
6·25 전쟁 당시 '제 31 육군병원'
현충 시설 지정 기념 산사음악회

현충시설로 지정된 통도사(주지 현문)가 6월 18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몰장병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재를 봉행했다.

통도사는 6·25 한국전쟁 당시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정양원)으로 국난을 맞은 국가와 국군장병을 위해 활동했다. 통도사는 지난 2021년 11월 1일 현충시설로 지정됐으며, 호국불교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현충시설 지정 후 처음으로 이번 호국영령위령재를 봉행했다.

통도사는 먼저 용화전에 봉안된 미륵부처님 점안의식을 봉행했다. 용화전은 통도사가 제31육군병원으로 활용됐음을 기록한 연기문이 발견된 전각이다. 점안의식을 통해 사부대중은 질병과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했다.

이어진 호국영령 위령재 1부는 통도사 염불원에서 주관해 염불원장 영산 스님과 교수사 혜일 스님 등 염불원 스님들이 전통의식으로 위령재를 봉행했다. 2부는 추모법회로 이어졌다. 추모법회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 주지 현문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삼혜 스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진복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신범철 국방부 차관, 임성현 부산지방보훈처장을 비롯해 유가족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추모법회는 △명종5타 △개회 △삼귀의례 △국민의례 △애국가 및 묵념 △반야심경 △경과보고 △헌향 △헌다 △헌화 △봉행사 △추모사 △청법가 △법어 △추모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통도사는 이후 삼성반월교 옆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현충시설 지정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우담바라 합창단, 양산 윈드오케스트라와 왕기헌 소프라노, 양승엽 테너, 원장형 명인의 대금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종정 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 힘이 없어 침략당하고 유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방을 튼튼히 해서 호국영령의 값진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부흥을 잘 지켜내야 한다"며 "우리 한국불교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는 일에 목숨 바쳐 노력했던 호국애민의 전통을 갖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호국영령들의 공덕을 찬탄하고 그 넋을 위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바람을 간절하게 모으는 법석"이라고 설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이곳 통도사는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이 설치되어 수많은 부상병을 치료하는 시설로 사용되었다. 불상을 모신 불단은 환자들의 병상이 되었고, 귀한 경책은 군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로 쓰였다. 참혹한 전쟁의 현실 속에서 1300년 유구한 역사의 통도사도 참담한 아픔을 함께하며 묵묵히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며 "전쟁 상황에서 산화한 모든 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일은 다시 통도사의 소임으로 남아 있다. 이번 호국영령위령재는 통도사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전쟁 중 산화한 무명의 용사를 위로하고, 이 땅에 희생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발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발원한다"고 당부했다.


통도사가 6월 18일 특설무대에서 전몰장병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재를 봉행했다.

통도사는 구전을 통해 6·25전쟁 당시 육군병원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실질적인 근거가 없던 상황에서, 2019년 9월 25일 용화전에 모셔져 있는 미륵불좌상 복장 조사 과정에서 구하 스님 친필의 '용화전 미륵존불갱 조성연기'가 발견됐다. 조성연기문에는 6·25전쟁 당시 제31육군병원 분원으로 통도사가 사용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울러 통도사 주변 마을주민과 실제 전쟁에 참석했던 증언자들의 증언을 모았고 2020년 8월 31일 제31육군병원 관련 입증 자료를 수집하여 요약집을 제작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무사령부 등 분원 관련 조사요청 공문과 요약집을 발송했다.

2021년 1월 18일 국방부에서 6·25전쟁 기간 통도사가 제31육군병원 분원으로 사용되었음이 사실로 확인했고, 향후 2025년 발간 예정인 6·25 전쟁사 책자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회신했다. 통도사는 이후 자료를 모아 울산보훈지청에 현충시설 지정을 요청했으며 2021년 5월과 9월 두 번의 현장실사 후 2021년 11월 1일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부산불교聯, 소원등 달기 유료체험

수익금으로 자립준비
청소년에 물품 후원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가 6월 20일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부산연등축제 자비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2566 부산연등축제' 행사 일환으로 17일간(4월 22일~5월 8일) 소원등 달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소원등 달기 유료체험 수익금을 모아 청소년 지원에 앞장섰으며 1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전달했다. 가전제품은 제습기 12대, 무선청소기 6대, 공기청소기 12대, 선풍기 12대이다. 지원한 가전제품은 부산청소년지원센터 생활관 입소 및 주거지원 청소년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청소년 자립지원관은 여성가족부와 부산시에서 공동출자하여 신라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이다. 일정 기간 청소년복지시설 보호 이후에 가정 및 사회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재

6월 19일, 광명사 지관전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6월 19일 지관전에서 '제15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재'를 봉행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된 합동대재는 독립유공자 1만7285명의 위패를 안치하고 독립군 무명용사 195만 명의 독립운동정신과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민국독립유공자추모기념사업회(이하 추모기념사업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과 부산불교연합회 고문 정각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정광사 주지 화산 스님, 송기인 신부, 이수일 부산행정자치국장, 이동호 부산의회 부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 임성현 부산지방보훈청장, 백종헌 국회의원, 박성종(사)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추모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재동 광명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추모대재 1부에서는 독립유공장 합동



천도의식으로 시작해 시조창 및 대금연주, 살풀이 춤, 육법공양 등 천도의식이 봉행됐다.

2부에서는 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의 진혼곡 연주와 △개회선원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대회사 △추모사 △격려사 △시낭송 △축문 △추모합창 △헌화 및 헌향 △합동분양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춘광 스님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1945년 광복을 맞아 일제 지배에서 벗어난 지 77년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나라로 우뚝 섰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는 대한민국은 21세기 핵심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며 "이러한 위대한 업적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켜낸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에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추모기념사업회 박성종 이사장은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교과서 왜곡으로 자라는 세대에까지도 침략 야욕의 씨를 뿌리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허황된 만행을 저지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님들의 고귀한 애국정신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후손들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완성과 민족의 슬기와 화합을 이루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모기념사업회는 2005년 8월 10일 창립해 2008년 5월 20일 독립유공자 정신계승, 선양, 연구 및 추모대제를 주관하는 독립유공자 단체로, 선열의 유훈을 계승하여 애국애족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바른 시민사회 운동에 나서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시민 위한 '산사 힐링음악회'


가수 알리


김동규 바리톤


김영임 국악명창

7월 3일, 성보박물관 앞마당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7월 3일 오후 7시 신축 이전한 성보박물관 앞마당에서 '범어사 산사 힐링음악회'를 개최한다.

범어사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일상회복의 행복을 선사하고 가족들과 염천의 무더위를 산사에서 식히는 휴식을 선물한다. 음악회에는 가수 알리, 김영임 국악명창, 김동규 바리톤, JGL아카펠라팀, 세종국악단이 1시간 30분 동안 공연할 예정이며 행사 이후 KNN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환응 스님은 "신축 이전 이후 코로나로 인해 불자와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가 없었다. 이번 음악회는 시민들에게 성보를 더욱 친숙하게 소개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성보박물관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부처님의 진리가 담긴 성보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국내 성보박물관 내 가장 많은 전적을 소장한 박물관이다. 그 가운데 국보로 지정된 〈삼국유사〉 권4, 5를 직접 관람할 수 있으며, 상설전시관에서는 범어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범어사 사천왕도 등 문화재와 다채로운 불화를 전시하고 있다. 2층 기획전시관에는 범어사의 다양한 공예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 현재 박물관 내 중정에서는 '범어사 대웅전 영산회상도'에서 발견된 사리를 친견할 수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민추본 부산, 제21차 평화통일 특강

6월 16일, 홍법사 교육관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정관)가 6월 16일 부산 홍법사 교육관에서 '제21차 정기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는 최근 북한의 사찰과 평양을 소개하는 '달라진 평양의 모습과 북녘 불교'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뉴스로 로창현 기자가 강연을 담당했다. 로창현 기자는 2018년 4차례에 걸쳐 북한을 취재했다. 로창현 기자는 북한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북한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로창현 기자는 저서 〈평양여자 서울남자 길을 묻다(정음서원, 2020)〉를 출판한 바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5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7**월 **24**일 일요일 오후 3시 ~ 5시
- **장 소** :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
- **三師 七證師**
  전계대화상 범석수불 대율사 (전,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갈마아사리 관허수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장)
  교수아사리 선응지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 계단위원 및 교수사)
  존증아사리 심산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존증아사리 원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존증아사리 혜성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만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 **수계동참금** : 3만원
- **복 장** : 상의(흰색), 하의(편한바지)
- **문 의** : 사무국 **051)501-7554**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월정사, '세계 청소년 명상 페스티벌' 대면 개최

8월 2~4일 오대산 일원서 진행…'MeMe' 주제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사단법인 문수청소년회(이사장 해공)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월정사, 자연명상마을, 박물관 등 오대산 일원에서 '세계 청소년 명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MeMe(Meditation for Mindful Teens)'를 주제로 한 이번 페스티벌에는 8월 12일 세계청소년의날을 맞아 국내외 청소년 300여 명이 참여한다. 월정사 측은 행사기간 중 연인원 1만5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청소년 명상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비대면 병행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대외 활동을 중단했던 청소년에게 심리적 위로와 안정, 자아실현을 위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2세계청소년명상페스티벌은 지난해 열린 '강원도세계청소년명상주간'을 기반으로 올해는 국제행사로 준비되고 있다.

국내외 청소년 300여 명 참가
연 참가인원 1만 5000명 예상
다양한 명상 · 강연 진행 눈길

특히 청소년들이 가볍게 체험할 수 있는 명상프로그램으로 전통적인 좌선명상을 포함하여 차(茶)명상, 음식명상, 걷기명상, 요가명상 등 다양한 명상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강연프로그램으로는 진종오 올림픽사격금메달리스트 등 스포츠스타를 초대해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의 집중과 몰입의 경험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를 초대하여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명상, 자존감과 리더십 향상 등에 대해 강연을 듣는 시간도 열린다.


2021년 열린 명상 페스티벌 발표자.

각종 명상체험부스 운영, 물놀이 한마당, 국내 유명 뮤지션들이 초대되는 축하콘서트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전국의 중 · 고생에 해당하는 14-19세의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bit.ly/memefe2022)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행사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문수청소년회 상임이사 월엄 스님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방안으로 명상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명상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 자체가 명상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다"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명상의 경험을 전해줄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더욱 몰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청소년 명상 페스티벌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명상 경험을 통해 '몰입하는 힘'을 자연스럽게 개발하고, '리더십'을 갖추는 데 필요한 공감력과 회복탄력성, 통찰력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강연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박 3일간의 청소년 캠프다.

(사)한국불교조계종 수륙천도 영산대재

6월 17일 밀양 삼봉사서… 제36차 월례회의도 개최


한국불교조계종은 6월 17일 밀양 삼봉사에서 수륙천도 영산대재를 개최했다.

한국불교조계종 밀양 삼봉사(총무원장 녹원)는 6월 17일 밀양 삼봉사 대웅전에서 세계인류평화 국태민안 기원 수륙천도 영산대재 및 제36차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신해사 회주 무공 스님, 삼봉사 회주 녹원 스님, 약사포교원 각성 스님, 환국선원 도일 스님, 금룡사 금화 스님, 사천왕사 대풍 스님, 반월사 원선 스님, 해원사 여명 스님, 지장암 정공 스님, 쌍봉암 진여 스님, 부국선원 부자 스님, 성불사 해봉 스님 외 한불종 종단 스님, 한불종 윤기순 법인대표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윤기순 법인대표의 사회로 명종,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경과보고, 인사말씀(무공 스님), 봉행사(총무원장 녹원 스님), 수륙영산대재(영봉, 해진 스님 등 6명), 사홍서원, 공지사항, 폐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신해사 회주 무공 스님은 "우리 모두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과 증오심이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전쟁의 참화가 재현되고 있다"면서 "우리 불자들은 마음의 복전을 일구어 지혜와 덕화를 호지하여 다시 희망이 꽃피고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일상으로 복귀하자"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동국대 WISE캠퍼스 완전 대면 법회 재개

덕문 스님 자비 주제 설법

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이 2년 6개월 만에 교직원 법회를 완전 대면 법회로 봉행했다.

6월 16일 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에서 열린 교직원 종강법회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2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완전 대면 법회로 진행됐다.

법상에 오른 덕문 스님〈사진〉은 '코로나 시대에 불자의 자세, 자비사상'을 법제로 법문을 설했다.

덕문 스님은 "코로나 시대에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증가하는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주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불자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삶의 방향은 △행복 △건강 △경제적 자유 △부처님을 생각하는 염불 △베푸는 삶을 바탕으로 자비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설법했다. 신성민 기자



정토사 덕진 스님 첫 선서화전 열어

6월18일 울산 중구문화의전당 전시실서 개최…400명 운집
10여 년 전부터 서화 그려와
어린이·청소년 포교원력 담아
덕진 스님 "불교 대중화 일환"

울산 정토사(회주 덕진)는 6월 18일 울산시 중구문화의전당 1층 전시실에서 〈부처님과 내 마음 그리기〉 출판기념회 및 선화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 울산불교사암연합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 양산 통도사 자비원 이사 문수원 수암 스님, 진해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 태고종 울산종무원장 대활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벽암사 문성 스님, 이병호 울산신도회장, 전기택 정토사 신도회장, 박금주 총동문회장, 송철호 울산시장, 노옥희 교육감, 박대환 중구청장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덕진 스님의 첫 선서화전으로 식전공연(행원합창단의 우리는 좋은 인연과 정토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음성공양), 개회사, 테이프커팅, 국민의례, 내빈소개, 부채 및 발우 전달식, 격려사(사암연합회장 산옹 스님), 축사, 작품 평(수암 스님), 감사장 전달(허만욱 교수, 김주환 사장), 작가의 말(덕진 스님), 축하공연(어울림합창단, 테너 박준홍, 임찬우), 폐회 및 전시관람(작가설명),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선서화전에 참석한 스님들이 덕진 스님의 그림을 살펴보고 있다.

덕진 스님은 "50년간 수행 정진하며 대중이 불교를 쉽게 알고 신행하는 우리 말의식을 보급해 왔다. 10여 년 전부터는 민화와 한국화, 선서화를 익혀왔다"며 "전시된 선서화는 일반적인 그림 그리기가 아닌 수행 방편에서 탄생된 것으로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 공덕을 회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불교사암연합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은 격려사에서 "울산불교와 불자들을 위해 하루도 쉼 없이 정진하는 덕진 스님이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며 "그림 속 천진난만함에 불법승 삼보가 담겨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불법을 심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고 평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장애인 초청 마당 개최

코로나로 지친 장애인들 격려

전북 진안지역에서 자비나눔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쌍봉사가 지역 장애인들을 초정해 잔치 한마당을 열었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와 쌍봉사 섬김봉사단(단장 양행금), 만복의 소리 합창단(회장 김진옥)은 6월 17일 쌍봉사 앞마당에서 지역 장애인 130여 명을 초청해 '사랑 나눔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안군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 장애인들과 사회복지사, 쌍봉사 섬김봉사단, 만복의 소리 합창단 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서는 경기민요전수자 조명옥 명창의 국악공연과 쌍봉사 만복의소리 합창단과 장애인복지관 노래교실을 지도하고 있는 가수 서윤 씨의 공연, 각설이의 해학이 담긴 사회가 진행됐다.

또 쌍봉사 보경 스님과 불자들, 섬김봉사단, 만복의소리 봉사단이 정성 담긴 음식을 나누며 장애인들의 고충과 사회복지사의 노고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예전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해왔다. 그동안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오늘을 계기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 쌍봉사는 찾아가는 마을 밥상,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쌍봉사 보경 스님이 무대에서 함께 공연을 하고 있다.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티베트 대장경 '깐규르' 영어로 25% 번역

비영리 단체 84000 불전 번역
2009년 학자 등 50여 명 동참
완역후 온라인 출판…무료제공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대장경 번역을 위해 대토론회가 열렸던 2009년의 모습.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부탄 출신의 저명한 불교지도자인 종사르 켄체 린뽀체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 '84000 불전번역' 은 티베트 달력으로 음력 4월을 맞이하여 티베트 대장경 가운데 '깐규르' 의 25%를 모두 영어로 번역했다고 발표했다. 84000 불전번역 측은 이 모든 번역물들은 온라인을 통해 출판되며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온라인 국제불교 전문 매체인 '부디스트도어 글로벌' 은 이 대작불사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티베트 대장경은 14세기에 정리되었으며 경율론 삼장을 둘로 나누어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장과 율장을 '깐규르(佛說部)', 논장을 '땐규르(論疏部)' 라고 칭한다. 이중 깐규르는 10종 103책으로 7만 페이지에 900개 가까이 되는 경들이 수록되어 있다. 84000 불전번역 측은 "2009년에 티베트 불교 지도자들을 비롯해 학식이 높은 스님들과, 불교 원전 번역가, 학자, 후원자 등 50명 이상이 모여 티베트 대장경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이를 통해 범어 원전에서 기원하는 불전의 95%가 여전히 고전 티베트어로만 존재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23만 페이지가 넘는 원전이 있음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찬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며 역경사업이 시작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84000 불전번역 측은 최근 〈1만 8천송반야경〉을 영어로 모두 번역하였고, 티베트력 음력 보름인 6월 14일 공개했다. 이 공개에 따라 깐규르의 4분의 1이상이 모두 영어로 완역됐다. 84000 불전번역의 전무이사 황징루이는 부디스트도어 글로벌과의 인터뷰에서 "티베트 불교에선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이 모두 4월 보름 이루어 졌다고 하며 이를 '싸가다와 뒤첸' 라는 기념일로 삼아 특별히 여긴다. 이 날에 맞춰 티베트 불경 중 가장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1만 8천송반야경〉을 전세계에 공개하게 됨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황징루이는 "대작불사에, 특히 티베트 불교 모든 종단들과 불법 증장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후원자들의 지원에 힘입어 계속해서 역경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 고무된다" 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12년 전 설립된 이래로 역경 작업은 티베트 학자와 서구 학자를 비롯한 전 세계의 번역가 팀에 600만 달러(한화 약 77억 6천만 원) 이상을 지원했다. 현재 역경작업은 옥스퍼드, 비엔나,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같은 해외 명문대들을 비롯해 네팔의 랑중예쎄 인스티튜트와 인도의 전통강원 교육을 받은 스님들의 노력으로 지어지고 있다. 84000 불전번역 측은 "100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깐규르와 땐규르 모두 영어로 역경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5년간 깐규르를 완역하고, 이어서 땐규르의 번역에 집중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역경팀에 따르면 현재 티베트 대장경의 5% 미만이 현대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고도의 학식이 필요한 땐규르는 100년 가까이 새로운 영어 완역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84000 불전번역 측은 "모든 히말라야 문화권 불교전통의 근원이 되는 이 대장경에 대한 미래세대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 세계최대의 지혜의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 중 하나를 만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며 불법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日, 불교축제 '아오바 마츠리' 3년 만에 개최

6월 15일 탄생일 맞아 전국서 개최
진언종 종조 '코보대사' 탄생 기려



가마에 올라 꽃잎을 뿌리며 행렬을 장엄하는 참가자들. 사진출처=NHK 방송화면 캡쳐

세계문화 유산이자 일본불교의 성지인 고야산(高野山)에서 개산조이자 진언종의 종조인 코보대사(弘法大師)의 탄생을 기리는 축제 '아오바 마츠리' 가 3년 만에 개최됐다.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규모를 축소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순례객들로 성황리에 봉행됐다. 6월 14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NHK 뉴스' 등은 다시 개최된 불교 축제에 대해 보도했다.

코보대사 쿠카이(空海)의 탄생을 기리는 축제 '아오바 마츠리(青葉祭)' . 매년 탄생일인 6월 15일에 맞춰 일본 전국의 진언종 사찰에서 법요가 봉행된다. 특히 생전 근본도량을 주석하고 입적했던 고야산의 경우 산중 전체가 봉축분위기에 휩싸이며 큰 축제로 개최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과 감염방지 등을 이유로 지난 3년간 축제가 중지, 진언종 총본산인 콘고부지(金剛峰寺)에서 대중스님들만이 모여 법요를 봉행했다.

올해 방역완화와 함께 경기부흥 등을 위한 대책으로 다시 아오바 마츠리가 개최됐다. 6월 15일 오전 고야산 법당에서 100여 명의 대중스님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코보대사의 탄생을 기념하는 강탄제(降誕祭) 법요가 봉행됐다. 스님들은 범패와 염불로 코보대사의 은덕을 찬탄하고 동자 대사상에 관욕수를 부어 씻기는 관욕의식을 봉행했다.

이후 콘고부지를 기점으로 기념 행렬이 진행됐다. 축소 진행된 관계로 1.5km의 짧은 행진이었으나 고야산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장엄등을 비롯해 어린 코보대사로 분장한 어린이와 4명의 여학생들이 가마에 올라 꽃잎을 길에 뿌리며 축제의 아름다움을 더했다. 특히 연잎 모양으로 만든 종이꽃잎을 아오바 마츠리의 기념품으로 줍기 위해 참배객들이 길가에서 장사진을 이루는 등 예년과 같이 붐비는 모습을 보였다. 가마 뒤를 따라서 찬불가를 부르는 스님들의 행렬과, 코보대사의 은덕을 기리는 노래에 춤을 추는 지역주민의 행렬도 이어졌다.

나라에서 찾은 여성은 "코보대사님과 생일이 같기에, 언젠가 반드시 이날 고야산에 오고 싶었다" 면서 "다시 축제가 개최되어 너무나 기쁘다" 고 전했다. 오사카에서 방문한 부부는 동자대사상에 관욕수를 부으며 "대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며 손을 모았다. 고야산 대학에서 수학중이라는 한 스님은 "1200년 전에 태어나신 대사님 덕분에, 지금도 그 가르침을 생생하게 이어가며 배울 수 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겠다는 계기가 됐다" 라고 감상을 전했다. 이번 축제 행렬에는 약 800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축제를 기획한 마츠야마 유다이 고야산 봉찬회장은 "내년은 종조 코보대사의 탄생 1250주년을 맞는다. 다시금 부활한 열기를 살려 오는 아오바 마츠리를 맞이하고 싶다" 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로힝야족 난민들, 본국 송환 요청…왜?

범죄 · 생활고 각종 위험 처해
"고향 가겠다" 대규모 시위도


사진출처=pikiran-rakyat.com

미얀마 군부의 소탕 작전을 피해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신한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난민들이 본국으로 송환을 요청하고 나섰다.

6월 19일 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로힝야족 난민들은 이날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바자르 지역에 위치한 난민 캠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자"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세계 난민의 날' (6월 20일)을 앞두고 열린 이번 집회에는 최대 1만여 명의 로힝야족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로힝야족 난민 대표인 사예드 울라는 "우리는 더 이상 난민 캠프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 집으로 가겠다"며 "이곳은 지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부의 핍박을 피해 타국으로 피신한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을 요청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해당 매체에 따르면 로힝야족 난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생활고, 인신매매 등 각종 위험에 처해있다. 일부 여성들과 아이들은 성매매 위험에까지 노출돼 있어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 내전을 겪겠다는 게 로힝야족 난민들의 판단이다.

실제 약 100만 여 로힝야족 난민들이 거주 중인 콕스바자르 지역 난민 캠프는 움막 형태의 간이 주거 시설이 설치돼 있다. 화장실조차 구비돼 있지 않았고, 벌써 올해만 6차례 화재가 발생할 만큼 환경이 열악하다.

특히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로힝야족 남성들은 범죄까지 가담하는 실정이다. 합성 마약 '야바' 를 밀거래하거나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해 로힝야족 여성들과 아이들을 유흥업소 또는 농장 등에 팔아넘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근 미얀마 정부와 회담을 열고 "로힝야족의 본국 송환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올해 10월께 몬순 우기가 끝난 후 송환이 시작되길 바란다" 는 게 방글라데시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얀마 정부는 이렇다 할 확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홍콩 불교도, '국가 부도' 스리랑카에 나눔

BDCHK, 취약계층 자비나눔
2억 4700만 원 상당 생필품


사진출처=BDCHK 페이스북

홍콩 불자들이 국가 부도를 맞은 스리랑카의 취약계층을 위해 생필품을 기증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udhist door)는 6월 17일 "홍콩의 붓다다르마센터(The Buddha-Dharma Centre of Hong Kong, 이하 BDCHK)가 스리랑카 취약계층 가정에게 음식, 상비약 등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동을 벌였다" 며 "기금 중 일부는 스리랑카 교육기관에도 기부된다" 고 보도했다.

BDCHK 공식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들은 4월 27일부터 '스리랑카 구호기금' 모금을 시작해 약 150만 홍콩 달러(한화 약 2억4778만 원)를 모금했다. 쌀 · 렌틸콩 · 식용유 등 약 20달러 상당의 물품을 900가정에게 배포했다.

BDCHK의 책임자 K.L 담마조티(K.L, Dhammajoti)는 "스리랑카 구호기금모금에 참여한 불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며 "여러분의 깊고 따뜻한 반응에 큰 감동을 받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 사용처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니 안심하길 바란다" 며 "우리는 지금까지 약 40만 홍콩 달러를 소요해 8개 마을에 생필품을 배급했다" 고 덧붙였다.

생필품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들에게 우선 배급됐다. 각 마을의 사찰들이 이들에 대한 배급을 담당했다. BDCHK는 앞으로 스리랑카 다른 마을에까지 생필품을 배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국가 부도를 선언한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의 붕괴, 지나친 감세 등 재정 정책 실패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박정현 객원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2~6/2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착한일많이하게그대가부처일세(고승열전11)경허스님	윤청광	우리출판사
4	반야심경정해:반야심경의의미왜곡을드러내고원래뜻을밝힌다	관정	알아차림
5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6	수심결:마음닦는요결(개정판)	지눌/오광익 연의	동남풍(=원불교출판사)
7	마하시사야도위빳사나백문백답	일창 담마간다 편역	이솔
8	숫타니파타(쿳다까니까야/원문수록)양장본	전재성 역주	한국빨알리성전협회
9	속담속에담은불교명쾌하고쉬운불교	김성철	오타쿠
10	읽기만해도보리심이샘솟는원빈스님의천수경	원빈스님 강설	이층버스

책세상

佛法 전하는 또 하나의 방편, 주련

오늘날 사찰 주련 찬탄이나 경책 등 주류
주련 적절히 활용한다면 포교에 큰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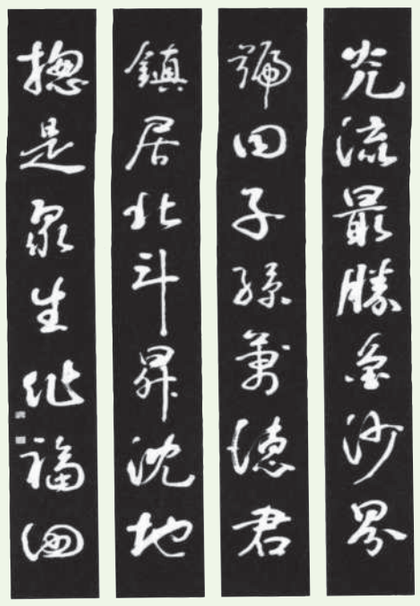
사찰에서 만나는 주련
지홍 법상 지음
5만5천원/문연 펴냄

주련(柱聯)은 영련(楹聯)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주(柱)와 영(楹)은 기둥을 나타낸다. 그리고 연(聯)은 '연이어' 라는 표현으로 판자에 글을 써서 새김해 걸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런 주련 내용은 건물 주제에 맞게 그 내용을 시로 찬탄해 더욱더 그 의미를 고양 한다. 대부분의 주련은 훈계나 격려 또는 경책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주련의 바탕이 되는 판자 아래로는 연잎이나 연꽃, 당초(唐草) 문양 등을 장식해 주련의 문장이 경직됐다면 이를 좀 더 완화하고, 흥부(興賦)하는 문구라면 더욱더 북돋우기도 한다.

주련도 엄연히 삼보에 대비해 본다면 법보에 해당한다. 주련 내용이 부처님 가르침을 인용하거나 삼보 찬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주련은 그 전각에 따라서 봉안된 주존(主尊)을 찬탄하는 내용을 경전서 인용하거나 아니면 시문을 지어 탄백(歎白)하는 내용으로 대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찰 주련은 찬탄이나 경책 등이 주류다.



여수 한산사 칠성각(글씨 남재 송석진)

세월의 흐름 따라 한자의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에게는 그냥 곁눈질하듯 지나가기에 그 기능을 상실한 지가 이미 오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든지 사랑받지 못하면 관심서 멀어지고 먼 산 쳐다보듯 도외시되기 마련이다. 주련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방편이기에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포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나고 죽음 없는 도리' 를 일러주는 것이며, 이를 '불생불멸(不生不滅)' 이라 한다. 또한 불교 재(齋)의례 대부분은 죽은 자를 위한 법회이다.

그래서 법문을 들려주어 무명을 타파하길 바라는 것이 요점이다. 이를 모르면 시식(施食)이 음식을 베풀어 영가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것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시식(施食)의 본질은 법식(法食)이다.

영가에게 법식을 베풀기 위해서는 재(齋)를 주재(主宰)하는 이가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아는 만큼만 전해줄 수 있다. 뜻을 모르고 하는 염불은 염불(念佛)이 아닌 구불(口佛)이라 하여 예로부터 경책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불교의례 수행의 일상…비중 크다

590개 게송을 수록한 후 그 대강을 설명해
불교 의례 게송은 모두 한문으로 이루어져



불교재의례게송
지홍 법상 지음
5만원/문연 펴냄

불교 의례는 수행의 일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만큼 의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방증이다. 의례 구조를 보면 문사(文辭) 게송(偈頌) 진언(眞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게송 내용을 정리하고 살펴보고자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과 〈작법귀감〉 등에서 발췌한 게송이 무려 6백여 개나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590개 게송을 수록해 그 대강(大綱)을 설명했다.

불교 의례의 게송은 모두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한자 특성은 축약하는 언어 구조로 돼있어서 이를 풀이하지 않으면 문사(文辭)는 물론이고, 게송(偈頌)이 뜻하는 바를 알기 어렵다. 천학(淺學)한 낙동강 변의 납승(衲僧)이 게송을 들여다보았으나, 눈 밝은 이가 보면 겨우 언저리만 보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은 한 걸음이 시작돼 훗날에 눈 밝은 이가 이를 보태고, 구부려진 것을 바로잡는 데 작은 밑거름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저자는 출간 취지를 말한다.

유가의 논어(論語) 가운데 양화(陽貨)편 제17에 보면 공자가 자신의 아들인 백어(伯魚)가 시경(詩經)을 배우지 아니하자 '백어' 를 나무라기를 사람으로서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담벼락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를 두고 세속에서는 의미가 와전되어 '알아야 면장(面長)을 한다' 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어찌 되었든 알아야 무엇을 할 수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저자 지홍 법상 스님은 "세상사 늘 그렇듯이 독불장군은 없는 법이다. 숲이 우거지면 새가 날고, 물이 깊으면 고기가 모인다. 교(敎)가 깊으면 대중이 모이고, 선(禪)이 깊으면 비불(非佛)은 없는 법"이라며 "하물며 세상일도 그럴진대 선교 우열을 나누는 자가 있다면 이는 눈먼 자가 코끼리 다리를 짚는 격이다. 사대(四大)가 모여서 만물을 이루듯이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숨은 공로자가 많음을 함께 밝혀 둔다"고 피력한다.

詩·사진으로 만나는 송광사와 선암사



둥근거울
시 석연경
사진 김의길 외
문학들 펴냄
1만6천원

전남 순천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의 석연경 시인이 '시와 사진으로 만나는 전남 사찰 기행' 시리즈 첫 번째 책으로 〈시와 사진으로 만나는 순천 사찰 기행-둥근 거울〉을 펴냈다.

세계문화유산인 태고총림 선암사 및 한국 3대 사찰 중 하나인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의 아름다운 풍광과 불교 철학의 사유를 시와 사진으로 담았다.

송광서 대웅보전에 가보라/가지런히 신발 벗고/없는 마음 내리고 없는 괴로움도 버려라
합장하고 무릎 꿇고 절하면 과거 연등불 현재 석가모니 미래 미륵불이 무아이며 무상이니 공이며 중도라 연기적 세계에 갈 곳 알려주네
〈송광사 대웅보전〉 중에서

달마대사를 마주 보면 달마대사를 볼 수 없다/옆에서 비스듬히 보거나 조사전 문을 닫아야 보인다/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 문을 닫으면 보이는 두 개의 밝은 마음
〈선암사 조사전〉중에서

송광사와 선암사는 조선시대의 숭유억불 정책,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여순사건 등의 고난 속에서도 한국불교의 맥을 이어 현재까지도 융성하게 불교문화를 꽃피는 우리나라 대표적 천년고찰이다.

이 책은 송광사와 선암사의 본찰과 암자는 물론 순천의 말사들을 시 62편과 사진 94컷으로 표현했다. 현지를 여행하는 독자에게는 실제 풍경과 사진 그리고 시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인문여행 길잡이 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연경 시인은 불교철학의 핵심을 풍광 속에서 간파하여 그것을 시로 승화했다.

시 〈능견난사〉를 예로 들면, 스님들이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발우를 "보고도 알 수 없는 것/만지고도 알 수 없는 것/감각으로도 알 수 없고/머리로는 알 수 없는/놋쇠의 포개짐"속에서 "아래로 포개도/위로 포개도/하나로 포개지는//자연과 사람이/전생과 이승이/꽃과 나비가/손과 손이 포개지는"이라 표현하며 '불이(不二)' 의 세계로 연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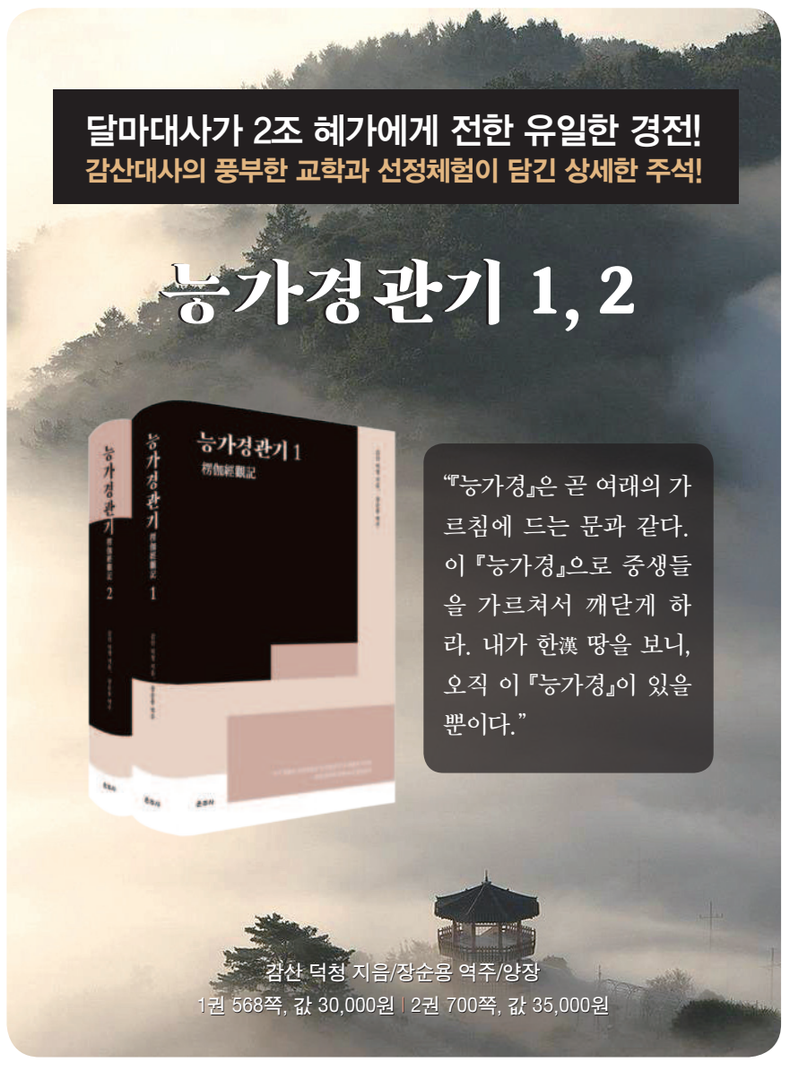


송광사 일주문 ©김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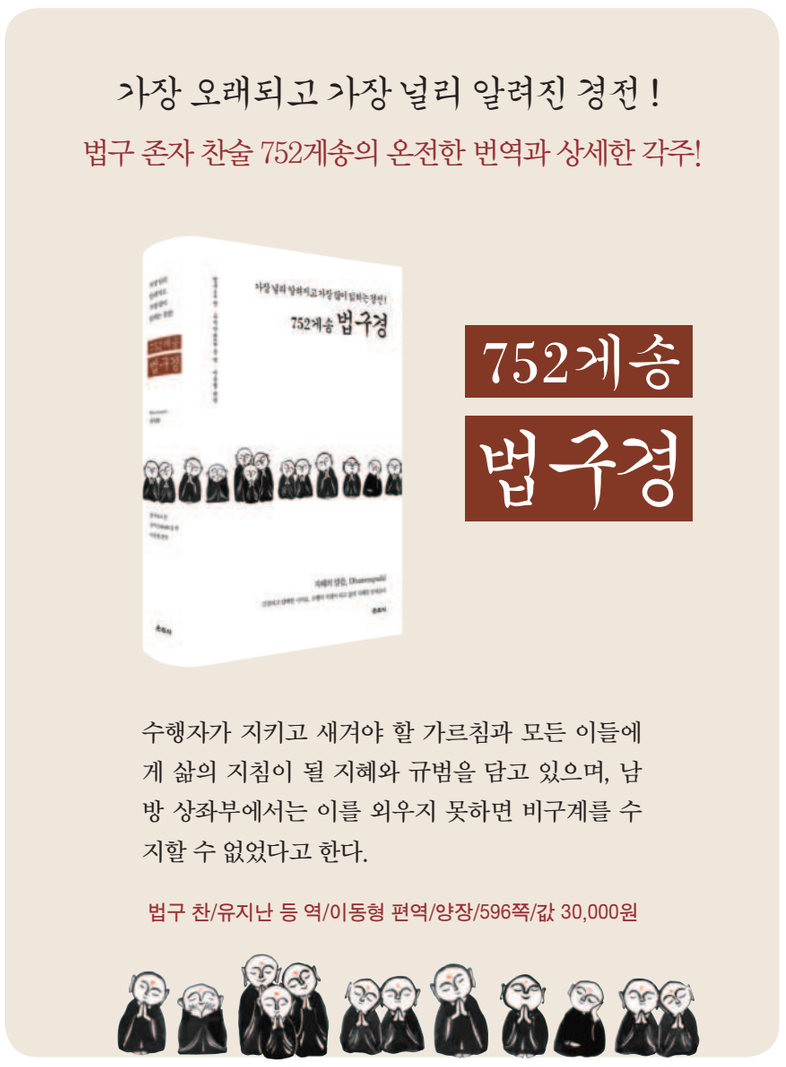
시 62편과 사진 94컷으로 표현
풍광 속에서 불교를 詩로 승화

김준태 시인은 발문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이 둘이 아닌 '하나' 의 세계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즉 화엄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평했다.

▲저자 **석연경 시인**은?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2013년 〈시와문화〉에서 시로, 2015년 〈시와 세계〉에서 문학평론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독수리의 날들〉 〈섬광, 쇄빙선〉 〈푸른 벽을 세우다〉가 있고, 시 평론집 〈생태시학의 변주〉가 있다. 송수권시문학상 젊은시인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김수로왕 · 허황옥 인연 잇는 인도유물전

김해시 '초이 김양식 관장 기증유물특별전' 가야테마파크 인도관 6월 19일부터 상설

김양식 관장 무상기증한 인도유물 전시
간다라 관음보살좌상 등 300여 점 선봬
2000년 전 가락국과 아유타국의 인연이
오늘의 김해시와 인도 간의 문화 교류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인도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김해시가 6월 19일 김해시 가야테마파크에서 '초이 김양식 관장 기증유물특별전 - 김해로 다가온 인도를 만나다' 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은 2021년 5월 김해시와 인도박물관이 체결한 유물 무상기증 협약에 의해 마련됐다.

인도박물관 초이 김양식 관장은 협약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인도유물 1194점을 김해시에 무상기증했다. 김해시는 이관 직후 유물의 생물학적 피해 예방과 방지를 위한 훈증처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왔으며 이번 특별전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기증 유물은 가야테마파크 내 인도관, 뉴델리관, 아요디아관, 수장시설 등에 보관 중이며 인도의 대표적 건물인 타지마할을 모티브로 한 인도관을 특별전의 주 전시관으로 운영한다.

인도관에서는 간다라 관음보살좌상, 와불상 등 169점의 유물을 △1부 '차가운 금속에 화려함을 불어 넣다' △ 2부 '신과의 공존을 조각하다' △3부 '씨실과 날실 위에 삶을 그리다' △4부 '일상을 담아 삶을 꾸리다' △5부 '선율에 맞춰 삶을 노래하다' △6부 '신화적 상상력을 얼굴로 표현하다' 6개의 주제로 나누어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뉴델리관, 아요디아관에는 생활장식품, 건축, 전통악기를 중심으로 각각 71점, 56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김양식 인도박물관장이 김해시에 인도유물을 기증하게 된 것은 김해시와 인도가 역사적으로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전 가야의 김수로왕과 허황옥 왕후의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그 인연은 서울 인도박물관 김양식 관장의 문화나눔 정신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관음보살좌상, 1~4세기경 간다라 지역에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터번을 쓰고 연꽃을 들고 있는데, 연꽃을 들고 있는 형태는 주로 전성기에서 벗어난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에서 확인된다.



가네샤, 시바와 빠르봐띠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장애물을 제거하여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숭배된다. 형상은 인간의 모습에 코끼리 얼굴을 하고 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 에 의하면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과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 허황옥이 혼인을 하면서 김해 김씨와 허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많은 자손과 후손들이 번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 인연으로 옛 가락국 땅이었던 김해시는 인도 아요디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교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김해시가 허황옥의 고향인 인도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외특별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양식 관장은 인사말에서 "내가 가진 모든 노력을 기울여 수집되어진 유물이지만 모든 김해시민들의 기억에 남아 김해시와 인도의 깊은 역사적 우의와 교류를 통한 인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며 "앞으로 더욱 더 두 나라의 돈독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인도유물이 서울 인도박물관에서 김해시로 오게 된 인연은 2017년 12월 허성곤 김해시장과 김양식 관장이 김해초이 인도박물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김양식 관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40여 년간 모은 유물 등 2500여 점을 김해시에 기증할 뜻을 밝혔다. 업무협약 당시 인도박물관측은 "2000년 전 인도와 사돈지간이 된 김해에 인도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취지에 맞을 것 같다"며 "박물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약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허성곤 시장은 "김해에 국내 유일한 인도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큰 성과"라며 "인도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더 넓혀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해시는 김양식 관장으로부터 기증 받은 유물을 보존 · 전시할 수 있는 인도전문박물관을 마련하기 위해 김해시 불암동에 허황후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기증자인 김양식 관장은 193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대 영문과와 동국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를 졸업했다. 평생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종교문화 예술품을 수집했고 2011년 서울에서 인도박물관을 열었다. 김 관장은 한국 · 인도 간 문화교류를 위한 많은 활동을 이어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인도정부로부터 문화훈장 파드마 슈리(PADMA SHRI)를 받았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은 상시 운영될 예정으로 김해시와 인도 간의 오랜 교류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보 반가사유상, 인천국제공항서 만난다

국립중앙博, 공항 미디어파워에 영상 상영

국보 반가사유상을 디지털로 구현한 영상이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상영된다.〈사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6월 18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중앙 밀레니엄홀 미디어타워에서 한국문화 대표 브랜드인 '국보 반가사유상' 디지털 실감콘텐츠를 상영한다.

영상은 초고용량의 3차원 정밀촬영(3D 스캔) 데이터를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문화유산기술연구소(TRIC)의 문화유산 렌더링 기술을 통해 구현했다. 반가사유상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높이 27m에 달하는 초대형 8K 고화질 LED 전광판인 인천공항 미디어타워에서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다.

국보 반가사유상 실감 콘텐츠는 실제 문화유산을 정밀하게 디지털화한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헤리티지' 를 활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영상의 한계를 넘어 '반가사유상의 미소' 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각도와 환경, 재질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동안 디지털 혁신 기술과 문화유산을 접목한 문화유산 실감 콘텐츠를 제작, 전용 영상관에 상영하면서 새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박물관 관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국보 반가사유상 실감콘텐츠' 의 인천국제공항 미디어타워 상영을 시작으로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실감콘텐츠를 연차적으로 제작해 보다 많은 사람이 향유할 수 있도록 선보일 계획"이라며 "국보 반가사유상 실감콘텐츠는 인천공항을 찾는 국내외 많은 여행객들에게 바쁜 일정 속에 잠깐의 여유를 찾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3회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 성료

대상, 정후남 '직지 그대 만나면' 수상
9월 4일 제4회 충청권 대회 개최 예정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3회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가 6월 18일 충북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33명의 참가자들이 경연을 펼쳤다. 영예의 대상은 '직지 그대 만나면' 을 낭송한 정후남(강원 화천)이 수상했으며, △금상에는 최향순, △은상에는 윤용호, 박인숙, △동상에는 김재선, 유서연, 남태희, △장려상에는 곽희정, 유민숙, 원현숙, 손옥순, 서현호가 선정됐다. 그리고 △특별상에는 정우, 김난숙, 서문순, 반기자, 고명주, 송상익, 임수빈이 선정됐다.



직지나라사랑 시낭송회 이양우 회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가치와 가르침을 널리 알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가 전국 시낭송 메이저 대회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지나라사랑 시낭송회는 9월 4일 직지의 날에 충청권 4개 시 · 도 대상 '제4회 충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 와 10월 '제 2회 직지 코리아 청소년 직지 시낭송대회' , '제1회 전국 직지 코리아 청소년 직지시 작품공모' 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흥천사 동종 귀환, 현 불자들의 사명”

문명대 명예교수, 7월 2일 학술대회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떠돌아다니면서 훼손되고 종교적 기능을 못한 흥천사 동종은 이제 원래 봉안 장소인 흥천사로 돌아가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는 오늘날 우리 불제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기조발표 中)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흥천사 동종’의 환지본처를 촉구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7월 2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정릉 흥천사 전법회관 2층 무량수전에서 ‘600년 왕실 원찰 흥천사 대종의 흥천사 귀환’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는 ‘흥천사의 역사와 흥천사 대종의 귀환’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통해 흥천사의 계승 관계와 흥천사 동종 귀환의 당위성을 짚을 예정이다.

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문 명예교수는 흥천사는 태조의 정비인 신덕왕후의 원당(願堂)으로 정릉 황화방 일대에 창건된 왕실사찰로 현재의 흥천사가 그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조명했다.

신덕왕후 능침사찰로 조성
1504 · 1510년 화마로 전소
1669년 왕후릉 복위 되면서
현 위치로 흥천사가 중창돼
능침사찰로서 본 뿌리 계승
“박물관 유물로 전락해서야”

황화방 흥천사는 1504년과 1510년 두 번에 걸쳐 모든 전각과 사리전까지 화재로 전소됐고, 1512년 토지까지 사대부들에게 분양해 완전 폐사됐다. 하지만, 1409년 신덕왕후릉이 후궁릉으로 강등되며 성북구 사을한으로 이전했고, 능침사 역시 기존 흥천사에서 분사(分司)해 신흥사라는 사찰로 건립됐다. “1510년까지 약 100년 동안 흥천사와 신흥사가 공존하는 시기”라는 게 문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흥천사 동종.

이후 1669년 송시열 등의 건의에 따라 신덕왕후릉이 다시 왕후릉으로 복위되며 흥천사도 현재 자리로 새로 중창 이전한다. 이후 19세기에는 적조암, 극락보전, 명부전 등이 중창되며 불사를 이어갔다.

문 명예교수는 “대원군이 1865년 새 흥천사인 신흥사가 원 흥천사를 완전히 계승했다는 뜻으로 흥천사명을 복원시킨 것은 흥천사가 원래 황화방 흥천사의 역사성을 계승했음을 명실상부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흥천사의 역사성을 고스란히 계승한 현재의 흥천사로 ‘흥천사 동종’이 귀환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는 게 문 명예교수의 주장이다. 문 명예교수는 “흥천사 동종은 신덕왕후와 왕실 조상의 명복을 빌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자 세조가 조성해 헌납한 종”이라며 “특히 흥천사 동종은 신덕왕후의 능침사원이자 왕실원찰의 기능을 담당했던 종이므로 이를 계승한 흥천사로 돌아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명예교수는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흥천사 동종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문화재청은 보존처리를 완료한 흥천사 동종을 왕실 유물 전시관인 국립고궁박물관 앞에 보호각을 설치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문 명예교수는 “모든 문화재는 원래 장소에 있어야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며 “박물관에서 유물로만 존재한다면 원래의 종교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흥천사 대종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이용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와 ‘흥천사의 역사와 그 계승(이종수 순천대 교수)’의 주제 발제가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김창균 동국대 교수, 주수완 우석대 교수, 고영섭 동국대 교수, 문무왕 前 동명대 교수가 참여한다.

공민왕부터 백성까지 조성한 약사불 ‘국보’ 됐다

장곡사 약사불상 · 복장물 일괄… 문화재청, 지정 공고

1117명 시주 · 발원자로 참여
고려 불교 · 사회사 확인 성보

고려 공민왕부터 백성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성에 참여했던 약사여래불상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고려시대 조성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한다”고 6월 23일 밝혔다. 또한 조선왕조의 법전 〈경국대전〉과 정조의 한문편지, 천문도 ‘신 · 구법천문도’, 안중근 유묵 등을 보물로 지정했다.

국보로 지정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고려 후기 유일 금동약사불상으로 당시 조각 경향을 반영한 작품으로 평가돼 왔다. 특히 발원문에는 1346년(고려 충목왕2)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가 적혀있어 고려 후기 불상의 기준 연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온화하고 자비로운 표정, 비례감이 알맞은 신체, 섬세한 의복의 장식 표현 등 14세기 불상 조각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 불상 중에서도 뛰어난 예술적 조형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의 조성발원문도 불교미술사 · 사회사적 의미가 큰 사료다. 가로 10m가 조금 넘는 긴 발원문에는 약 1117명에 달하는 시주자와 발원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이는 고려시대 단일 복장발원문으로서는 가장 많은 인명을 담고 있다.

특히, 발원문을 지은 승려 백운(白雲)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이자 ‘직지’로 잘 알려진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1377)을 편찬한 백운 경한(白雲景閑, 1298~1374)과 동일인물로 추정돼, 그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로서 매우 의미가 깊다.



국보로 지정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사진 위)과 조성발원문.(사진 아래)

장곡사 불상 제작에는 왕전(훗날 공민왕) 등 왕족을 비롯해 군부인(郡夫人), 무관(武官), 일반 백성 등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아마도 몽골침탈기라는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무병장수, 전쟁 중에 죽은 친족의 극락왕생을 발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명 중에는 공민왕의 몽고식 이름인 바얀테무르(伯顔帖木兒)를 비롯한 몽고식 이름이 확인돼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청은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은 미술사 뿐 아니라 불교사 · 사회사적 측면에서도 고려 14세기 중반의 역사상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보로 지정하기에 예술 · 역사 ·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현대 생활서 불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교불련, 7월 8~10일 은해사서 교수불자대회

‘불교사상 실천’ 주제로 진행
實事求是적 학술 논문 ‘눈길’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불교사상은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떻게 실천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송일호, 이하 교불련)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영천 은해사 일원에서 ‘2022년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현대생활 속에 불교사상과 그 실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불교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적 학술 논문 30여 편이 발표된다.

주요 발표 논문으로는 △김성규 영남대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불교사상의 생활과 실천에 대한 사성제 고찰’ △김은희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의 ‘참선과 요가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 증 및 근감소증에 미치는 영향’ △문일수 동국대 WISE캠퍼스 의과대학 교수의 ‘뇌과학으로 보는 싯다르타의 마음동작에 대한 고찰’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와 안신정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승가 및 종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재가불자들의 인식’ △김재인 동국대 한의학과 교수의 ‘인생 단계별 불교와 한의학의 융합과 실생활 적용’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와 이명호 경희대 교수의 ‘재가불자의 신행과 사찰의 현재와 미래’ 등이다.

대회는 총 6개 분과를 나눠 진행되며, 조계종 원로의원 중화 법타 대종사의 입재법어와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의 법문도 예정돼 있다.

송일호 교불련 회장은 “탈종교화 심화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불교도 위기 상황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불교 생태계 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이뤄져 왔다”며 “이제 교불련이 앞장서 흩어진 발제를 한곳에 모아 불교 중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땅끝 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사주명리학 · 점술학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금강경한문 + 법화경강좌

부산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부산역 앞 광장호텔 뒤 참맛집 5층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200-13)

대구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이시아 폴리스 태왕아너스타워 상가1층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41)

● 동참자격 : 불교정법 공부를 서원 하신 분
● 수강회비 : 무료 (단, 교재비 3만원 자부담)
● 교육기간 : 1년 2학기 (수시모집)
● 문의전화 : 010-4501-8711

嶺南僧伽大學 總長 崔 空 德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1

▶ 72회 예고
탁실라 특사단장은 아쇼까왕의 하사품을 꾸날라 부왕에게 전한다. 한편, 특사 일원인 친위대 조장은 꾸날라를 벌하라는 가짜 명령서를 대신에게 전한다. 결국 꾸날라는 자신의 두 눈을 뽑히는 형을 받고 탁실라에서 추방당한다.



아쇼까, 동생 비가따쇼까 개종시키다

아쇼까왕은 탁실라로 떠나는 특사단장을 정궁 접견실로 불러들였다. 이번 특사단의 임무는 탁실라 부왕 꾸날라를 위로하는 일이었다. 아쇼까왕은 사랑하는 아들 꾸날라를 재위 동안 단 한 번뿐인 대관식에 참석시키지 못한 것을 몹시 아쉬워했고, 후회했기 때문이었다.

"준비는 다 했소?"

"대왕님께서 탁실라 부왕님께 하사하실 물품은 제가 직접 점검했습니다. 특사 일행을 호위할 기마군사는 외성에 대기 중입니다. 친위대 조장이 선발한 군사들입니다."

"꾸날라 부왕에게 대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내가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전하시오. 부왕이 나를 위해 연주해주었던 공후소리가 가끔 그립다고도 전해주시오."

아쇼까왕이 가장 신경을 쓴 하사품은 공후였다. 궁중악단 악장(樂長)에게 지시하여 옛 앙가국 짬빠성의 명장을 찾아가서 신비로운 소리를 내는 공후를 구해오게 했던 것이다. 짬빠성의 공후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명기이므로 꾸날라에게는 보배 같은 선물이 될 터였다.

"대왕님이시여, 부왕님께서 크게 감동하실 것입니다."

"친위대 조장은 어디에 있소?"

"선발한 군사들을 외성에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이므로 정신무장과 체력단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잘 다녀오기 바라오."

며칠 후.

드디어 특사 일행이 탁실라로 떠나기 전날이었다. 친위대 조장은 띠쉬아락시따 왕비별궁을 경비하는 책임자이기도 했으므로 띠쉬아락시따를 찾아가 보고했다.

"왕비님, 특사 일행은 내일 새벽에 탁실라로 떠납니다."

"일전에 조장님께 주었던 대왕님의 명령서가 든 밀봉한 봉투는 잘 간직하고 계시지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특사 단장께서도 대왕님의 명령서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아마도 단장님이 부왕님께 전하는 명령서는 공적인 것이고 제가 전하는 대왕님의 명령서는 사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적인 명령서이기 때문에 왕비님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왕님의 명령서를 보지 못했으니 공적인지 사적인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조장님이 가지고 있는 대왕님의 명령서는 특사 일행이 탁실라를 떠날 때 전해 주세요. 그것만은 잊지 마셔야 해요."

"왕비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띠쉬아락시따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 친위대 조장에게 약속을 하나 했다.

"탁실라에서 돌아오시면 대왕님께 말씀드려 꼭 승진하도록 힘쓸게요."

"왕비님, 고맙습니다."

띠쉬아락시따는 탁실라를 다녀온 친위대 조장이 친위대장으로 특진한 전례를 알고 있었다. 수시마가 탁실라 부왕으로 있을 때였는데, 현재의 친위대장이 친위대 조장으로 특사 일행을 따라갔다가 돌아와서 친위대장이 되었던 것이다.

친위대 조장은 가슴에 손을 대고 띠쉬아락시따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제가 탁실라에 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왕비님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조장님을 믿습니다."

그때 아쇼까왕은 다르마 대비별궁에 와 있었다. 아쇼까왕은 오랜 만에 문안인사를 왔고, 다르마 대비 역시 아쇼까에게 상의할 일이 있었던 차였다. 아쇼까왕은 이제 단순한 다르마 대비의 아들이 아니라 마우리아왕국의 대왕으로서 위엄이 있었다.

"어머니, 그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대관식 때도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멀리서만 뵀습니다."

"대왕께서 승가에 보시를 하면서 전국에 사원을 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목갈리뿟다띳사 사문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 사문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장로이시지요."

"어머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요즘 고민이 하나 있기는 하지요."

"무엇입니까?"

다르마 대비는 망설이지 않았다. 바로 털어놓은 것은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비가따쇼까가 브라흐마교 구루에게 빠져 있어요. 날마다 강가강으로 나가 구루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걱정이지요."

"저도 브라흐마교 지도자들이 천박하게 공양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만 동생이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린다고 하니 제가 한번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대왕께서 제발 바로 잡아주세요. 구루들이 비가따쇼까를 강가강으로 불러내 감언이설로 붙잡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비가따쇼까가 내게 '강물에 몸을 날마다 적시고 있으니 저는 죽더라도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브라흐마교 신자들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목갈리뿟다띳사 사문님께서는 아쇼까라마 법회에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설했어요.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행동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지요."

다르마 대비는 비가따쇼까가 구루들에게 세뇌당해 "사문들 가운데는 해탈한 자가 없다." "사문들은 고행하지 않고 편안함을 즐긴다."고 불교 사문들을 비웃는다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비가따쇼까를 정궁으로 불러들여 타일러보겠습니다."

아쇼까왕은 정궁으로 돌아와 친위대장을 불렀다. 그러나 그때 친위대장은 외성 밖에서 간부급 지휘관들을 집합시킨 뒤 사열을 받고 있었다. 마우리아국은 이미 보병 60만 명, 기병 10만 명, 코끼리부대 9천 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복전쟁을 치를 때면 여러 도시에 배치한 군사가 모두 빠딸리뿌뜨라 성으로 모이지만 평시에는 간부급들만 불러 전력유지와 지휘 상태를 검열하곤 했다. 간부급들의 열병식은 아쇼까왕 앞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왕에게 특별한 용무가 있을 때는 친위대장이 대신 나가기도 했다.

비가따쇼까도 역시 아쇼까왕의 부름에 바로 오지 못했다. 강가강으로 나가 사제들과 함께 시바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왕은 집무실에 들어온 라다굽따에게 비가따쇼까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다.

"수상께 묻겠소. 비가따쇼까가 구루들에게 빠져 있는 것 같소. 나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구루들에게 현혹되어 놀아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소. 대책을 세워야겠소."

"누구든 맹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더구나 비가따쇼까 왕자님은 부왕으로 나가서 지방을 통치할 나이입니다."

"그렇소. 동생의 나이가 열일곱 살이니 지방을 통치할 때가 되었소. 나는 그 나이 때 탁실라로 가서 반란을 제압한 일이 있소."

"대왕님, 제가 판단하기로는 비가따쇼까 왕자님은 통치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소?"



"구루들을 사귀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방관할 수는 없소."

"브라흐마교만 구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도 사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 좋은 생각이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비가따쇼까가 구루들과 멀리하겠소? 아니면 개종을 하겠소?"

"소신이 왕자님을 어찌한다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그러니 대왕님께서 방편을 내셔야 합니다."

"좋소."

아쇼까왕이 생각해 낸 방편은 속임수였다. 비가따쇼까가 나타나면 아쇼까왕이 목욕을 하러 가고, 라다굽따는 비가따쇼까에게 왕좌에 앉게 한 뒤 왕관을 쓰게 하는 것이었다. 왕위 찬탈자로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서였다. 두말할 것도 없이 왕위 찬탈자는 극형에 처해지는 벌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강가강의 제사나 목욕의식도 무상하게 느낄 터였다. 뒤늦게 입실한 친위대장이 아쇼까왕과 라다굽따 수상 간에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금세 이해했다.

그때, 비가따쇼까가 정궁 집무실 밖에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아쇼까왕은 즉시 각본대로 왕의 전용욕실로 들어갔다. 그러자 라다굽따와 친위대장이 집무실에 들어온 비가따쇼까에게 권유했다.

"왕자님이시여, 왕좌에 앉아 왕관을 써보십시오. 아주 멋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형님의 왕관을 한 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비가따쇼까가 왕관을 쓴 순간, 라다굽따와 친위대장은 집무실을 나가 버렸고 아쇼까왕은 욕실에서 나왔다. 아쇼까왕이 일부러 소리쳤다.

"이놈! 네가 왕위를 노리고 있었다니!"

"형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신하들이 시켜서 써보았을 뿐입니다."

"왕좌에 앉아 왕관을 쓰고 있으면서 나를 속이려드느냐!"

라다굽따와 친위대장이 들어와 말리는 척했다.

"대왕님이시여, 왕자님께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친위대장은 즉시 저놈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하시오."

라다굽따가 거짓으로 만류했다.

"저희가 왕관을 써보라고 권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왕자님에게 참회의 기회를 주십시오."

"알았소. 수상이 그랬다고 하지만 왕관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다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원했던 소원인지도 모르니 7일 동안 왕처럼 살게 한 뒤 처형하시오."

"대왕님이시여, 죽을죄를 지은 저를 배려해주시니..."

비가따쇼까는 말을 잇지 못하고 크게 소리 내어 통곡했다. 즉시 비가따쇼까에게는 아쇼까왕의 명령대로 7일 간의 자유와 오욕락(五欲樂)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비가따쇼까는 처형당할 날이 다가오자, 오욕락도 죽음 앞에서는 무상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간, 구루들과 달리 오욕락을 철저하게 버리고 사는 불교 사문들이 부러웠다. 자신도 출가해 불교 사문이 되고 싶었다. 마침내 비가따쇼까는 아쇼까왕을 만나고자 라다굽따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라다굽따는 바로 아쇼까왕에게 비가따쇼까를 데리고 갔다. 비가따쇼까가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출가하여 사문이 되겠습니다."

아쇼까왕은 자신의 의도대로 비가따쇼까가 7일 만에 개종할 의사를 보이므로 미소를 지으며 바로 허락했다.

"비가따쇼까에게 왕명으로 출가를 허락하노라. 다만, 반드시 아라한이 된 뒤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와 나를 기쁘게 하기 바란다."

그날 밤 비가따쇼까는 목갈리뿟다띳사를 찾아가 머리를 깎았다. 목갈리뿟다띳사는 비가따쇼까가 출가하게 된 동기를 듣고는 그도 니그로다와 마찬가지로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보았다. 다음날 비가따쇼까는 이른 새벽에 한 사문의 안내를 받아 목갈리뿟다띳사가 수행하던 강가강 동굴로 갔다.〈계속〉



靈영通통 비구·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거나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간질, 정신질환, 여러가지 고질병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 암치료도 가능)을 연합, 사·암으로도 가능합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 정 지광 / 총무원장 동진 합장

대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⑫ 축생과 이류중행



▶한줄요약
선승들의 다양한 출가담 중에는 짐승들로 비롯된 사례도 많이 있다.

짐승과의 교감·교훈서 비롯된 출가담

22. 사냥꾼의 참회

선승의 기구한 출가 사연을 살펴보다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도 지나쳐서는 안 될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 선승의 출가에 짐승이 개입한 현상이다. 눈부시게 성불한 욱면비의 전생이 소였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소는 부석사 가는 가파른 길로 불경을 실어가는 일을 했는데 그 선업과 복덕으로 사람 몸을 받아 수행자가 되었다. 반대로 재물욕을 내려두지 못한 스님이 뱀으로 환생한 이야기는 우리 설화에 더 많다. 짐승이 사람 되고 사람이 짐승 되는 환생의 메카니즘을 염두에 두며 선승의 출가 과정에 나타난 짐승의 함의를 살핀다.

가장 빈번하게 생성된 짐승 담론은 사냥과 관련된 것이다. 혼수(混修, 1320~1392)는 아버지 숙령(叔鴒)이 용주(龍州, 예천) 현감으로 있을 때 태어났다. 숙령이 사냥을 나가 사슴을 향해 화살을 쏘려고 하자 사슴은 달아났지만 멈추어 되돌아보기를 거듭했다. 숙령도 이상해서 돌아보니 사슴 새끼들이 어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짐승들이 새끼를 염려하는 것이 어찌 사람과 다르랴?' 이렇게 각성한 숙령은 그 뒤로 사냥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몇 달 뒤 죽었다. 어머니는 출가하려는 혼수에게 말했다. "네가 태어났을 때 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새끼를 염려하는 어미 사슴을 보고 느낀 바가 커서 사냥하기를 그만뒀다. 이는 네가 강보의 시절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자비의 도리를 나타내 보인 것이니라." 혼수는 어머니의 지지를 얻고 출가했다. 사슴의 모성은 역설적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가져왔고 결국 아들 혼수의 출가를 이룬 것이다.

혜통(惠通, 7세기 경)은 더 생생하게 짐승의 모성을 목격했다. 출가 전 혜통이 집 동쪽 시냇가에서 수달 한 마리를 잡아 살을 발라내고 뼈를 마당에 버렸다. 이튿날 아침 그 뼈가 보이지 않아 핏자국을 따라 가보았다. 뼈는 수달이 살던 굴속으로 들어가 새끼 다섯 마리를 안고서 앉아 있었다. 수달은 육신을 다 뺏기고도 모성을 포기하지 않고 새끼들에게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 모습을 본 혜통은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고 감탄했다. 오랫동안 주저주저하다가 문득 사람의 세속을 버리고 출가했다.[郎望見 驚異久之 感歎躊躇 便棄俗出家] 혜통은 왜 출가를 해야 했을까? 사람들이 미천하고 어리석다고 얕보아온 짐승이 사실은 사람 못지않은 자비심과 모성을 갖고 있다는 진실을 혜통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짐승들을 근거 없이 깔보고 습관적으로 죽여 온 그간의 행동을 후회했다. 새끼를 그렇게도 사랑하는 수달을 죽인 자신의 사냥 행위는 새끼에 대한 어미의 사랑을 짓밟고 수달 가족의 행복을 앗아간 것이라고 통각했을 것이다. 그 진실을 목격하고 자기의 잔혹함을 알게 된 혜통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 무얼 어떻게 해야 할까 한참 고민하고 주저했다. 근본적으로 참회하고 살생을 중단하는 새로운 삶의 출발은 출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다.

진표(眞表, 신라 경덕왕대)도 어릴 적부터 활을 잘 쏘고 사냥을 즐겼다. 어느 날 집에 가지고 가서 구워먹을 요량으로 개구리를 잡아 코와 입을 버들가지에 꿰어 물에 담가놓았다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 1년이 흐른 뒤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개구리는 버들가지에 꿰인 채 여전히 울고 있었다. 깊은 자책에 빠진 진표는 개구리들을 풀어주고 출가를 결심했다. 사냥을 즐기던 자장(慈藏, 590~658)도 잡은 꿩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출가했다.

23. 짐승의 신심

짐승은 사람과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사람보다 나을 때도 있다.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속리산으로 가던 진표(眞表)를 만났다. 소는 진표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소의 주인이 자기 소가 무슨 까닭으로 저러는지 물었다. "소는 비록 축생이지만 안으로는 현명하여 나로부터 수계(受戒)를 받는 것이 불법을 크게 일으키는 것을 알기에 저렇게 울고 있다오." 진표가 이렇게 설명해주니 소 주인은 큰절을 올리고 다시 말했다. "축생도 저렇게 깊은 신심이 있거늘 사람인 제가 어찌 계법에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숙연이 있어 선지식을 만났을 터이니 제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죄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신심 돈독한 소의 존재는 그 주인으로 하여금 세속의 관계를 단호히 끊어내고 출가를 결심하도록 이끈 것이다.

죽인 짐승의 신이한 모성 본 후 출가
이류중행 실천하는 불보살로 볼 수도
남전·신효 등 출가 인연으로 이어져
"두두물물이 정법 보여주고 법문 설해"



'이류중행' 실천했던 남전 보우 진영. 사진제공=정운 스님

진표가 중생제도를 위해 아슬라주에 이르렀을 때 물고기와 자라들이 섬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수중으로 초대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수계를 해주기를 서원한 것이나, 용왕이 옥으로 만든 가사를 바치고 팔만 권속을 거느리고 금산사로 온 것이나, 명주 해변에 이르렀을 때 물고기 자라 등이 몸을 엮어 진표가 밟고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것도 축생인 소가 신심을 낸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그해 흉년으로 사람들이 굶주리자 무수한 물고기들이 해변으로 뛰어올랐다. 진표가 법문을 해준 '미물'들이었다. 사람들은 그걸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해서 죽음을 면했다. 물속 미물들조차 불법을 알고 스스로를 헌신하여 불법의 은혜를 갚은 것이다.

24. 이류중행

출가의 길에서 선승 앞에 나타난 짐승은 이류중행(異類中行)을 실천하는 불보살로 볼 수도 있겠다. 이류중행이란 불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짐승을 비롯한 육도(六道)의 존재들로 환생하여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전(南泉, 748~834)이 거듭 언급되어왔다. 남전은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는 물소로 태어나 열심히 쟁기를 끌겠다며 제자들 앞에서 이류중행 실행을 다짐했다. '털가죽을 입고 뿔을 달고[披毛戴角]'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류중행을 생각하면 사람인 우리들이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되돌아보게 된다. 내 앞에 있던 저 소나 개가 원생한 보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특히 짐승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가 새롭게 가다듬어질 수밖에 없다.

신효(信孝, 통일신라)는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봉양했다. 어머니는 육고기 반찬이 아니면 밥을 들지 않으니 언제나 사냥을 해야 했다. 어느 날 사냥에서 학 다섯 마리를 발견하고 화살을 쏘았다. 모두 날아가 버렸는데 다가가 보니 깃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신효는 무심코 그 깃을 눈에 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사람들이 소, 말, 돼지, 양, 토끼, 염소, 개 등 소위 우마육축(牛馬六畜)으로 보였다. 〈삼국유사〉는 신효가 "그래서 고기를 얻지 못했다[故不得肉]"고 표현했다. 신효의 내면을 짐작해본다. 학의 깃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서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짐승들도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것이다. 신효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짐승을 더 이상 사냥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어머니에게는 육고기 반찬을 올려야 했다. 결국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 신효는 어머니가 돌아가자 살던 집을 효가원(孝家院)이라는 절로 만들고 스스로 출가하였다. 짐승과 사람의 본모습에 대한 충격적 각성이 출가의 계기가 되었다.

그 뒤 어느 날 신효에게 스님 다섯 분이 찾아왔다. 그들은 신효에게 가사(袈裟) 한 쪽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신효가 학의 깃을 내주니 그들은 한 쪽이 찢어진 가사를 내놓고 그 깃을 찢어진 곳에 붙였다. 꼭 맞았다. 이들은 다섯 마리 학의 모습으로 신효 앞에 나타나 깃을 남기고 떠났던 오류성중(五類聖衆, 문수·지장·관음·대세지·석가)이었다. 신효가 살생을 중단하고 수행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류(異類)로 화생한 것이었다.

화신보살이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이야기도 있다. 통일신라시대 사냥꾼 이순석(李順碩)은 친구와 함께 철원 보개산에 들어가 금빛 멧돼지를 쏘아 명중시켰다. 금빛 멧돼지는 피를 흘리면서 환희봉 쪽으로 달아났다. 핏자국을 따라 갔더니 금빛 멧돼지는 보이지 않고 지장보살의 석상이 있었다. 지장보살상은 머리 부분이 드러나 있었지만 몸은 땅에 묻혀 있었다. 왼쪽 어깨 부분에 화살이 꽂혀 있었으니 이순석이 쏜 것이었다. 화살을 뽑아주고 몸체를 파내려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성인께서 살생을 일삼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주시기 위해 이 같은 신이한 변화를 보이셨다. 내일 땅에서 나오셔서 샘가 돌 위에 앉아 계신다면 마땅히 출가하여 지장보살상을 모시는 절을 짓고 도를 닦자"고 맹세했다.

다음날 와 보니 과연 지장보살상이 돌 위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출가하였으니 때는 720년이었고 무리 3백여 명을 이끌고 와서 암자를 창건했으니 철원 석대암(石臺庵)이었다. 두 사람이 돌을 쌓아 대를 만들고 그 대 위에 앉아 정진하였기에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25. 두두물물

세상 온갖 존재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신호를 보내고 소통을 꾀한다. 선승은 다기한 그 신호 중에서 충격적이지만 가장 진실한 것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가를 결행했다. 그러나 대부분 중생들은 그 고구정녕한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무명에서 비롯한 망념과 업식, 통념과 편견이 쏟아지고 쌓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그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폭류(瀑流, 폭포수)'에 휩쓸려가는 것에 비유했다. 거센 폭류로부터 스스로 헤쳐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일 것이다.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고 좀 더 직접적으로 나투어 중생이 온 존재의 신호를 포착하고 폭류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려는 불보살의 가호가 끊임없었다. 이류중행은 그런 원과 연민을 가진 불보살의 모습이었다.

가려지고 드러난 차이는 있지만 육도중생 어느 하나 이류중행의 모습 아닌 게 없다. 도망치면서도 뒤따라오는 새끼를 걱정하는 어미 사슴이나, 뼈만 남아도 굴속으로 돌아가 어린 새끼를 얼싸안은 수달이나, 스님 앞에 꿇어앉아 눈물을 흘리는 소나, 버들가지에 꿰어 일 년간 울부짖었던 개구리, 그 모두가 그 자체로 평등한 화신 불보살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두두물물이 다 정법을 보여주고 법문을 설한다고 했을 것이다.

〈연세대 객원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제 10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6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⑫ 사신구사 본생담

▶ 한줄요약
기원 후 성립된 대승 경전의 본생담은 자신을 희생해 타인을 구하는 '사신구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굶주린 호랑이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 살타태자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호랑이에게 자신을 보시한 태자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본생담(本生譚)은 인도에서 탄생 되었지만, 팔리어로 기록한 남전 장경과 산스크리트어로 기록한 대승 장경에는 서로의 경전에 수록되지 않은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기원후 성립된 대승 경전에 들어간 본생담들은 나를 희생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사신구사'(捨身求死)의 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중에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야기가 자신의 몸을 굶주린 호랑이에게 보시한 태자의 이야기이다.

이 본생담은 〈고승 법현전(高僧 法顯傳)〉에 기록된 "축찰시라(竺刹尸羅, Taxila)에서 동쪽으로 이틀쯤 가면 스스로 몸을 던져 굶주린 호랑이에게 먹인 곳에 이르게 된다. 이곳에도 큰 탑이 세워져 있었고 모두 갖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여러 나라의 왕과 신하들은 다투어 공양을 올렸으며 꽃을 뿌리고 등을 켜는 것이 계속 이어져 끊이질 않았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추측해 볼 때, 탁실라 인근의 지역에서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석존이 전생에 마하살타(摩訶薩陀) 왕자였을 때, 굶주린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에게 대비심을 발하여 자신의 전신을 보시한 이야기는 〈현우경(賢愚經)〉, 〈보살투신이아호기탑인연경(菩薩投身餓餓虎起塔因緣經)〉, 〈금광명경(金光明經)〉, 〈합부금광명경(合部金光明經)〉,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 〈육도집경(六度集經)〉, 〈경률이상(經律異相)〉, 〈법원주림(法苑珠林)〉,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등 여러 경전 및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러 경전에 실린 이 이야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현우경〉 권 1의 '마하살타이신시호연품(摩訶薩埵以身施虎緣品)' 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주 오랜 옛날 잠부드이파에 큰 국가가 있었는데 국왕의 이름이 마하라다나이고 그는 작은 나라 5000개 이상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는 마하부나영, 둘째는 마하데바, 셋째는 마하살타이다. 그중에서도 막내아들은 어려서부터 자비를 행하여 일체중생을 가엾이 여겼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과 부인 그리고 태자들을 데리고 동산 구경을 나갔었다. 왕이 피로하여 잠시 쉬고 있을 때, 세 아들은 숲속에서 놀다가 어미 호랑이가 새끼 두 마리에게 젖을 먹이려다가 주림을 못 견디어 자신의 새끼를 도로 먹으려는 것을 보았다. 법을 위해서 몸을 보시하기로 결심한 막내태자는 두 형을 먼저 보낸 후 호랑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앞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주린 호랑이는 입을 다물고 먹지 못하였다. 그때 태자는 날카로운 나무 꼬챙이로 자기 몸을 찔러 피를 내었다. 호랑이는 그 피를 핥다가 그제서야 입을 벌려 곧 그 몸을 먹었다.

두 형은 오래 기다렸으나 아우가 돌아오지 않아 그 자취를 따라 찾아가면서 조금 전에 나누던 아우와의 말을 생각하였다. "반드시 그 주린 호랑이에게 몸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언덕에 올라 마하살타가 호랑이 앞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호랑이는 벌써 그것을 먹고 있는데 피와 살이 낭자하였다."

두 번째, 〈금광명경〉 권4 '사신품(捨身品)' 을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나간 세상에 마하라타(摩訶羅陁)라는 임금이 있어, 선한 법을 닦으며 나라를 잘 다스려서 원수나 대적이 없었다. 이 임금이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얼굴이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몸매가 훌륭하고 위엄과 덕행이 놀라웠다. 맏태자는 이름이 마하파나라(摩訶波那羅)이고 둘째는 마하제바(摩訶提婆)고, 막내는 마하살타(摩訶薩埵)였느니라.

어느 날 이 왕자들은 동산을 노닐면서 구경하다가 차츰차츰 큰 대숲 속에 이르러 쉬고 있었는데, 범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범은 새끼를 낳은 지 이레가 되었는데, 일곱 마리 새끼들에게 둘러 싸여 먹을 것을 먹지 못하여 지쳤고 몸이 야위어서 머잖아 죽을 것 같았다. 맏태자가 이 범을 보고 이 범은 새끼 낳은 지 이레가 지났는데, 일곱 마리 새끼에게 에워싸여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러다가 배가 몹시 고프면 반드시 저 새끼라도 잡아먹겠구나라고 말하였다. 막내 왕자는 이제 이 몸을 버릴 때가 돌아왔음을 깨닫고 용맹한 결단으로 큰 원을 세웠으며, 훌륭한 자비심으로써 마음을 닦았다."

자기 희생해 타인 구하는 '사신구사'
기원 후 성립된 대승 본생담의 특징
굶주린 범에 자신 보시한 살타태자
돈황 막고굴 등에 벽화로 그려 전승
이차돈 순교 전 해당 본생담 전래돼

〈현우경〉과 〈금광명경〉에서 살펴본 살타태자의 보시를 기록한 '사신사호 본생담' 은 큰 줄거리는 같으나, 새끼 호랑이의 숫자가 두 마리 또는 일곱 마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55년에 투르판(高昌)에서 엮어진 〈현우경〉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먼저 전해졌으며, 〈금광명경〉은 중국 내륙을 중심으로 전파됐다.

먼저 〈현우경〉의 내용을 도해한 '사신사호본생도' 는 3~8세기에 조영된 쿠차(庫車, Kucha) 지역의 키질 석굴 7·8·17·38·47·58·91·100·114·157·178·184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 4~5세기에 조성된 키질 석굴 38굴 '사신사호본생도' 는 마름모 형태의 화면 상부에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살타태자가 그려져 있으며, 하부에는 땅에 떨어진 살타태자와 굶주려 뱃가죽이 등에 붙어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한 마리의 어미 호랑이와 두 마리의 새끼 호랑이가 태자의 몸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려 보협인탑 탑신 부분에 새겨진 '사신사호 본생도' .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일본 법륭사 옥충주자에 있는 '사신사호 본생도' . 6세기에 조성됐다.

키질 석굴처럼 〈현우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는 '사신사호본생도' 는 고려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보협인탑(寶篋印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보협인탑의 탑신부 사면에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시비왕 본생도(尸毘王 本生圖)' , '수대나태자 본생도(須大拏太子 本生圖)' , '월광왕 본생도(月光王 本生圖)' 와 함께 '사신사호 본생도' 가 부조로 표현되어 있다.

석탑의 조각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탁본한 그림을 살펴보면, 오른쪽에는 절벽, 왼쪽에는 나무를 배경으로 주인공인 살타태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목을 나무 꼬챙이로 찔러 피를 흘리게 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그리고 태자의 오른쪽 다리 앞에 입을 벌리고 쳐다보는 어미 호랑이와 왼쪽에 마모가 되었으나 두 명의 새끼 호랑이가 표현돼 있다.

다음으로 〈금광명경〉의 내용을 도해한 사례는 돈황 지역의 막고굴(莫高窟) 석굴을 비롯하여 중국 내륙의 용문석굴(龍門石窟), 맥적산석굴(麥積山石窟), 문수산석굴(文殊山石窟), 경양 북석굴(慶陽 北石窟) 등지에서 4세기부터 오대시기인 10세기까지도 꾸준히 석굴의 벽면에 도해 되어져 왔다.

특히 돈황 막고굴의 경우 9·55·72·85·98·108·138·146·154·231·237·254·299·301·302·417·419·428굴 등의 많은 굴에 '사신사호 본생도' 가 현존하고 있어 해당 본생도의 유행을 짐작할 수 있다. 5세기 북주(北周) 시대에 그린 돈황 막고굴 428굴의 〈사신사호 본생도〉는 전형적인 중국식 표현기법으로 세 명의 왕자가 말을 타고 궁을 나와 숲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부터 살타태자가 자신의 몸을 굶주린 어미 호랑이와 일곱 마리의 새끼 호랑이들에게 보시하는 장면, 가족들이 막내 태자의 뼈를 보고 슬퍼하며 이를 탑으로 세워 공양하는 장면 등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길게 서술식으로 도해되어 있다. 그리고 6세기에 제작된 일본의 법륭사(法隆寺) 옥충주자(玉蟲廚子)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화면 맨 위에 살타태자가 굶주린 어미 호랑이를 위하여 나뭇가지에 옷을 벗어서 걸어놓는 장면이 보인다. 화면 가운데 부분에는 언덕에서 떨어지는 태자를 그렸고, 아래쪽에는 자신을 굶주린 어미 호랑이와 일곱 마리의 새끼 호랑이들에게 보시하고 있는 태자가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사신사호 본생도' 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도해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보협인탑 부조처럼 〈현우경〉을 소의 경전으로 한 경우와 옥충주자처럼 〈금광명경〉을 소의 경전으로 한 사례가 현존하고 있어 '사신사호 본생담' 이 경전에 상관없이 널리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삼국유사〉(三國遺事) 권3 '흥법(興法)' 의 '원종흥법 염촉멸신조' (原宗興法 厭觸滅身條)에 "염촉(이차돈)이 자신을 희생하여 중생들이 불법의 이익됨을 깨닫게 하려 하였다. 이때 왕(법흥왕)이 말하길 (과거에)스스로 피를 뿌리고 목숨을 끊어서라도 일곱 마리의 짐승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삼국유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이미 살타태자의 보시와 공덕행이 한반도에 전래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낮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박원자의 母情佛心 35 세상의 모든 이들의 어머니



▶ 한줄 요약
나의 어머니는 결단하면 바로 실행하라는 지론을 갖고 사셨다. 그 추진력으로 마을과 사찰의 대소사를 모두 챙기셨다. 어머니가 평소 바라던 대로 다음 생에는 사업가로 살아가시길 기원한다. 나의 어머니로 계셨던 인연에 감사하며.

“삶의 수많은 길에서 다시 만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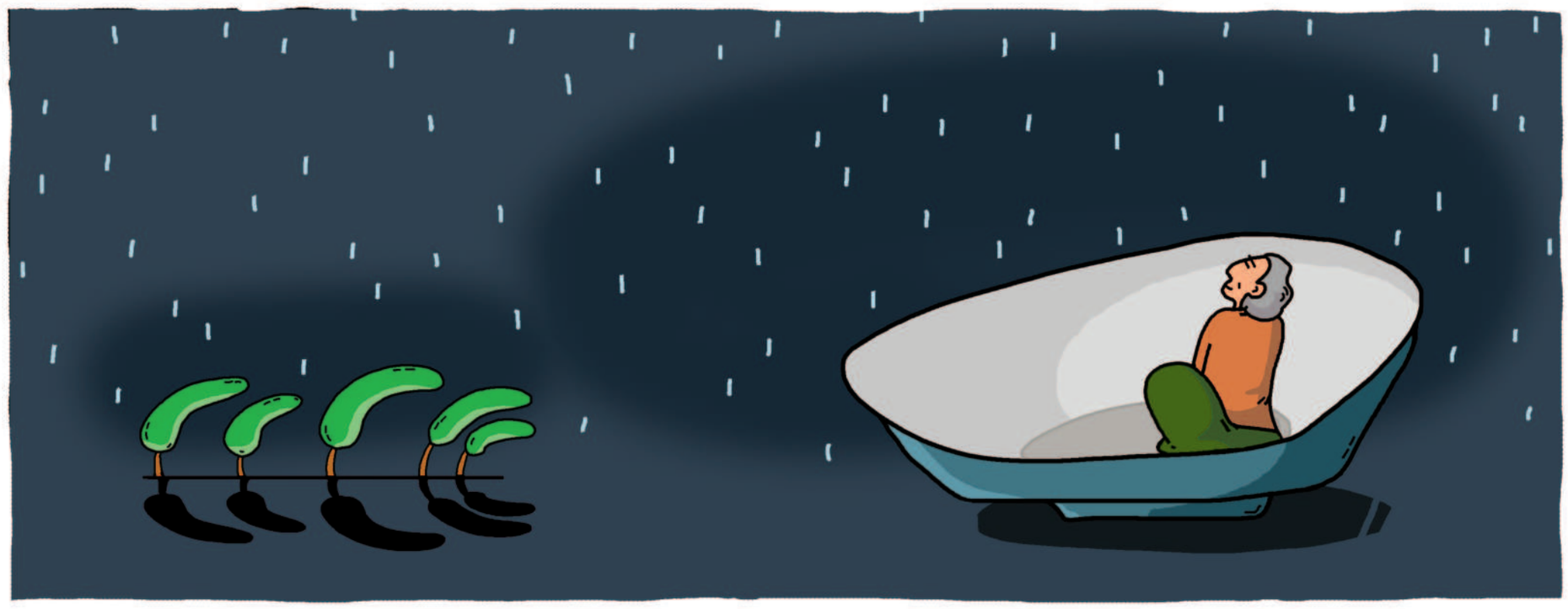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정불심’ 연재를 시작한 게 벌써 1년 하고도 6개월이다. 이제 35회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그동안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8년 전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 늘 죄송한 마음으로 그리웠던 어머니. 마지막 회는 세상의 보통 딸들을 대신해서 지혜롭고 불심이 깊으셨던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쓴다.

며칠 전 직장에 다니는 작은 딸아이가 카카오톡을 보내왔다. 이제 막 시작한 마음공부 강의를 듣고 다녀오면서 보낸 짧은 문자내용은 이렇다.

‘오늘 강의 듣다 눈물이 났어. 벅차오름을 느꼈어. 기적 같은 강의야. 무슨 복을 타고 난 건지 모르겠어.’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잔잔한 기쁨이 일었다. 진정한 도반이 되었다는 느낌이라고 할까. 엄마는 자식이 좋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더구나 마음공부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나의 어머니도 그러셨을 것 같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와 남편이 매일 경전을 읽으면서 절을 할 때 ‘두 사람 모습이 보기 좋구나’ 하며 흐뭇해하셨던 기억이 난다. 내가 수행자들에 대한 글을 쓰고 책을 낼 때도 무척 기뻐하셨다. 노인정의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길러보니 어머니의 심정을 알 것 같다. 자식이 마음 편하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늘 아쉬움이 많았던 어머니는 당신보다 많이 공부한 자식들을 보며 뿌듯하셨을 것이다.

어머니는 8년 전, 89세에 돌아가셨는데 여든이 넘어서부터는 여기저기 편찮은 데가 많았다. 병원 출입도 잦았다. 그러다보니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그 즈음 내가 물었다. “엄마, 다시 태어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망설임 없이 바로 답하셨다. “그땐 많이 배워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열아홉에 시집와 아들 셋, 딸 둘을 낳고 농사를 짓던 아버지를 도와 농부의 아내로 사셨던 어머니는 그것으로 만족하기에는 아쉬운 게 많았던 것 같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5일장이 서던 읍내에 나간 적이 많다.

어느 날 어머니는 화려한 옷감을 쌓아놓은 포목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면서 말씀했다. “나도 이런 거 하면 잘 했을 텐데.”

아마 그랬으면 정말 큰 사업가가 되셨을 것이다. 옷감을 사다가 딸들의 원피스를 만들어 주곤 했는데, 작은 보석 같은 것들을 박아서 어찌나 맵시 있게 만들어 입혔는지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어머니의 솜씨에 감탄하고는 했다. 어머니는 만능이었던 것 같다. 농사짓는 그 바쁜 와중에도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어 먹고, 장을 담그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지금도 나는 어머니가 담근 청국장 맛을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했다. 텃밭에 나가 배추를 뽑아다 끓인 된장국, 잘 삶아진 시금치나물이며 비름나물 무침은 또 얼마나 맛있었던가.

음식솜씨가 좋다보니 동네 잔칫집에 늘 불려 다니셨다. 또 볏가리를 얼마나 잘 쌓았는지, 우리 집 것은 물론 남의 집 것까지도 쌓아주느라 바빴다. 동네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러 인생사를 털어놓으면 척척 상담을 해주었고, 동네에 싸움이 나면 불려가서 해결사 노릇을 했다. 그러다가도 안 되면 경찰서로 데리고 가 해결을 보곤 하던 어머니였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은 ‘너희 엄마가 동네 변호사 노릇을 하니까 사무실을 하나 차려주어야 한다’ 고 주장하셨다. 사리분별이 뛰어나고 영민한 분이었다.

어머니에게 들은 말 가운데 가장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이 ‘단결(斷決)에 해라’ 는 말씀이다. 결단을 내렸으면 바로 행동하라는 의미였던 것 같다. 어머니가 그렇게 사신 분이다. 우물쭈물 미루는 법 없이 바로 밀고 나가 행동에 옮기며 살았던 분이다. 그랬기에 소작농이던 가난한 아버지에게 시집와 이미 40대쯤엔 200여 호 되는 동네에서 가장 많은 농토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절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내가 고등학교 때쯤인 것 같다. 어머니는 다니는 절에 신도회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불사에 앞장섰다. 퇴락한 시골 절을 새로 짓는 데 나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주를 권했고 당신도 시주했다. 오랫동안 신도 회장을 맡으면서 어머니가 한 일은 불경공부가 아니었다. 불사를 하는 데 열중하고 절에 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다니셨다.

어머니가 기도를 하신 건 성지순례를 할 때였던 것 같다. 어머니의 부처님은 이름난 전국의 법당에 앉아계신 부처님이었을 테니까, 그곳에서 밤새 자식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인도를 다녀왔을 때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면서 물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는 어떻더냐?”

두고두고 회한에 젖는다. 어머니를 모시고 인도에 가지 못한 것을. 유행가 가사처럼 영원한 줄 알았다. 어머니가 오래 내 곁에 계실 줄 착각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단결에 하라’ 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과보였다. 그래도 우물쭈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며 살아온 자식을 꾸짖지 않았던 어머니, 그래도 너는 배웠으니까, 배워서 부처님 말씀도 잘 아니까 하시고 귀히 여겨주셨던 어머니였다.

> **다시 태어나면 사업가 되고 싶단 母**
> **‘결단하면 바로 실행하라’ 평소 지론**
> **마을, 사찰 대소사 모두 챙긴 대장부**
> **‘내생엔 사업가로 살아가시길’ 기원해**
> **내 어머니로 계셨던 인연에 감사하며**

어머니의 불교를 보면서 생각해보곤 한다. 그 많은 이론을 알아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많은 것을 몰라도 하나면 분명히 알면 되고 그 하나를 실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영어 발음이 도저히 안 돼서 수첩 전화번호 난에 슈퍼마켓을 ‘스푸막개’ 로 적어놓고, 안티프라민을 ‘안트푸라미’ 라고 발음하셨던 어머니지만, 그래서 다음 생엔 많이 배우고 싶다고 하신 어머니였지만, 현재가 전부였고 그 현재에 분별없이 무심히 삶 전부를 던지며 사셨던 어머니의 불교가 진짜 불교였다고 생각한다. 뜻은 모르지만 ‘마하반야바라밀’ 을 정성껏 종이에 쓰곤 하셨던 어머니의 신앙이 대학을 나온 나의 불교보다 훨씬 건강하고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든다.

몇 년째 한 달에 한 번씩 1박2일 정진을 하러 태안의 수행처 묘금륜원에 가고 있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멀리 우리가 살았던 동네가 보인다. 평택 평야 너머로 보이는 동네가 보일 때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난다. 올 1월 어느 토요일, 마침 그곳을 지나는데 도반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베트남의 틱낫한 스님이 열반에 드셨다는 내용이었다. 스님의 열반송이라며 함께 보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다. 신산하면서도 위대한 삶을 살았던 스님께서 외친 ‘자유’ 라는 단어가 가슴에 사무쳐 들어왔다. 그날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핑계 삼아 한참 눈물을 쏟았다.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이 몸은 나를 가둘 수 없다.
나는 경계가 없는 생명이다.
나는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다.
저 넓은 바다와 하늘, 수많은 우주는 다 의식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는 시초부터 자유 그 자체였다.
생사는 오고 가는 출입문일 뿐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숨바꼭질의 놀이일 뿐이다.
그리하여 내 손을 잡고 웃으면서 잘 가라고 인사하자.
내일, 어쩌면 그 전에 다시 만날 것이다.
근본자리에서 항상 다시 만날 것이다.
삶의 수많은 길에서 항상 다시 만난다.

–틱낫한 스님

그 후에도 여러 번 스님의 열반송을 읽었다. 음미할수록 언젠가 내가 세상과 작별하게 될 때 내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처럼 느껴지곤 한다. 나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며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삶의 수많은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경계 없는 생명이니까. 안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무심코 곁에 있던 큰딸에게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려나’ 하고 묻자 딸이 바로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는 지금 파리에서 태어나서 계실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평소에 옷을 잘 입으신 멋쟁이셨으니까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실 거야.”

엄마를 위로한 말이었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다. 많이 공부해서 다음 생엔 사업가가 되고 싶다던 꿈을 이루시길 기도한다. 나의 어머니로 계셨던 인연에 감사하며. 〈끝〉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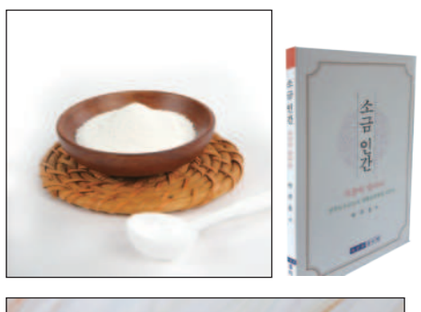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상담환영합니다!

빙의제거와 신기운 제거는
최고 전문가(빙의 전문의)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 (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직업상 묘이장, 파묘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이상, 정신이상 증세,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심함), 잦은 우환,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 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공여래장은 진공, 불공여래장은 묘유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㉔ 여래장(如來藏)

"세존이시여, 여래장의 지혜는 바로 여래의 공(空)한 지혜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장(如來藏)이란 일체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큰 힘을 가진 보살(大力菩薩)들로서는 본래부터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두 가지 여래장의 공한 지혜가 있사온데, 세존이시여, 공한 여래장(空如來藏)은 온갖 번뇌장을 여의었거나 벗어났거나 다른 것이고, 공하지 않는 여래장(不空如來藏)은 항하의 모래보다도 많은 여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불가사의한 불법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두 가지 공한 지혜로 모든 큰 성문들은 여래를 믿습니다. 일체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공한 지혜는 네 가지 뒤바뀌지 아니한 경계에서 움직이는 것이므로 일체 아라한이나 벽지불은 본래부터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고통이 소멸하는 것은 오직 부처님만이 증득하시는 것이니, 일체 번뇌장을 깨뜨리고 온갖 고를 멸하는 도를 닦는 것입니다."

여래장의 지혜를 공여래장(空如來藏)과 불공여래장(不空如來藏)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하고, 공하지 않는 것이 실은 하나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빈 병이 하나 있으면 병 속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없다는 뜻에서 "병이 비었다"할 때 이는 공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병이 비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병 속에 넣을 수 있다" 할 때는 비어 있는 자체가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뜻에서는 "공한 것이 공하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공과 불공의 두 가지 측면이 똑같이 빈 병 하나에 동시에 있는 것이다. 여래장도 이와 같은 이치에서 공과 불공으로 설명된 것이다.

원래 공(空)이란 말은 범어 순야(舜若, sunya)를 번역한 말로 모든 존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 불변의 속성이나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곧잘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말로 이 '공'이라는 말을 써 왔다. 특히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먼저 공관(空觀)을 닦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의 이치를 터득해야 반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이 공이 무상(無常)과도 연결되어 설명되는 경우도 있다. 〈대품반야경〉에 "무상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무상이다.(無常卽是空 空卽是無常)"는 말이 나와 있다. 〈반야심경〉에도 '오온개공(五蘊皆空)'이라 하여 공을 통하여 지혜를 완성한다고 하였다. 승만 부인의 말 가운데 '여래의 지혜는 바로 여래의 공한 지혜'라는 말이 번뇌가 완전히 공해진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가리키는 말로 무명주지가 남아 있지 않은 여래장을 말한다.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공한 지혜가 네 가지 뒤바뀌지 아니한 경계에서 움직이는 것"이란 말은 네 가지 전도, 곧 열반의 네 가지 덕(德)인 상(常), 낙(樂), 아(我), 정(淨)에 대하여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 부정(不淨)의 중생의 현실을 부정하고 열반을 구하려는 편협한 소견을 두고 한 말이다. 말하자면 진속불이(眞俗不二)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다. 불교의 여러 종파마다 공의 이치를 천명하고 공관을 닦을 것을 권장해 왔다. 그러나 자칫 공에 치우쳐 공견(空見)에 빠지면 이것이 병이 되어 수행을 그르친다고 말해 왔다. 그래서 공병(空病)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공견을 가지거나 공병에 빠지면 인과(因果)를 부정하게 되고 나아가 중도를 등지게 된다. 그래서 공하다는 것도 공하다는 뜻으로 공공(空空)이라는 말이 나왔고 〈금강경〉의 대의를 밝히는 말에 나온 것처럼 아공(我空), 법공(法空) 다음에 구공(俱空)이라는 말을 썼다. 아공이나 법공 그 자체도 공하다는 것이다. 규봉 종밀(圭峰宗密, 780~841)은 〈원각경소〉에서 "공에 대하여 공이라는 견해를 빠지면 전도가 된다. 공에 집착하지 않아야 실법(實法)이다"고 하였다. 또 공의 참뜻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온 말이 진공묘유(眞空妙有)이다. 진정한 공 속에는 미묘한 것이 갖춰져 있다는 말이다. 〈승만경〉의 공여래장은 진공이고 불공여래장은 묘유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여래십호 부처님 공덕 단절 없이 염해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㊼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2. 염불수행할 때 염(念)의 대상과 관(觀)의 대상

불자 여러분! 염불수행을 할 때 염(念)의 대상은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을 통해 "염(念)의 대상은 부처님의 공덕이고, 관(觀)의 대상은 부처님의 형상이다."고 분명히 염(念)의 대상과 관(觀)의 대상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염불수행을 할 때의 염(念)의 대상은 부처님의 공덕이며 관(觀)의 대상은 '부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열 가지 이름인 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즉 여래십호(如來十號)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래십호(如來十號)

부처님의 열 가지 이름 중 첫 번째 '여래(如來)'는 '모든 부처님들과 같은 길을 걸어서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응공(應供)'은 '온갖 번뇌를 끊어서 인간과 천인으로부터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덕을 갖춘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 '정변지(正遍知)'는 한역으로는 등정각(等正覺), 정등각(正等覺), 정등정각, 등각(等覺), 정각(正覺)이라고 의역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부처님은 일체의 모든 지혜를 두루 갖추셨기 때문에 세계와 우주의 모든 물질과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모두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명행족(明行足)'이란 말의 의미는 부처님은 계정혜 삼학을 두루 구족하여 무상정변지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열반경〉에서 설하기를, "'명(明)'이란 '더없이 높은(無上)', '바르고 두루 아는 것(正遍知)'을 의미하며, '행족(行足)'은 '각족(脚足)'이란 의미로 계·정·혜 삼학(三學)을 가리킨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의 삼명(三明)을 밝게 아는 지혜와 신체, 언어, 행동 등이 다 함께 완전한 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선서(善逝)'는 '잘 갔다'라는 의미인 '호거(好去)', '묘왕(妙往)'이라고 의역하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세계를 벗어나서 열반의 저 언덕에 잘 가셨으므로 다시는 생사의 바다로 돌아오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세간해(世間解)'는 부처님께서는 참다운 깨달음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능히 세간의 모든 일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무상사(無上士)'는 부처님은 일체 중생 가운데서 가장 높아서 '위가 없는 대사'라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조어장부(調御丈夫)'는 부처님은 대자(大慈)·대비(大悲)·대지(大智)로써 중생을 대하시며 부드러운 말, 간절한 말, 또는 여러 가지 말을 써서 중생들을 잘 통제하여 올바른 길을 잃지 않도록 잘 인도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 '천인사(天人師)'는 부처님은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열 번째 '불세존(佛世尊)'의 불(佛)은 '깨달은 사람' 즉 각자(覺者)라 번역하며, 세존(世尊)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친 불세존(佛世尊)은 아홉 가지의 원만한 덕상을 갖추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염불 수행을 할 때 이와 같은 여래십호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처님의 공덕을 단절 없이 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㉔ 고귀한 구함의 경 ①

생로병사, 누구에게도 온 적 없다

"생겨남에 묶여 있지만 생겨남에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을 알고, 생겨남에 묶여 있지 않은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늙음에 묶여 있지만 늙음에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을 알고, 늙음에 묶여 있지 않은 위없는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병듦에 묶여 있지만 병듦에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을 알고, 병듦에 묶여 있지 않은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죽음에 묶여 있지만 죽음에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을 알고, 죽음에 묶여 있지 않은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슬픔에 묶여 있지만 슬픔에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을 알고, 슬픔에 묶여 있지 않은 위없는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오염에 묶여 있지만 오염에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을 알고, 오염에 묶여 있지 않은 위없는 안온인 열반을 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삶 속에서 불가항력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믿음을 내고 도와 달라 기도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일 것이다.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누구나 자신에게 생로병사가 있다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면 생로병사가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하지만 막상 버리려고 하면 말처럼 쉽게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 쉽게 버려지지 않는 마음이 수행의 시작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쉽게 버리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궁구해 보라. 어떤 때는 나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이지만 나라고 하기에 망설여진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실수나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나의 일이 아니기를 내심 바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왜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실 두 마음 어디에도 내 마음이라 할 것이 없다. 만약 내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마음은 나를 번민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 한다면, 그 선택 자체가 번민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는 없다.

선택 없는 삶이 있을까? 아마 찾기 어려울 것이다. 선택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면, 그 마음과 함께 있는 물질, 느낌, 인식, 욕구, 의식을 나의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알면 생로병사에 묶여 있는 것은 오온이지 스스로가 아님도 알 수 있다. 수행을 하든 삶을 살든,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기만 하면,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의문들이 일시에 알아지고 사라질 것이다.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이라는 것은, 어느 쪽은 옳고 어느 쪽은 옳지 않다든가, 어느 쪽은 좋고 어느 쪽은 나쁘다는 선택의 위험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이다. 개체의 옳고 그름은 힘의 작용이지 진리의 작용이 아니다. 진리는 옳고 그름이 없다. 왜냐하면 진리는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타난 적이 없으므로 묶여 있지 않은 위없는 안온인 열반의 구족을 알게 된다.

수행을 '묶여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서 풀려나는 것'으로 알고 시작하면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존재는 텅 비어 있으므로 어떤 것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그래서 풀어야 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묶여 있는 것이 없는 줄 알고 무엇이 무엇으로 묶는지를 통찰로 꿰뚫어 본다면 더 이상 풀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님이 드러날 것이다. 수행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세월이 흘러간 만큼 실망감도 크겠지만, 물들 수 없는 것을 물들이는 자를 살필 줄 알면 항상 웃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생로병사 누구에게도 온 적 없었는데
생로병사 벗어나려 무던히 고생만 하였네.
산천초목 나타났다지만 그 나타남 오온의 망상임을 모르니
허구한 날 사라지는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울었네.
나타나고 사라짐 어디에도 그러한 것 있은 적 없는 줄 알고 나니
열반이 있어 열반이라 말하는 것 아닌 줄 아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심장구멍·고혈압·호흡곤란까지…
기로에 선 어린생명

스리랑카에서 온 말리트씨 딸 미실캬라 태어나자마자 치료실 행
3000만원 병원비로 지불…매일 100만원씩 갚아야 할 1500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93호 | 17 | 전면광고

선지식은 지혜로운 의사와 같다. 증상에 따라 약을 주어 우리 마음의 병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열반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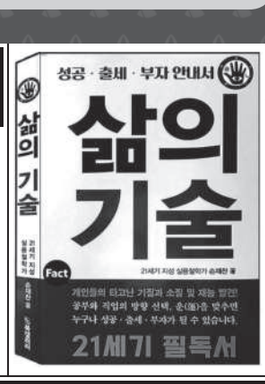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347-5950

신심있는 공양주 모십니다.
울산 남구
010-4773-0849

10년전 구례 사성암 주지스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법명 진실스님
속명 김용균
010-7515-4630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보시금 35만원
010-2204-8375

영남 범음·범패 교육 도량

– 49재 · 천도의식 · 바라작법등 –
※교육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3시간)
팔공산 구화사 아카데미 교육원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532번지
문의 010-9421-9364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대구사무실 서울잠실사무실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특수한 기도법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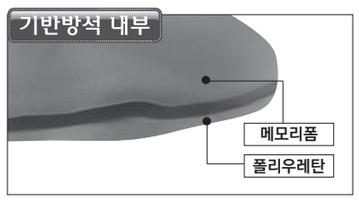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93호 | 18 | 전면광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업을 따라 살아간다. 좋은 씨앗을 뿌렸든 나쁜 씨앗을 뿌렸든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본생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40억5천
◎ 위치 : 부산시포교원
◎ 입지좋은근린상가
◎ 건평 : 약100평
◎ 주차,공원,아파트
◎ 매가 : 12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의령 사찰 매매입니다.
- 부지 총면적 : 1,361㎡(411평)
- 건물 총면적 : 91.88㎡(27평)
- 가액 : 2억3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노스님 몸아픈 관계로)
- 가전제품 보시 •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체인점 상가주택

- 충남 아산 핵심요지 대도로 코너 체인점 임대, 상가포함공실無
- 대지 263㎡(80평), 건평 472㎡(143평)
- 융자 3억8천 승계, 인수금 2억8천
- 년 순수익 3천3백만원 태종공인중개사 유승열

010-8348-28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금곡면
- 대지 : 402평, 법당 : 30평 산신당 : 5평, 요사 : 방 5개 화장실 : 2개(외부1/내부1) 주차공간 많음
- 가액 : 2억 7천 (땅값만 받습니다)

010-7661-4060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포 교 원 안 내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 상가2층 단독 60평
- 삼존불, 탱화, 인등, 사무실, 공양간, 스님방, 화장실3개
- 주차공간 좋음
- 가액 1억2천만원

010-2857-2811
010-7457-281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전시 신탄진 톨케이트 인접
- 대지 : 53.5평
  1층 : 요사채 25평
  2층 : 법당 22평
- 주차공간 매우좋음
- 가액 : 3억 3천

010-9058-6163

도심속 예쁜 사찰

- 위치 : 인천광역시 신석로 111번길 3-1
- 건물 : 2층 법당 30평, 1층 요사채 30평, 지하 20평
- 가액 5억(절충)

010-9286-1008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체, 공양간
- 가액 : 급매(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용주면 봉기리
- 대지 : 300평(종교부지) 농지 : 114평(논)
- 목조법당 : 25평 요 사 채 : 20평
- 가액 : 4억원

010-4835-173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작고 아담한 사찰
- 건평 : 약 50평
- 건물 3동, 대웅전, 방3개, 스님큰방, 용왕당, 산신당
- 스님 몸이 건강 안좋음
- 가액 : 7천 5백(조정가능)

주지 010-7506-86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들길87-5
- 대지 : 200평, 구건물 2동
- 임법당 20평, 방 3개
- 가액 : 9천5백만원

010-7795-98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상가
- 4층 60평, 법당, 주방, 방2, 주차장 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내방후 절충가능 약 5백만원

010-7109-4661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상남도 동해면 바닷가 근접
- 암자 220평, 텃밭도 약간
- 보증금 : 2천만원 월세 : 35만원

010-5553-938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쌍정길99-8 불국정사
- 대지 : 206평, 건물 : 전통사찰형태2층콘크리트건물, 1층:방4,주방,욕실(40평) 2층:법당(30평), 산신각(5평) 정원:5층석탑,스님 건강상급매
- 가액 : 3억5천

010-2611-6522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603번지) • 대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물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용왕당 • 요사체 : 황토방 2동, 슬라브 2동, 해우소 1동(문 5개)
- 모든 건물은 무건물입니다. • 유실수 다량감, 자두, 호두, 매실, 두릅, 오디, 머위, 산에는 약초, 송이버섯 • 도로 포장, 차량진입, 주차장(10대), 주변에 개발지역 • 가액 5억

010-9203-1165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314쪽 | 12,6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⑫ 서울 은평구 수국사 수국

꽃을 보며 일렁이는 측은지심

'자생식물(186과 943속 3,933분류군), 외래식물(41과 213속 409분류군), 재배식물(241과 1,525속 10,364 분류군) - 전체 1만4706분류군'

위 내용은 대한민국 식물 이름의 통일화 및 표준화를 이루기 위해 국가수목유전자원 목록심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명기되어 있는 국가표준식물 현황이다.

자생식물은 일정한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야생식물, 외래식물은 국외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생지를 벗어나 생육하는 종, 재배식물은 국내에 의도적으로 유입하여 키우고 있는 식물을 일컫는다.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식물은 자연상태의 생명체가 아니라 인공 교배로 만들어진 외국산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식물이 여름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수국이다.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소개되어 있는 수국을 보면, 수국과 낙엽 활엽 관목으로 중성의 토양에서 잘 자라며, 강한 산성 토양에서는 푸른 꽃을 알카리성 토양에서는 붉은 꽃을 피운다고 한다. 반음지 식물로서 습기가 많고 비옥한 곳을 좋아하며 내공해성이 강하고 병충해가 없어 관리하기가 쉽다는 내용도 있는데, 수국의 속명 'Hydrangea'는 그리스어로 '물', 종소명 'Macrophylla'는 '아주 작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작은 꽃들이 많이 모여 있고, 물을 아주 좋아하는 꽃이 되는데 한자 이름은 수구화(繡毬花)이다. 비단에 수를 놓은 것 같은 둥근 꽃이란 의미인데, 지금 우리는 수국(水菊)으로 표기하고 있다.

우리가 발생시킨 지구 온난화로 올 여름 얼마나 뜨거울지 걱정만 앞서다 그래도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국이 떠올랐는데, 느닷없이 20여 년 전 가본 수국사가 아른거린다. 랩에 운율과 리듬을 부여해주는 라임이란 문장 기법을 좋아하는 탓으로 돌리며 단독주택 길을 조금 헤매다 수국사에 들어선다. 마을과 인접해서 그럴까, 일주문도 천왕문도 없이 곧바로 황금빛 대웅보전과 마주하게 되니 둔탁해지고 있던 눈가가 묘하게 밝아지는 것 같다.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守國寺)는 조선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의 극락왕생을 위해 경릉(敬陵) 동쪽에 정인사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다가 연산군 10년에 화재로 소실되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고, 몇 번의 중수 과정을 거치다가 1900년 고종의 내탕금으로 지금의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수국사 경내에 핀 수국.

황금 사찰이 된 시기는 1992년 한자용 스님이 회주로 부임하면서 수국사 중흥을 표방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황금사원으로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단청을 황금으로 시작하였다고 한다. 법당도 부처도 황금빛을 띠게 한 건 황금이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고 지혜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불교를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수국사를 보았을 때 가진 시선은 금가루를 긁어가고 싶은 물질적 욕망이 일면서 동시에 그 욕망을 자극해 수국사에 황금이 쌓이기를 바라는 과정이 그려진 곱지 않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불교가 일군 사찰의 형상들은 모두 상징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깊은 의미를 오로지 색(色)으로만 읽어내려고 했던 지난날이 부끄럽기만 하다. 그러니까 수행 중이었던 부처님은 갈비뼈가 드러난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깨달은 이후 하루 한 끼 정도 식사를 하면서 마른 몸으로 불법을 전하셨을 것이고, 열반에 든 뒤 수행에서 신앙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덕스러운 불상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즉 현세에는 복을 빌고 내세에는 좋은 세상으로 간다는 종교 색채를 띠면서 살이 붙은 성도상이 되었고, 거기에 금빛을 입힌 건 부처님의 몸은 깨달음으로써 타고 있는 불 그 자체이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광명의 고정색인 금을 발랐다는 것이다. 그 의미를 실감나게 접하기 위해 사찰을 금색으로 빛나게 했다는 것에 다다르게 되면,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 또한 더욱 빛나게 될 것 같다.

금처럼 변하지 않는 경지를 갈구하면서 경내를 걷다가 숲에서도 빛나고 있는 초전법륜상 쪽으로 다가가는데, 꽃이 진 불두화 건너 수국이 보인다. 황금에 온 마음을 빼앗겨 수국을 잠시 잊었다가 마주한 하얀 꽃들을 보니 이들의 꽃말인 변덕과 진심 가운데 나는 무엇일까 반성 섞인 성찰을 해본다.

수북한 꽃을 보면 열대에서 온 것 같지만 원산지는 중국이고, 이 중국 수국을 가져다가 여러 형태의 수국을 만들어낸 나라는 일본이다. 그 과정에서 꽃의 본래 기능인 생식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말은 수국에는 암술도 수술도 없고, 씨를 만들 씨방도 없다. 그래서 석녀(石女), 무성화, 중성화, 꾸밈꽃 등으로 불리는데, 번식을 해나갈 수 없다는 걸 보면 측은지심이 든다. 그런데 오로지 관상을 위해 생명을 왜곡시킨 것 또한 우리 인간들이다. 그래서일까, 내게로 파고드는 측은지심에 황금빛이라는 상상의 인식을 덧칠해보며 봉산 숲으로 간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⑫ 박정대의 '가을 저녁寺'

'먼 백제 처녀'와 '팔만대장경'을 찾아서

가을 저녁寺/ 박정대

나는 걸어서 가을 저녁寺에 당도합니다
한 사내가 물거울에 자신의 낯을 비추어보며 추억을 빨래하고 있는 가을 저녁입니다
잉걸불처럼 타들어가는 개심사 배롱낭구 꽃잎에는 어느 먼 옛날 백제 처녀의 마음도 하나 들어 있을 테지요
저녁 예불 드리던 개심사 범종 소리는 서른두 번째에서 한참을 머뭇거립니다 마지막 종소리는 가을 저녁寺로 불어오는 바람에게나 내어주고요
가을 저녁寺에 호롱불이 돋는 地上의 유일한 저녁입니다
한 사내가 연못거울에 어두워지는 낯을 비추어보며 끝내 자신이 걸어가 당도할 집을 생각하는 참 고요하고 투명한 가을 저녁입니다
나는 걸어서 가을 저녁寺를 내려옵니다

– 박정대 시집, 〈아무르 기타〉, 문학사상사, 2004

'가을 저녁寺'라니, 정말 멋들어진 상상이고 비유다. 이 세상 어디에나 있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을 저녁寺'. 필자도 그렇게 '가을 저녁寺'에 가본 적이 있다. 아니, '겨울 저녁寺'에도 가보고, '봄 저녁寺'에도 가보고, '여름 저녁寺'에도 가보았다.

'저녁寺'의 맛은 계절마다 다르다. '봄 저녁寺'는 풋풋하지만, 좀 밋밋하다. '여름 저녁寺'는 싱그럽지만, 좀 나른하다. '겨울 저녁寺'는 깊지만, 좀 차다. 그런데 '가을 저녁寺'는 적막도 적막이려니와, 애수(哀愁)와 여수(旅愁)가 깊다. 굴뚝 연기가 퍼지면 더욱 그렇다.

박정대 시인은 "추억을 빨래하"며 어느 '가을 저녁寺'에 갔을까. 충남 서산의 개심사(開心寺)였던 것 같다. 그리고 당도한 "개심사 배롱낭구 꽃잎"에서 "옛날 백제 처녀의 마음도 하나" 발견한 것 같다. 시인이 아니면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살 떨리는' 묘사다.

기막힌 것은 종소리다. 절집에서 새벽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 범종을 친다. 범종소리는 부처님의 음성을 상징한다. 그런데 새벽에는 왜 28번을 치고, 저녁에는 33번을 칠까?

이유가 있다. 새벽에 28번을 치는 것은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힌 세계'인 욕계(慾界) 6천(六天, 여섯 개의 하늘나라)과 '몸이나 물질을 살펴 선정을 닦는 고귀한 세계'인 색계(色界) 18천(十八天, 18개의 하늘나라), '물질이 아닌 대상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얻어진 고귀한 세계'인 무색계(無色界) 4천(四天, 4개의 하늘나라), 도합 3계 28천을 부처님의 음성으로 다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다.

저녁에 33번을 치는 것은 제석천왕이 머무는 선견궁을 포함한 도리천 등 33개 나라에 부처님의 음성이 널리 퍼지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가을 저녁에 당도한 '저녁寺'에서 때마침 범종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서른두 번째 종소리에서 마지막 서른세 번째 종소리로 넘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또 가슴을 친다. '가을 저녁寺로 불어오는 바람에게' 대신 종을 치라고 내어주기 위해서다. 불교의 맛과 멋은 바로 그런 여유와 느림과 배려와 자비에 있다. 그것이 불교의 지혜(반야)이고, 불교의 매력 포인트다.

이 시를 음미하노라니, 문득 선시 하나가 떠올랐다.

"家在天涯遠(가재천애원)/ 迢迢七日程(초초칠일정)/ 隨風桐葉落(수풍동엽락)/ 和露菊花明(화로국화명)/ 簫索三秋晩(소색삼추만)/ 飄然一錫輕(표연일석경)/ 應知故山鶴(응지고산학)/ 待我月中鳴(대아월중명)"

조선시대 침굉(枕肱, 1616~1684) 선사의 시이다. 뜻을 새기면 다음과 같다.

"하늘 끝 멀리 있는 절/ 아득하고 아득한 이레 거리/ 바람 따라 떨어지는 오동잎/ 이슬에 어려 더 밝은 국화/ 삼추 늦가을은 쓸쓸히 저물고/ 날렵하게 가벼운 석장 하나/ 그래, 알겠구나 고향 산 백학이/ 나를 기다리며 달밤에 울 것을"

이 대목에서 따라붙는 동요 하나.

"깊어가는 가을밤에/ 낯선 타향에/ 외로운 맘 그지없이/ 나 홀로 서러워/ 그리워라 나 살던 곳/ 사랑하는 부모 형제/ 꿈길에도 방황하는/ 내 정든 옛 고향" -〈동요 여수(旅愁)〉

박정대 시인이 그렇게 당도한 '가을 저녁寺'가 바로 이것이다.

스님들에겐 부처님과 절집이 영원한 '정든 옛 고향'인 것을, 박정대 시인은 이미 눈치 챈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먼 백제 처녀"라는 살내음도 하나 덧붙인다. 이 얼마나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적 마음인가. 그게 바로 보살심이고 해인(海印)에 다름 아닌 것이다.

박정대 시인은 그 마음을 〈전등寺〉를 통해 다시 한 번 전하고 있다.

"세상의 밤은 모두 전등사 아래로 온다// 대낮의 폭설과 폭설에 뒤덮인 세상의 지붕들을 이끌고 와서는/ 하루 동안 어깨 위에 쌓여 있던 눈발들을 툭툭, 팔만대장경처럼 전등사 앞마당에 흩뿌려놓는다// 어둠과 함께 나의 生도 전등사 아래로 돌아온다// 선수항 지나 반달 언덕쯤, 석모도 떠나가는 옛사랑의 뱃길 전송하던 눈발이며 허공의 유목민처럼 떠돌던 눈송이 몇 개도 어둠과 함께 전등사 아래로 와 깃든다// 지상을 떠도는 눈발들은 지금 모두 전등사 아래로 온다// 전등사에 밤이 찾아와, 누군가 오래 淑香傳을 읽는 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들도 다시 전등사 아래로 돌아오는데// 낮에 내리던 눈발 아직도 여전히 남아서 서성거리는 이 밤을/ 한 잔의 찻물 속에서 고요히 끓어오르는 이 겨울밤을, 잠들지 못한 내 마음이 끝내 불 밝히고 있는// 이 地上의 전등寺 한 채" -('전등寺' 전문, 〈아무르 기타〉)

자유자재한 박정대 시인의 시적 에너지와 불심(佛心)이 '식스 센스'[Sixth Sense, 육감(六感)]로 다가온다. 폭설로, 폭설과 함께 '먼 백제 처녀'를 찾아, '팔만대장경'을 만나러 저녁 '전등寺'에 가고 싶은 날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먹는 법
한 포씩 500ml물에 타서 수시로 나누어 마신다
나만의 요리에 조금 뿌려 먹는다
컵에 조금씩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차처럼 나누어 마신다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❻ 진정한 부의 법칙



▶한줄요약
명상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인 부분에서 부터 변화시킨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 생활명상서 시작

명상은 삶을 변화시킨다. 그것도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우리는 보통 삶을 변화시키겠다며 무언가를 쟁취하려 한다.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말이다. 그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기르거나 꼼수를 쓰거나 인맥을 넓힌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다. 대부분은 부질없이 자신을 소진하고 학대하다가 별다른 소득 없이 지리멸렬해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명상을 통한 삶의 변화에는 따로 승리자와 패배자가 없다. 누구나 이룰 수 있다. 명상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궁극의 지점은 '나'라는 존재가 본래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 온전함과 충만함 속에서 매 순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루의 일상을 마음챙김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챙김과 함께할 수 있다면 삶이 점점 건강해질 것이다.

특히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마음챙김은 효과가 더욱 크다. 걷기, 달리기, 운동하기,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등 우리는 매일같이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간다. 그때마다 마음챙김을 바탕으로 신체 활동을 하면 역동적인 명상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음챙김을 하면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다. 일과를 보람차게 마친 뒤에 잘 자고 푹 쉬는 삶이 계속될 것이다. 현대인들은 뭔가를 열심히 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끊임없이 성취해야만 자기의 존재 의미가 드러난다는 생각에 좀처럼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쉬지 못하고 쉴 줄 모른다. 그러나 쉼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성장과 도약을 위한 핵심 자원이다. 충분하고 제대로 된 휴식 없이는 '인생'이라는 장거리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 진정한 휴식은 뇌까지 쉬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허망한 욕심 때문에 부지런히 머리를 굴리면서 제풀에 피곤해지거나 번뇌를 자초하지 않아도 된다. 명상은 그러한 진짜 휴식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러면 실제 명상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필자가 개발한 〈하루명상〉 앱에서는 약 1,000여 개의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상 생활속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꾸준히 하면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생활속 명상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명상은 매일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굿모닝감사미소 명상'이다. 하루의 성공은 하루의 첫걸음인 아침에 달려 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그날 하루의 기분이 좌우된다. 아침나절에 몸과 마음을 돌보고 다잡는 굿모닝감사미소 명상을 통해 마음을 챙기면서 활기차고 편안한 하루를 준비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침대에 누운 상태로 온몸에서 힘을 뺀다. 원한다면 의자에 앉아서 해도 좋다.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이완하고 등과 허리의 긴장을 풀어준다. 두 팔은 몸통 옆에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눈을 지그시 감는다. 그리고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온다. 천천히 코로 숨이 들어와 목구멍을 지나도록 한다. 이어서 숨이 가슴과 복부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복부와 가슴에서 목을 지나 코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본다. 이렇게 호흡의 움직임을 충실히 느끼면서 몇 차례 들숨과 날숨을 이어간다. 은은하고 감미롭게, 아침 일찍 떠오르는 태양과 상쾌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상상해보라. 바다도 좋고 산도 좋다. 그곳이 어디든 아침의 상쾌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상상한다. 밝고 따뜻한 태양 에너지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을 만끽한다. 상쾌한 공기가 느껴지고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간다. 아침의 상쾌한 공기와 에너지가 코끝을 살짝 때린다. 그 상쾌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는 감각을 느껴본다. 태양을 계속 상상하면서 호흡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라 온몸에 밝고 따뜻한 기운이 퍼져가는 것을 느껴본다.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를 짓고, 마음의 눈으로 눈꼬리를 살짝 내려 입꼬리와 연결해준다. 그렇게 하면 흡사 얼굴 전체가 둥근 태양처럼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얼굴이 안락하고 은은한 미소의 사랑스러움으로 가득해진다. 나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태양의 마음이 되어본다. 마음속으로 다음의 문구를 따라 되뇌면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본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하루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똑같이 되뇌어본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아차린다.

물질적 세속 성공 기준
존재가치 향상 못 시켜
마음챙김 의한 '삶' 변화
인생의 풍요로움 제공해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내 몸과 마음에 지금의 이 상쾌함과 따뜻함이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기억하며 명상을 마무리한다. '내가 무심코 지나쳐버린 오늘은 시한부 환자들에겐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는 말이 있다. 내게 주어진 하루는 그만큼 소중하고 절실하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인생의 또 다른 출발이다. 행복한 인생이란 당장 눈앞에 있다. 바로 오늘부터 잘 사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안으로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일, 우리는 이것을 일과 삼아서 해야 한다. 모든 것이 최초의 한 생각에서 싹튼다. 이 최초의 한 생각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매일 아침 그날의 한 생각을 감사미소 명상으로 싹틔우기를 바란다.

두 번째 소개할 명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음미하며 알아차려보는 '마이크로 산책 명상'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알고 보면 우리는 하루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걷는 데 쓰고 있다. 출퇴근을 하거나,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외근을 나가거나,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러 가거나, 어떤 일을 하려면 일단 걸어야 한다. 우리에게 걷기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대부분의 사람은 걷는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걷는다. 또 걷다 보면 여러 생각에 빠져 주변의 사물들을 세세히 보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마이크로 산책 명상은 걷기에 기반한 마음챙김 명상법이다. 하루 중 10분 정도의 시간을 활용해서 실천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다. 마이크로 산책이란 공간의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걷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뉴욕과 브루클린 등의 도심에서 인기를 끌었던 명상법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의 주변을 사랑하는 것이다. 일례로 자신의 생활 반경 50m 정도의 짧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아주 작은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1년 365일을 카메라에 담는 식이다. 그렇게 하면 하룻밤 만에 새로운 잎이 돋아났거나 꽃이 핀 것을 볼 수 있고, 땅속에서 개미들이 기어 다니는 모습을 여유롭게 살펴볼 수도 있다. 비가 내린 다음 날 깔끔하게 변해 있는 주변의 모습과 바람이 불면 정처 없이 가볍게 날아다니는 흙먼지들까지, 호기심과 열린 감각을 가지고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음미하듯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매일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렸던 내 곁의 경이로움이 새삼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바로 한번 실천해보기를 권한다. 먼저 10분 정도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걸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 호젓하게 산책한다. 평소보다 조금 느린 걸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걷도록 한다. 걸으면서 발바닥이 지면과 접촉할 때 느껴지는 촉감, 발의 무게감을 느껴본다. 그리고 주의를 돌려 자신이 걷고 있는 주변 풍경을 관찰해본다. 뭔가를 애써서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보여진다'는 심정으로 바라본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무구한 아이 같은 자세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다. 코의 감각으로 주의를 가져가면 나를 둘러싼 환경의 냄새가 더 선명하게 전해진다. 이때도 마냥 받아들이기만 한다. 통제하거나 거부하거나 변경시키려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홀가분하게 경험한다. 이때 경험에 집중하고 있는 나의 감각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게 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이크로 산책 시간을 통해 잊고 있던 자신의 존재를 마음챙김하며 느껴보기 바란다. 지혜와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존재한다!

어느 한 순간이 즐겁다고 해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 순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축적해 가는 과정속에서 이루어진다. 새삼스럽게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다. 본래 자기 마음 속에 잠재해있던 행복의 불씨를 생활속 명상을 통해 키워 나가는 것이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 불씨를 키워나가다 보면 웬만한 바람으로는 꺼지지 않는 커다란 불꽃이 될 것이다. 누구나 그 불씨는 가지고 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려면 이 지혜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명상에서 지혜가 생기고, 명상이 없으면 지혜도 사라진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생활속 명상을 통해 지혜를 얻어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제 당신이 마음의 불씨를 살려야 할 때이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대행 스님

부처 중생이 따로 없고 모두 한마음으로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고 있다

마산의 여러분과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와서 맨바닥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시라면 뭐는 못 하겠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이렇게 맞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여러분의 그 길잡이를 맞이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지금 누가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가는지 그것을 종잡을 수 없어서 미래의 정신세계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물질에만 여념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정신계를 한 번도 실험해 보지 않고, 나를 뒤돌아보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자유스럽지 못하게 사는 거지요.

오늘 이렇게 마산에 왔으니 상식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문제들을 말씀드리지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거기 사람들은 불교라는 것이 만날 미신만 숭상하고 그러는 종교인 줄 알았답니다. 거기에는 일본 불교, 티벳 불교, 기독교, 가톨릭교, 통일교의 여러 분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그때 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다."라구요. 상점 간판마다 이름이 있듯이 종교도 그와 같습니다. 내 종교가 옳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지 만약에 귀머거리가 "나는 뇌성벽력이 울리고 천둥이 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나는 천둥 치는 걸 모른다. 그러니 천둥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귀머거리 아닌 사람이 듣고는 "아, 천둥 번개가 왜 없느냐. 지금도 천둥이 쳤다. 네가 못 듣는 거지."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불교라고 할 때, '불'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가 말하고 서로 화목하게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도 바로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아닌 게 하나도 없고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똑같으니 그 아픔이 똑같고, 아픔이 똑같으니 부모자식지간 또는 형제지간도 모두가 다 똑같을 겁니다. 벌레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저런 벌레도 생명이 있고 귀중하지요.

또 한 가지는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고 이 세상만사의 살림살이가 우리의 근본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 이 사실도 또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무상하다고 하지요. 부서지고 깨지고 변하고 없어지고 죽고,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이라고 말하는 이치입니다. 우리 사람 살아나가는 도리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직결돼 있는 우리 한마음이 어떻게 돼야 하나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토막토막 끊어서 했는데, 두서없는 말이라고 흉보지 마시고 잘 새겨들으세요. 인연성,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상점에 가서 뭐를 사도 인연이요, 꽃을 봐도 인연이요, 마당을 걸어도 인연이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과 인연이요, 불을 봐도 불하고도 인연이요, 모두가 인연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연에 따라서 같이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에 있어서는 크고 작고 못나고 잘나고 높고 낮고 이런 게 둘이 아니요, 동서가 둘이 아니요,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요, 지렁이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둘이 아니요,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을 했죠.

> 만봉봉에 연꽃 피어 싱긋 웃으니
>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다 집어넣었더라.
> 한마음 도리에 근본이 들었으니
>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모든 생명과
> 모습들은 다 거기에
> 한마음, 한법, 한마당, 바로 한발로
> 디뎠느니라.

그런 이치가 있듯이 말입니다. 지금 불바퀴가 돌아가는데, 수없는 불바퀴가 돌아가고 별성들이 반짝거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도 조그마한 별들이, 생명들이, 모습들이, 의식들이 전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몸뚱이는 지금 스러져 가고 있을 겁니다. 송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어디서 생겼나? 이게 인과성, 인연성에 대한 얘깁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살던 인과, 즉 말하자면 악과 선은 모두 여러분 속에 있으니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게 치밀기도 하고, 타의에서 들어오는 유전성이나 세균성이나 영계성이나 업보성이나 인과성이 내 안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전부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을 보신다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실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가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고 지켜보신다면 미래에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아마 짐작하시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과 선은 거기에 뭉쳐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멸도 사제법을 설하신 거지요. 고(苦)라는 것이 고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덩어리를 누가 그렇게 지었느냐 이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짊어지고 나왔는가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끌어 드리는 공부는, 마음은 체가 없으니 마음과 마음, 의식들을 한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라는 겁니다.

'한마음' 하면 모든 내면세계나 외부세계를 한데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생명 있는 거, 마음을 움죽거리는 거, 말 없이 말을 이심전심으로 전달하고 돌아가는 무정물, 식물 이런 모든 것들의 그 마음들이 한데 모여서, 모두 이 안에 있는 생명들의 그 의식들, 마음들이 같이 한데 모여서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한마음' 하는 것은 모두가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한마음!' 하는 겁니다. 한 부처님께서 한 꽃을 들었을 때에 그 꽃 안에 이 세상만사가 다 들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두서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뒤를 잘 재서 '하나'로 돌아가신다면 됩니다. '하나'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봤을 거고, 어떻게 상대성 원리가 있을 거고, 어떻게 부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늘이 있다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지, 모든 그 자체를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일시무시요 일종무종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이 자체가 발자취를 짊어지고 다니지도 않고, 자취마다 없어집니다. 모든 게 공해서, 말을 했으면 과거로 금방금방 돌아갑니다. 생각 하나 잘하면 구덩이에서 빼낼 수 있고 생각 하나 잘못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 마음으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꼼짝도 못 하게 하는 여러분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저 지구 바깥으로 벗어나려 한다면 못 벗어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마음으로 집에 갔다 오라고 하면 갔다 올 수 있으시겠죠. 사실 눈 뜨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도 심안으로는 이 세상만사를 다 보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은 세상만사를 다 탐험하면서 다 듣고, 삼라만상 대천세계 그 모든 생명들의, 모습들의 그 말을 이심전심으로 다 듣고 다 움죽거린다고 그랬습니다.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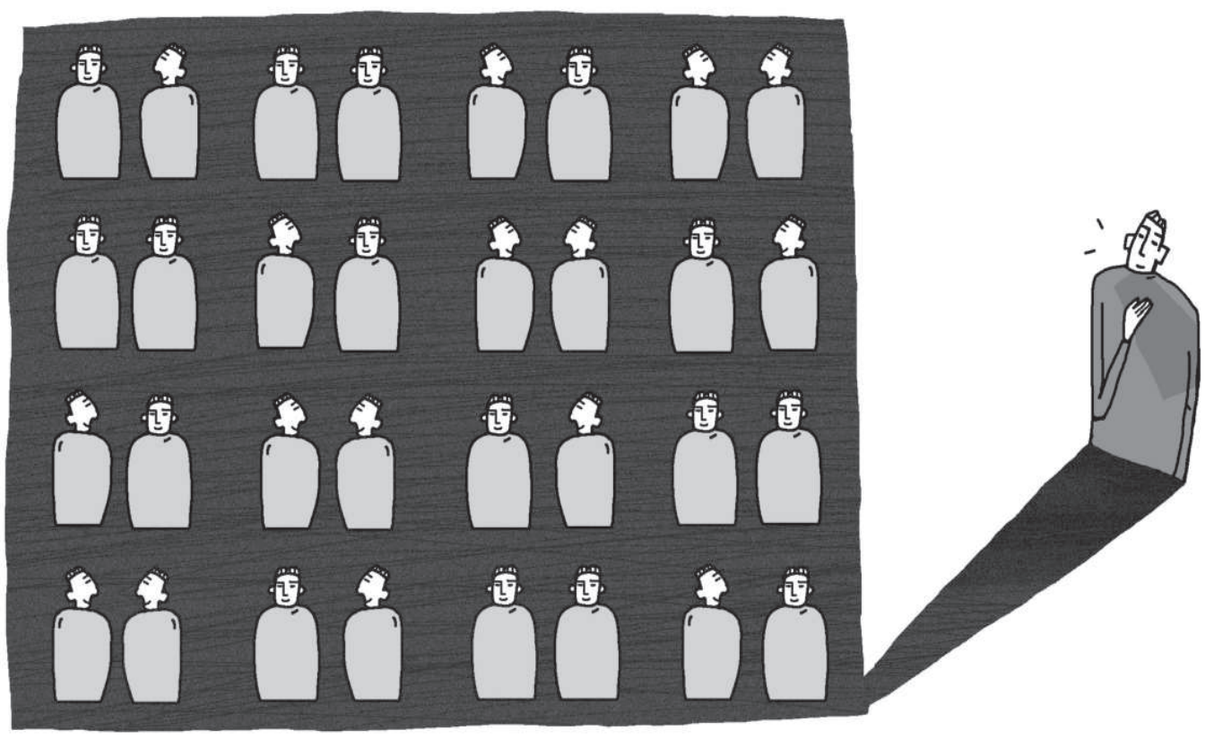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여여하고 바로 실상이며 실천인 것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여러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나쁘고 좋고 그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처 중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대 성인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체 부처가 따로 있다 생각하고 또 조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조상은 따로 있고, 부처는 부처대로 따로 있고 법신은 법신대로 따로 있고, 문수 말입니다. 보현은 보현대로 따로 있고 약사는 약사대로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기 놓고 빌지 않으면 안 되고 조기 놓고 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넓게 지혜를 가지고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삼학은 삼학대로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계도 정에 들고 혜도 정에 들었으니, 그 정마저도 모두가 공해서 쉴 사이 없이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니 어떤 걸 할 때 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모두가 공이라고 했습니다.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쓸 양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한테 아마 다 전달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들어보시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컴퓨터도 있고, 숙명통이라는 그 자체를 컴퓨터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는 탐지기와 또 신족통, 즉 말하자면 오고 감이 없는 팩시밀리, 또 천이통 즉 무전통신기, 그리고 우리 천체망원경 천안통, 이 다섯 가지를 바로 오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신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다 재료로 주어져 있고 그 시스템이 다 돼 있다는 얘깁니다. 어서 귀가 트이고 눈을 떠서 여러분이 자유인이 돼야만이 흐뭇하게 살 수 있고 싱긋이 웃으면서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섯 가지 시스템의 재료는 무엇이냐. 여러분은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재료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믹서기로 비유한다면 재료가 있어야 거기다 넣고 갈죠. 그런데 재료도 있고 믹서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 오신통의 시스템은 바로 믹서기나 똑같다는 얘깁니다. 어느 거든지 들어가면 그냥 갈려 나오는 자동적인 기계와 같습니다. 우린 자동적인 기계와 같다 이겁니다. 무심 도리의 자동적인 기계와 같은 이 자체는 여러분이 과거에 사실 때, 지금 우리가 살듯이 살 때에…, 이거부터 얘기해야겠군요.

미래의 과거는, 미래의 정신세계에서 볼 때에 우리 지금 현재가 과거입니다. 이 과거에서 볼 땐 미래고, 미래에서 볼 땐 과거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정신세계와 이 지금 현실 세계가 둘이 아니게 여러분은 그렇게 모두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교차로를 가지고 있단 얘깁니다. 밤과 낮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응용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생각에 모두가 몰두해서 한마음으로 걸림 없이 여여하게 돌아갈 수 있는 능력만 얻는다면…. 그것도 자기 마음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해서 물리가 터지는 게 아니고, 또 늦게 왔다고 그래서 물리가 안 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하시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과거에 입력됐던,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자꾸자꾸 나오는 거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팔자 운명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고 자꾸 그렇게 병고, 가난, 그 모든 고통과 이름을 갖게 했는가?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 팔자와 모든 것은 거기에서 다 나오죠. 시시각각으로 나옵니다. 요만한 것 가지고도 싸움 안 할 것도 싸움을 하게 만들어서 그냥 분란을 마구 일으키게 조작을 하는 그놈들이 어느 놈들인가. 바로 내 속에 들어 있는 내 놈들입니다.

내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을 한마음 속에다 되맡겨 놓고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해라.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낫게 해라. 행복도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서만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가 행복을 갖다 줘라.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하는 것도 너고,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너다.' 하고 믿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재료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시는 데에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아, 이것도 거기서 나온 것!' 하고 놓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남이 따귀를 때렸어도 때릴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거기다 놓을 수 있는 마음! 내가 없다면 어떻게 상대가 나를 때릴 수 있을까요? 내가 생겨나서 있으니까 나를 때렸지요. 소가 언덕이 있으니까 비비고 가지 괜히 비비고 가나요?

첫째는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잘해도 내 탓이요 못해도 내 탓입니다.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있고, 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고, 이 세상이 다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듯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 들어서 이 세상을 설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라면 거기다가 다시 맡겨 놓아서 입력이 다시 될 때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니까, 인과니 유전성이니 영계성이니 세균성이니 하는 모두가 무너지고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카세트에 넣었던 것도 되넣으면 앞서 넣은 게 없어지죠? 그렇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 드리는데도 모르신다면 난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무너뜨린다면 팔자나 운명이 붙을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병고가 붙을 자리도 없어요.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불바퀴처럼 돌아가는 데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불바퀴의 뜻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모르시걸랑 지금 시쳇말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모두가 그렇게 공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몸뚱이도 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혹성이 있기 때문에 별성이 여기에 있죠. 우리의 마음들은 별성인 겁니다. 우리 몸뚱이가 사대로 흩어진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별성도 옷을 벗고 바로 같이 이 세상에 환생을 해서 또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그릇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과거에 살아온 그 차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소리죠.

시공이 없이 돌아가면서 체가 없는 마음 마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마음들이, 즉 말하자면 원자 속에서 입자가 많이 나와서 그 입자가 분자가 돼서 이 혹성 바깥에 이렇게 세 겹으로 여섯 겹으로 첩첩이 싸고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신통을 블랙홀이라고 그러면 돌아가는 그 자체를 운영하는 누진통을, 즉 레이더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레이더망은 무엇을 합니까? 들이고 내는 소임을 맡았고 통신하는 소임을 맡았고, 결정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물질이니까 또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지구 바깥에도 그렇게 자기 소임을 다하면서 입자가 바로 분자로 화해서 바깥을 지키고 있는 그런 3단계가 있는 까닭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도 혹성입니다. 그런데 이 3단계의 소임을 어디에서 다하고 있느냐. 법계에서 하는 겁니다. 이 법계는 무엇이냐. 모든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들이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그렇게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세균성이나 영계성이 지금 이 허공에 꽉 차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다닐 수 있고 발자국을 떼어 놓을 수 있고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균성이나 병균 이런 것들 뭐, 수많은 것이 다 그냥 접해서 사람이 못 살죠. 그런데 (가슴을 짚으시며) 여기서 지켜준단 말입니다.

> 어서 귀가 트이고 눈을 떠서 자유인이 돼야만이
> 여러분이 흐뭇하게 살 수 있고
> 싱긋이 웃으면서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고맙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도 고맙고 불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고 흙도 고맙고, 당장 살아야 하니까요! 네? 우리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들한테도 다 고맙죠. 소임을 다 해 주니 말입니다. 또 세포 하나하나가 있는 것만이 고마운 게 아니라 오장육부, 바로 대장, 소장, 위장, 간장, 콩팥, 방광, 척수, 척추, 이자, 식도, 이 모두가 전부 자기 소임을 다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고맙죠. 심장으로부터 그 모든 작용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렁이나 벌레를 보면 징그럽다고 하실 테죠? 그런데 그런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내가 두서없이 말하더라도 잘 꿰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수억겁 광년 전으로부터 미생물에서부터 쫓고 쫓기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다른 것이 다 생기고 제일 나중에 생겼다고 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뒤집고 뒤집어서 인간까지 됐으면…, 인간으로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으로 살다가 좌천하는 수도 있죠. 만약에 독사가 된다면 독사의 집착과 그 의식이 그냥 거기에 모두 동결돼 가지고 습을 벗어나지 못해서 인간으로 환토를 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죠. 그 모습을 벗기가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물이 다 똑같은 단물이라 할지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는 것이고 선한 여러분이 잡숫는다면 아주 좋은 피가 될 것입니다. 아주 맑은 이슬이나 비도 그 물은 똑같지만 약초가 먹는다면 사람을 살리고, 독초가 먹는다면 독이 돼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 한생각을 잘하면 바로 약초가 될 것이고 마음 한번 잘못 쓴다면 독초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칼로 팍 찔러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한 생각을 잘못해서 한 사람의 목을 끊을 때에 일곱 식구 여덟 식구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히 조심하고 모든 것은 주인공에 맡기면서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집일 뿐이지, 당신이 움죽거리라고 하는 대로 움죽거릴 뿐이지 진짜 나를 움죽거리게 하는 건 당신뿐입니다.' 하고 거기다가 다 맡기고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가정이 화목해지고 얼마나 모두가 빛이 나실 건지 모를 겁니다, 아마.

잘못된다고, 잘못됐다고, 잘못한다고 해서 그게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라 금방 잘못하다가도 잘되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잘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잘하다가도 금방 남한테 악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고정됨이 없는, 끝 간 데 없는 진리를 탐구하면서…, 각각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도리가 바로 참선이요 좌선입니다. 바로 이것이 끝 간 데 없는 진리를 실험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여여하고 바로 실상이면서 실천인 것입니다. 따라서 도가 따로 없이 우리 생활이 도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건둥건둥하고 돌아갑니다. 요다음에 질문하실 때는 진실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진실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사세요.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독립군이 죽어 가면서 "까마귀야 까마귀야, 날 보고 웃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비웃고 또 나를 이렇게 죽여서 산산조각을 낸다 한들 나야 어찌 너희들이 뺏으랴. 나야 어찌 죽으랴. 영원할 것이니라." 했더랍니다. 그처럼 우리는 자기의 근본, 바로 자기 생명의 근본 그 자체가 영원한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6월 28일 국내 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마음이 향기를 내는 책, **법보시 주문**은 02)732-1520 으로 하시면 됩니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12,600원** (배송비 별도)

모네의 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현불 논단 |

우리 모두가 경전이다



윤재웅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

만해, 애국지사 · 선사이자 시인
6월 29일은 만해 선사의 열반일
이를 맞아 선사 숨은 공적 소개

만해가 1917년 번역 〈채근담〉엔
한국 선가 전승된 특이한 시 수록
백파 〈작법귀감〉에 같은 시 담겨

이 시를 읽은 성철 스님 출가 결심
훗날 "붓다의 상태 노래한다" 평해

6월 29일은 만해 한용운 선사 열반일이다. 만해는 조선왕조의 국운이 기울어가던 1897년 8월 29일에 태어났고, 광복 직전인 1944년 6월 29일에 입적했다. 인생 전체가 암울한 시대와 열악한 사회 환경 속에 놓여 있었다. 만해는 나라걱정과 함께 불교 집안을 좋게 만들려 평생 애썼다. 그는 화엄학을 비롯한 불교 교학에 밝은 선지식인 동시에 깨달음을 경험한 선사이자 독립정신에 투철한 애국지사였으며, 아름답고 애절한 시를 남긴 시인이기도 했다. 만해의 공적과 후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또 커서 세월이 갈수록 밝게 빛날 것이다. 오늘은 선사의 열반일을 맞아 잘 알려지지 않은 그의 숨은 공적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 한다.

만해는 한문에 밝았다. 아홉 살 때 천체 운행에 관한 정교한 숫자 배열이 한참이나 이어지는 〈서경〉의 '기삼백' 부분을 줄줄 외웠다. 암기력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세상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덕분이었다. 불문에 출가해서는 각종 한적들을 수월하게 읽고 묘리를 빨리 터득했다.

그는 '한 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개념을 한국불교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기획자이며 본인 스스로 불교경전의 요체를 정리하여 〈불교대전(1914)〉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한 편집자이기도 했다. 또한 명나라 홍자성의 〈채근담〉에 풍부한 주석을 달아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정선강의채근담(1917)〉이다. 이 안에, 한국 선가에 오래 이어져 오는 특이한 시 한 편을 소개하는데 이 시를 읽은 한 청년이 가슴에서 호기심이 일어 대자유와 영원의 기미를 알아차리더니 후일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그가 바로 퇴옹성철이다.

"내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네. 펼쳐보니 글자도 하나 없는데 늘 밝은 빛을 뿜어낸다네.(我有一拳經 不因紙墨成 展開無一字 常放大光明)"

이 시는 20세기에 와서 일반대중에게 처음 소개되는 우리 불교시문학사의 명편이다. 만해가 이 시의 저자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 찾아보니 불교의례집인 〈작법귀감(1826)〉 속에 영가를 천도하기 위한 대목에서 진설되는 진혼게송이었다. 즉 귀신 제도를 위한 시인 셈인데, '이 경전의 묘리를 알면 좋지만 그리 못하면 〈묘법연화경〉을 들려주겠다' 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교종보다는 선종의 입장을 강화한 경우라 하겠다.

〈작법귀감〉의 찬술자는 백파긍선이다. 백파 스님 역시 화엄학에 밝았고 선에도 높은 경지에 올랐다. 하지만 이 게송이 백파의 창작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작법귀감〉이 불교집안에 오래 전해오는 의례들을 모아서 정리한 책이기 때문이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보니 서산대사가 지은 〈운수단(1588)〉 안에서 이 게송이 똑같이 발견되었다. 여러 면모를 보아 이 게송은 서산대사인 청허휴정의 창작으로 짐작된다. 〈운수단〉 역시 불교헌공의례집이므로 〈작법귀감〉과 성격이 같다. 그러니 죽은 이를 위한 기도의식에 사용되던 불교집안 내부의 진혼게송이 몇 백 년을 흘러 내려와서 젊은 청년을 수도승으로 이끌어낸 '출가 권유의 시' 가 된 셈이다.

만해 선사가 이 시를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한국불교사는 퇴옹성철을 배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명품 시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부처님 진리를 전한 만해의 공적이 어찌 크지 않으랴. 성철스님은 후일 자신의 젊은 날을 회고하며 이 시가 바로 '붓다의 상태' 를 노래한다고 했다. '상방대광명' 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글자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내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깨침 상태의 에너지 현상' 이 아니겠는가. 서산대사의 진혼게송이 어찌 귀신에게만 효험이 있겠는가. 성철 스님은 이렇게 바꾸어서 읽는다. '우리 모두가 경전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정성이 곧 성공 비결

정성(精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정성을 다 바쳐서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정성에는 진실한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감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인(茶人)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간 일이 있습니다. 이 집의 거실에는 한글로 '정성' 이라고 써진 액자가 걸려 있더군요. 가훈으로 삼은 이유를 물었지요. 주인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성스럽게 하고나면 성취감은 더 커져요.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라도 정성을 다해 하자는 뜻으로 가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온 몸과 온 정신으로 한 가지 일에 몰두 할 때 진실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정성이 없다는 말은 전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림 · 최주현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충 썰렁썰렁 하는 가하면 어떤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될까요? 자신의 값어치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씨앗은 뿌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마침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것입니다.

정성은 곧 정진이요, 추진력입니다. 음식 만드는 데, 옷을 만드는 데, 교육하는 데, 사업하는 데, 환자를 돌보는 데 정성의 에너지를 올곧게 쓴다면 모든 것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정성의 힘이 이렇게 위대함에도 정성을 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심전력으로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나의 온전한 마음을 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몰입하다보면 희열과 함께 충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상에서 자주 이런 순간을 경험한다면 행복의 수치는 높아집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점점 큰일을 맡게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열심히 일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게 되고, 당연히 나의 연봉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조계종 여성신도 전국조직화 기대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6월 23일 창립됐다.

조계종 사상 첫 중앙신도회장을 두차례 역임한 김의정 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임명하고,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부회장인 초격 스님 등 스님들을 대거 지도법사로 임명했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는 조계종 여성신도를 중심으로 한 전국조직이 꾸려지는 점에서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잇다.

그동안 종단은 여성포교의 입장에서 여러 단체들을 설립했지만 전국조직화에는 실패했다. 중앙신도회 조차 전국교구신도회 구성이 2021년에서야 완비된 상황이었다. 일부 엘리트 여성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만 있었다. 불교 내 여성불자들의 역할은 공양간부터 사찰 곳곳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일부 여성에 대한 조직화만은 아닐 것이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에서 기대가 되는 점은 각 지역별 대표와 지도법사가 위촉됐다는 점이다.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함께 사찰순례를 비롯해 지역봉사 등 대사회활동으로 여성불자들의 지평을 넓혀주길 바란다.

이러한 설립 취지가 김의정 초대회장 취임일성에서도 드러난다. 전국에서 신심에 기반해 곳곳에서 활동하는 여성불자들의 힘이 하나로 모아지길 기원한다. 이와 함께 여성불자 중 사회적 위상이 높은 이들도 전국여성불자회에 합류하여 더 큰 원동력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시대는 여성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불교도 마찬가지다.

유구한 역사 속에 우리 불교를 지탱해 온 여성불자들의 힘으로 날로 쇠퇴해가는 불교 교세를 확장하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길 고대한다.

명상엑스포, 바른 수행 전하는 계기로

지난 6월 17~19일 동국대 일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바로 서울국제명상엑스포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해제되면서 어느 때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대중들을 찾았다.

2박 3일 간의 프로그램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명상과 과학의 학제간 연구 현황을 살필 수 있었던 컨퍼런스였다. 무엇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하버드 의대 IMP가 공동 주최로 참여해 세계 석학들의 강연들이 이어졌다.

영상콘텐츠와 명상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대중들이 명상을 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세대 · 직업 · 상황별 응용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도 의미가 크다. 급부상하고 있는 명상산업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관도 눈길을 끌었다.

최근 '맥마인드풀니스(McMindfulness)' 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불교를 기반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자비심이나 사회문제를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의 몸과 마음의 풍요로움에 집중하는 현대 마음챙김에 대한 비판이다.

불교의 명상은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을 기반한다. 이는 '지혜를 구해 중생을 구제하겠다' 는 대승불교 정신의 요체다.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자본주의 명상상품' 과는 그 차이가 명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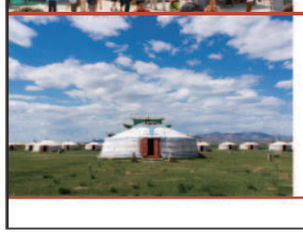
명상 범람 시대에 올바른 명상을 세상에 전할 종교는 불교가 유일하다. 동국대의 국제명상엑스포가 바른 명상 수행법을 전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 명상은 대중화와 세계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2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함께하니좋다
단체 및 개인 상담문의 02-365-7747
모두가 기다린 성지순례,
다시 함께 떠나실 준비 되셨나요?
*일정 등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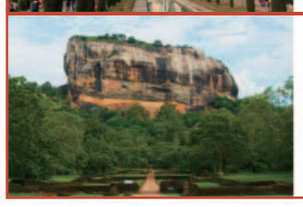

라오스 6일
#핵심코스로 즐기는
#라오스의 과거와 미래


방콕/파타야 5일/6일
#화려한 랜드마크
#천혜의 자연환경


몽골/바이칼 8일
#드넓은 푸른 초원
#시베리아의 푸른 눈


캄보디아 5일
#세계문화유산
#천년의 신비


인도 9일
#상상보다 더 놀라운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8일
#신성한 유적지
#반짝이는 인도양의 나라


하와이 7일
#황금빛 태양 아래
#편안한 휴식


터키 9일
#동서양의 교착지
#찬란한 역사의 땅


이탈리아 9일
#유구한 문화유산
#반짝이는 지중해

‘장중비결’의 3차 업데이트

친견 상담용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육임 AI’

**2001년 3월에 첫 출시하여 20년동안 판매해온 신뢰성 있는 제품,
1년 반여 공백기간 동안 기다려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희소식,
2022년 친견 상담용 어플 출시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과학성을 담보했습니다.

본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육임 AI’**는 과학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매년(無限永久的) 매월 매일 매 시간별로 찾아오거나, 전화 받거나, 찾아가 만나는 사람의 내외면사(內外面事)를 말 한마디 묻지 않고 듣지 않고도 그 시간만으로 미리, 먼저, 즉시 판단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같은 시간의 첫 사람에 이어 여러 사람을 상대하더라도 **‘다음사람’** 단추만 누르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해당 인의 익명성(匿名性)이 가감 없이 드러납니다. 상대의 신변사는 물론 당면사의 성부(成否) 및 해결력이 제시되어 있고, 일생사의 태생 성, 정체성, 과거궤적(過去軌跡), 그리고 적합(適合)한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문자, 가서 만난 자, 전화 걸어온 자에 대해 출생연월일시를 물어보거나 받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묻지 않고 듣지 않고도 이것들이 가능한가? 또 어김없이 맞는가? 간편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인가?**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 묻거나 듣지 않고도 미리 먼저 속속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생애(生涯)라는 시간성과 몸체라는 공간성은 개체존재로서 항상성(恒常性)을 갖습니다. 여기에 역동성(力動性)이라는 만남(遭遇)으로 타인과의 이해관계를 이루며 천변만화(千變萬化)적 역정(歷程)이 사회성에 간여되어 누구는 부귀하고 누구는 빈천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왜 이루는 것은 크고 많고, 작고 적고 하는 차이가 생길까, 왜 신분이 나뉘며 부귀빈천 할까? 만고이래(萬古以來) 불변법칙과 변화법칙을 생성(生成)하는 해- 달- 별- 땅의 기운과 물리력은 사람을 포함한 유정만물(有情萬物)에 시간을 허용해 일생(一生)을 갖게 하고 공간성에 포섭(包攝)된 몸체를 부여해 위치 장소를 오가는 주체와 객체로 오늘, 내일, 다음 달, 내년, 10년 후를 대비하고 기약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용(利用)하면 내 것을 크게 이루어 많이 쌓을 수 있고 이 것을 도외하면 번번이 무너져 빈천하게 됩니다. 이 같은 차원은 법칙을 품수한 대자연성으로 유한하고 흠이 따르는 인격성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내 손(手)안의 ‘육임 AI’ 그 누구든 익명성(匿名性)을 해체시켰습니다.

저희는 개개 적 시간성에 담긴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를 유추하고 공간성에 의해 운위되는 몸체의 극조 점(極組點)을 규명하여 방문자의 지난 행적, 현재실정, 다가올 결과를 **다양한 각도 및 항목으로 측정**했고, 이로서 방문자 본인만 아는 **‘익명성’을 적나라하게 해체**시킨바 되었으며, 다만 그 효과적 과실(果實)은 판단하는 각기의 목적과 역량에 맡겼습니다.

침범鬼 침해崇 산소탈(묘지 속 상태) 사망내력 대상육친을 명시했습니다.

즉, 방문(전화)자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사를 **초사**(初辭) 1.핵심 2.고전을 병용해 우리의 최초발언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했고, 인간사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 ‘할까 말까’에 대한 정직한 답(答)을 천기응집체인 **‘사과삼전’**의 결론으로 달았으며, **‘국수해설’**로 아쉽고 억울한 미결(未決)사안에 대한 해결방책을 명시했고,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며 냄새나 숫자도 없이 우리의 소원 사를 수시로 방해하는 **‘형이상**{形而上}’의 위해(危害)와 사망내력과 그 가족력(육친)을 냉정히 명기했습니다.

단박에 방문(전화)자의 남녀별 생업 가정 흥 · 쇠 여부가 판별됩니다.

이외, 아래에 나열한 항목마다 가감(加減) 없이 정측(正測) 했고, 상대방의 생업(生業)흥망, 가정성쇠(盛衰) 및 타개(打開)방법, 질병의 치(治) 불치 및 치료방위책(策)과,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안이더라도 피차(彼此) 이해입장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비밀사안’까지 끄집어내 각기의 역량에 맡겼습니다.

간편성과 정확도가 속 시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동 중이거나, 만난 즉석에서, 아니면 약속된 시간 전에, 미리, 휴대폰의 ‘아이콘’만 찍으면, 그날의 해당시간 화면에 자동(自動)으로, 부부 동시 색정, 1남 2녀 1녀 2남 삼각관계, 소송관재(승패여부포함), 권리강제양도, 직위해탈, 관재, 질병, 독신, 과부, 이혼심, 부부갈등, 각방부부 사 등과, 시보법(時報法)의 어떤 용건으로 찾아(전화)왔는가? 내정법(來情法)의 현재 처한 전체적실정은 어떻고 구체적 상황은 무엇인가? 등 과, 비밀 사, 고민 사, 소망 사, 성취 달성 사 여부 등 여러 내밀한 내용들이 뜨기 때문에, 인간사 어떤 문제든 즉시 즉각 먼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祈禱) 제의(祭儀) 치성(致誠) 부(符) 효과유무(有無) 적시되어 있습니다.

재언(再言) 드리자면, 이 앱 **‘육임 AI’**는 상대가 숨기는 신변사의 비밀, 도모사안의 대소규모, 당면소망사의 성부, 길고 짧고, 무겁고 가벼운 일의 좋고 나쁨, 맘먹은 일의 진퇴여부, 경영사 또는 진행 사에 있어 명(明)은 명대로, 암(暗)은 암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러 있는가? (**明의 시작-진행-절정-하향-明끝 여부, 暗의 시작-진행-절정-하향-暗끝 여부**)가 명료하게 적시되어, 계획과 방비를 **교시**(敎示)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친목 사회단체 국가 선출직(長)의 성품과 업무수행 결과 치를 예측했으며, 특히 형이상(귀신침범, 부정침해, 묘지 탈 여부)에 의한 작사(作事)위배, 병질고역(病疾苦疫)에는 치(**병지나감**), 불치(**신체부위개소**)를 명기하고, 이에 따른 **방지수법(기도, 천도, 구병시식) 효과 유무**를 달았으며, 소망성취(成就)이사이전 길 방(吉方-昇進 增産 貴人)을 지정했고, **상대방의 ‘나’에 대한 속심(內心), 즉 고집, 설득, 불성, 신뢰 여부**를 오차 없이 명기함으로서, 친견상담의 **대면력(對面力)을 높여놓아** 오랜 기간 써오신 분들로부터 가히 **백미(白米)라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영업직의 경우, 당일의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택 또는 직장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를 적시하고, **구재(求財) 길방(吉方)도 표시**했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에 즈음하여 극부(剋父) 극모(剋母)자녀 인지, 효성 출세자녀인지를 구별시켰고, 여기에 기준하여 **임신출산의 시기(年)를 조절하도록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어 남녀 각각의 **태생적 성품과 삶의 궤적을 간결 요약하여 정확히** 나타냈습니다. 혼인 사에, 남녀 각기의 **용모의 미추, 가문의 성쇠를 비교**하도록 했고, **남녀의 결혼시기**를 적시해 놓았습니다. 남녀의 **성감력(性感力)과 선호태위(選好態位)**를 적시했습니다.

속도성과 효과성의 강렬함이 백미입니다.

좀 더 조밀하게, **득실(得失)사**(이익이 될 자인가 손해(피해)나게 할 자인 가, 무능력자인가), **아타(我他)사**(본인이 저지른 일인가, 당한일인가), **미기(未旣)사**(이미 일어난 일인가, 다가올 일인가), **신구(新舊)사**(새 일인가, 오래된 일인가), **내외(內外)사**(바깥일인가, 내부가정사인가), **표리(表裏)사**(겉으로 드러내도 좋은 일인가, 뒤로 감추고 싶은 일인가), **충배(忠背)사**(충성할 자인가, 배신할 자인가), **진위(眞僞)사**(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천성선악(善惡)사**(선한자인가, 악한자인가, 보통인 자인가, 또는 선한 결말이겠는가, 악한 결말이겠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묶어놨습니다. 예정된 행사에 많이 모이겠는가, 적겠는가, 안건반대자가 있겠는가, 제압되는가, 완강 반대로 부결되겠는가, 금전대차(貸借)약속이 이행되겠는가, 불이행되겠는가, 도모사가 어렵겠는가, 용이하겠는가, 선후 처신과 방법을 어떻게 할까, 상대와의 관계가 친화하겠는가, 위배되겠는가, 가출 인이 멀리 갔는가, 가까운 곳에 있는가, 원근왕래, 귀가 생사여부, 임대 자와 임차인 양자 간의 장차 적 사이, 이해관계는 어떠한가, 자금조달방위는 어느 쪽인가, 자금이 되나, 안 되나, 소망성취(귀인 승진 재산)를 위해 어느 방위로 이사이전해야 하는가, 방문(전화) 상면자의 용건(또는 사업금전사건규모)이 큰가, 작은가, 등등이 **명명백백**합니다. 이외 일상생활에서 크게 도움 될 여러 항목이 많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국내와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다른 분(分)단위의 시간 경계를 **‘국내지역설정’**메뉴얼에 부여했고, 중국, 일본, 동남아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중동 등 세계 각국의 수도 및 주요도시의 날짜와 시간을 **‘국외지역설정’**으로 구분시켜, 국내와 세계 어느 곳에서든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정확도와 활용도를 보장시켰습니다.

당장의 방비(防備)와 이후 사(以後事)의 대비성(對備性)이 최고입니다.

또, **지난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에 만났던(전화) 자나, 오늘 이후 어느 연월일시(年月日時)에 만나기로 약속된 경우 ‘일자변경’ 메뉴얼에 전, 후 연월일자와 해당시간만 기입하면 상대의 당시 정황들을 뒤늦게라도, 또는 미리 알아 주요 사에 만반대비 하게끔** 공을 들여놓았습니다. 위에 드린 말씀과 아래 항목 모든 것에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 듣지 않고도 미리 알고 먼저 판단하여 주요한 이해관계에 적용시킬 수 있고, 또한 최적중(最適中)의 발설(發說)로 기선(機先)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도록 착목도(着目度)와 심리성(心理性)이 잘 조절되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하며 확실한 답(答)입니다.

이후 단 한번, 상대방의 띠를 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상대가 물어올 26개 항목**(모망사 공명사 구재사 구직사 시험사 혼인사 임신사 생업사 가정사 이전사 소송사 질병사 매매사 여행사 도난사 尋人사 待人사 면접사 채용사 투자사 승부사 가격사 경작사 묘지사 귀신사 부정사)**에 답을 단 다음, 성사(成事)가 확실한 경우 *(별표)를 해 놓았기 때문이며, 각 띠별로 **최종결론에 이르는 상황변수 실태를 정확히 기입해놓은** 이유입니다.

육임- 인사신시(人事神示) 명성에 충실합니다.

전국의 현인 기사 이인 여러분. 이 세상 인간사의 조화와 흥망성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되려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드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되려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되려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죽는다는 사실성을 확연히 알면서도 흥하고 귀하고 무병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고물가 저 소비 시대의 예비(豫備) 다방면 타개책으로 최적이 아닐까 합니다.

한편 우리가 겪는 흉화(凶禍), 또는 삶의 질곡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경험적으로 이어져 왔고, 현재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기에, 저희는 본 앱 **‘지피지기’**에 인사신시(人事神示)로 정평되어 있는 육임술학(六壬術學)에 치열한 연구를 더하여 **이 정확도, 이 속도성, 이 간편도, 이 효과성**이 금세(今世)의 추이를 업고 장구한 생명력과 역사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인사만단용**(人事萬斷用)으로 개발했습니다.

한글로 쉽게, 간결용어로 착목도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렇고 보면 이 ‘소프트웨어’가 가진 사용효과는 여러분의 권위에 크게 이바지될 **‘보물’**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본 앱 **‘육임 AI’**는 지난 2019년 9월에 출시되어 전국 현인 기사 이인 제현의 애호를 받은 **‘장중비결’의 3차 업데이트 제품**임을 강조 드리면서, 본 앱 **‘육임 AI’** 저자는 지난 20여 년간 육임활용서 ‘六壬來情秘法‘, ‘六壬刪策’ 등과 육임학습서 ‘六壬講論’ 등등 100여권(60권 전질, 12권 전질 다수, 6권 전질 다수, 상하권 다수, 단행본 다수)을 저술 발간했고, ‘曉史秘訣’ 등 CD프로그램 다수를 고가(高價)로 발간하여 큰 호응을 받아온바 있다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의 애호를 기대합니다.

※ 지난 2019년 8월 제1차 발매한 ‘장중비결’ 구입자 분들께서는 **본 3차 ‘육임 AI’로 교환(30만원)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01년 3월 1차 발매한 이래 제9차에 걸쳐 최종 업데이트(2022년)된 **‘효사비결’ CD (USB) 프로그램(정가 4백만원)으로 교환 (30만원)**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본** : 1. 입금(카드결제 포함) 즉시 구입자 본인명의번호확인 후 신청 휴대폰, 본인명의번호부여된 태블릿PC(안드로이드)로 파일 전송합니다. (아이 폰用은 7월 15일 발매 예정)
2. www.gabook.co.kr (접수창)에 접수하십시오.
■ **관리** : 1. 본 앱의 권위를 위해 1년 단위로 추가항목을 선정, 업데이트 후 전송합니다.
2. 차기 업데이트 내용: 생업변수, 가택변수, 가정변수, 진행사 초반변수 중반변수 종반변수, 12년간 나이별 변수 전송예정
3. 구입구동 후 파손 분실 번호변경 시 기존 1대 한정으로 새파일 몇 번이고 무료 전송합니다.
■ **발간** : 비영리법인 가북 www.gabook.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2길 28 청록빌딩 503호

■ **문의전화** : **02-567-3850 / 010-2536-3850**
■ **판매가격** : 93만원 (현금입금 및 전국 카드결제(전화승인)- 3개월 분할)
■ **입금계좌** : 농협 301-0252-7245-11 (가북)